

2005年度
國政監査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國會事務處

被監査機關 文化觀光部

日 時 2005年9月22日(木)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문화관광부 본부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5년 국정감사 실시에 즈음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한복 한옥 한지 한식 등 우리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또 이를 세계화 하자는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한복을 입고 한브랜드 행사로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는 한류열풍은 동남아를 비롯해서 미주대륙과 유럽, 러시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수용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우리 모두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도록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브랜드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시고 계시는 것도 이러한 한류의 지속을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류열풍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를 시작으로 하여 오늘부터 30개 소관기관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17대 국회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 수행을 비판·견제한다는 소극적인 의미 이외에 국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악하여 국정감사 이후에 이어지는 입법 및 예산심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나아가 국정 현안 등에 대한 여론을 일으킨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부 소관 분야의 현안과 정책 집행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기여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주간 행해지는 국정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 다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장관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위원 간에 오늘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문광부에 대한 감사 도중에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광부의 업무 보고가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오후 시간을 택하여 일반증인들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고 나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마친 다음 문광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시간 부족으로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미 채택된 기관증인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식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위원장님!

○이계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경 예,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청래 위원 이렇게 우리 한류 전파를 위해서 한복을 입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도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미 채택된 국감 증인이 있고, 채택되지 않은 것은 부결된 것이 아니라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암동 난지도 골프장 문제로 세금이 30억 원이 날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에게 질의할 것을 예상하고 국감 증인을 신청했고, 그리고 정수장학회 문제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증인 신청이 요청되어 있고, X파일 관련해서 홍석현 사장도 지금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 논의 때 계속 양당 간의 간사가 협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에 되어 있는 일주일 기한이 불가능하다면 확인국감 때라도 이 증인들을 불러서 반드시 신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오늘 점심때라도 양쪽 간사가 논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계진 위원 이계진입니다.

오늘 한브랜드 행사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국감이 되니까 좀 더 팽팽해지고 경직되고 분위기가 바뀌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의사 진행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 김에 본 위원회에서 한글날의 국경일화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만들어서 행자위로 보낼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국정감사 진행 기간 중에 적절한 틈을 봐서 의견서를 내는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민병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오늘 한브랜드라면 대표적인 것이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한옥, 한지, 한식 등 다양하게 있지만 한브랜드의 기본은, 그 토대는 한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날이야말로 우리 국경일로 지정됨으로써 한브랜드를 더욱 확산할 수 있고, 특히 해외동포 한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해서 한글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계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도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민병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병두 위원 오늘 재정위원회를 비롯하여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회의에서 오늘 일반증인 문제를 재론하기로 하고 또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국회 문광위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육영재단 사무국장 서동진이 2005년 8월 23일부터 지병으로 인하여 현재 요양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손기정 선생님의 금메달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근대 문화재 중의 하나이고 우리 민족의 한과 영광이 서려 있는 그런 금메달입니다. 이 금메달에 대해서 우선 보존유무도 불확실하고, 지금 손기정 재단에서 보존유무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 외손자이기 때문에 확인시켜 줄 수 없다, 친아들이 확인 요청하면 확인시켜 주겠

다 하는 입장을 육영재단이 여러 차례 표명해 왔는데 어제 일본에 있는 손기정 선생의 아들께서 확인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손기정 금메달은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서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하고 그것은 구 양정고등학교에 있는 손기정 공원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저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국회가 국정감사가 부활된 지 십몇 년 동안 지금까지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고발을 한 건이 이백몇 건인가 되는데 그 중에 형사처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300만 원 이하의 약식기소된 것이 27건 정도에 불과하다, 국회가 사실상 국정감사를 증인을 신청하여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는 지적을 오늘 조간신문에서 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문광위가 지난번 전체에서 합의한 증인조차도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능멸하는, 일방적인 불출석 통보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 제재 여부는 추후에 논의한다 할지라도 손기정 금메달의 문화재 지정 문제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증인채택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국감이 계속될 경우 결국은 손기정 금메달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수많은 국민의 요구를 우리 문광위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단법인 육영재단의 박근영 이사장의 증인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정수장학회 설립허가 취소신청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을 요구한 바가 있고 오늘 서울시 교육청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장학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금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마당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필립 이사장이 앞으로 정수장학재단의 운영과 사회 환원 문제에 관한 입장을 국회 문광위원회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 문제를 먼저 마무리하고 국정감사에 들어갔으

면 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이재웅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박찬숙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이재웅 위원 오늘 저는 몇 가지 급하게 확인할 사실이 있어서 오늘 행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입고 계신 옷들을 보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형태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복에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계신 것을 보니까 마치 양복에 갓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량한복은 안에 와이셔츠, 넥타이를 매는지 모르겠지만 어색해 보여서……

○안민석 위원 개량한복은 안에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맵니다.

○이재웅 위원 그래요?

○정청래 위원 디자이너가 그렇게 입으라고 써줬습니다.

○이재웅 위원 개량한복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맨다…… 글썄요. 마치 양복에 갓 쓴 모양 같아서 조금 어색하네요. 그건 그렇고, 분위기가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드렸고요.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문건을 만들고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금년부터는 국감 제출자료와 국감 현장 상황의 대국민 직접 공개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정책홍보의 주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대국민 직접 공개는 아주 굵고 짙은 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국정감사를 정책홍보의 주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것도 역시 아주 강조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국정홍보처에서는 실시간으로 국정감사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한 데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것이나 혹은 제지에 의해서 답변을 못 한 부분도 역시 인터넷상으로 정부의 정책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정감사 본래의 목적과 의의를 이렇게 왜곡해서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국정감사가 정책홍보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문광위원회에서만끔이라도 짚고 넘어가서 국정감사장이 정부의 대국민 정책홍보의 장으로 변질되는 우스꽝스러운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건이 무려 9페이지에 달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정부가 국정감사를 폄훼시키려는 의도를 충분히 보이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장관께서 문광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를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홍보 강화 방안, 지침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와 의의에 따를 것인지 어느 쪽인지 답변을 받고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국정감사 시작이 너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찬숙 위원님 신청하셨고 박형준 위원님, 손봉숙 위원님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증인 신청은요?

○**위원장 이미경** 증인 신청은 나중에 증인 신청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오후에 증인에 대한 신문할 때 하면……

○**정병국 위원** 제가 제안을 해 놓아야 나중에 간사 간에 협의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미경** 새로운 증인 신청을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숙 위원** 증인 신청에 관해서 정청래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후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혹했던 80년 언론인 해직 당시가 생각났습니다.

TV 토크쇼를 마치고 나왔는데 언론인 해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재취업 금지라는 참혹한 시련의 시간을 언론인 해직자들은 겪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가 뭐라든가 아무 명분 없이 언론에 매도되면서 보도되었던 그 사람들의 몇 년 동안의 생활은 지구 밖으로 쫓겨난 생활처럼 참으로 비참하고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외문제연구소라고 아마도 안기부 산하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분이 KBS에 낙하산을 타고 왔는지 헬리콥터를 타고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82년에 KBS에 입성해서 보도국에서 일을 했고 그 분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언론에 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균형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그분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 당시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많은 기자들이, 많은 언론인들이 그 현장을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내쫓았는데 그 자리에 돌아와서, 돌아온 게 아니라 새롭게 진입할 수 있었는지 꼭 증인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형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준 위원** 의회의 기능을 어떤 형태로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가장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참여정부하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감을 통제하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같은 경우 84건의 자료 제출 요구 중에 제출 기한 초과 21건, 다른 자료 제출 3건, 자료 미제출 12건 등 다른 위원실도 예년에 비해서 문광부의 자료 협조가 대단히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알아봤더니 2005 국감 정보공개 및 홍보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런 되지도 않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의 정책상황실에서 작성해서 온 부처에 내려 보냈는데 이 작성된 방안을 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 법률의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다 보니까 자료가 제대로 안 오고 또 이런 상태에서 각 국회의원실에서 국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국감의 부실을 가져올 우려가 큼니다.

예를 들어서 국감 정보공개 및 홍보 강화 방안에 보면,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됩시다. 다섯 번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밀자료는 아니나 정책의 미확정, 공개 시 추진 애로 등의 사유로 대국민 직접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실·국장 회의에서 비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무지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비밀자료로 등록된 또는 비밀자료로 분류된 자료 이외의 모든 자료를 국회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 이런 법률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실·국장 회의에서 공개 자료인지 비공개 자료인지 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이번 국정감사의 자료 제출은 대단히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지침에 따라서 문광부가 움직이다 보니까 예년과는 다르게 자료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번 정도의 절차를 더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의적으로 비공개 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저희가 묵과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면 국감이 부실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문광부와 다른 산하 기관이 국무조정실의 이런 지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분명히 하시고 국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정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국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문광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연간 1조가 넘는 매출액에 246만 명이 드나들고 있는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랜드에 확인해 본 결과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9월 12일에 접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접수가 됐는가 했더니 바로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방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요구자료의 접수·작성·제출에 이르는 일련을 과정에 자료분석·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안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증인 신청을 해야 될 시점에 증인 신청을 못 했고 국감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점에 증인을 불러내지 못하고 이제야 여기에서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인감사 때나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키장 건설 사업을 보면 스키슬로프가 18면이고 콘도가 403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3297억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근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스키슬로프가 16면이고 콘도가 424실인데 1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의 공사를 하면서 한 군데는 두 배의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부에서 제보된 내용인데 지난 총선 직전에 여권의 유력인사의 부탁으로 인근 종교시설에 지원하기 위해 강원랜드가 무리하게 아무런 쓸모없는 정선군의 고한읍사무소를 매입했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추궁하기 위해서 강원랜드 김진모 사장과 박종철 사외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기금지원 신문사를 선정한 이후에 일부 탈락 신문사의 반발과 장관의 재심청구에 대한 부당압력 논란, 위원장 사퇴 의혹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태진 전 위원장을 확인감사 때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봉숙 위원 지난번에 증인 신청할 때 북한을 가느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명단을 보니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노당까지 있는데 민주당에서 신청한 증인은 단 1건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양당 간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오늘 각 당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증인 신청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각 정당에서 신청한 증인을 적어도 1명이라도 골고루 안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막대한 적자를 냈기 때문에 KBS의 이사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KBS 이종수 이사장님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그리고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녕 대구시장을 동시에 증인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민주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께서 논의할 때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또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참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경 이재웅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우선 증인 신청과 연관해서 발언하신 그 내용들은 양당 간사 간에 의논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라는 건과 손기정 선생 금메달 건이라든지 이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도 간사 간에 좀더 의논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아마 문광부에서 열심히 뒷받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광부에 자료 제출 요청한 건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많았던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질책을 받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까지 증인과 자료 제출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제공한 방침에 따라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은 다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장관으로서도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시고 또 자료 공개도 성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들은 뒤에 진행해야만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되고 모두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은 나중에 인사 말씀 하실 때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국무조정실 지침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문화관광위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지침을 따를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경 우상호 간사님, 국무조정실 지침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그 건이면

말씀하십시오.

○우상호 위원 사실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저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같은 내각에 있는 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권고가 있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다른 부서에서 온 권고사항에 대해서 듣지 않을 것을 서약하라고 하는 조금 과도한 요구일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말씀의 취지를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장관께서는 이따가 인사 말씀 하시면서 이재웅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지금은 회의가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사실 저도 국무조정실의 문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정부라든지 여당 안에 수용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용을 봐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한 카피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것이 정부에서 다른 장관들이 수용을 안 할 거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국무조정실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상황실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던 자료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우선 문광부장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제출하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문화관광부

장	관	정 동 채
차	관	배 중 신
차	관	보 임 병 수
종 무 실 장		이 보 경
문 화 정 책 국 장		이 성 원
예 술 국 장		위 옥 환
문 화 산 업 국 장		박 양 우
문 화 미 디 어 국 장		신 용 언
관 광 국 장		김 찬
체 육 국 장		조 용 남
관광레저도시추진 기획단장		조 현 재
감 사 관		성 남 기
비 상 계 획 관		김 홍 찬
총 무 과 장		원 용 기

○위원장 이미경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인사 말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장관님! 국무조정실의 지침하고 국감법에 따르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무조정실의 지침은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알리자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의 취지를 퇴색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출해야 된다,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국장 회의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한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책으로서의 완성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아직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은 좀 유의를 하라는 뜻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코 국민을 속이거나 또는 위원님들에게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 조항을 명심하고, 이 조항을 준수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법률을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재웅 위원 그리고 국감을 국정홍보의, 정책홍보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데에 대한 큰 기본 관점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알리자라는 취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국정감사가 정부의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자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지요.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이재웅 위원 감사와 홍보가 같은 내용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부로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리자,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홍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국정감사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 혹시 지적으로만 알려질 경우 국민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함에 있어……

○이재웅 위원 그렇다면 국정감사장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다 못한 부분도 같이 올리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아니, 문화관광부 자료를……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들이 못 하신 부분들은 회의록에 전부 올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미경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 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회의록은 공개가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그런데 이 지시를 받는다면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발언 이외의 내용을 문화관광

부에서 줄 수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내용을 잘……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다 못한 내용을 국정홍보처가 받아서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인터넷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답변과 질의는 저희가 국정홍보처의 지침에 의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모두 회의록에 게재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지금 장관께서 인사하시는 도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해서 의사 진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계속해서 인사를 끝마치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미경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국정감사에 앞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여 주신 한브랜드 행사는 참으로 뜻이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그간의 충고와 지원은 우리 문화관광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지속적인 혁신을 꾀하며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문화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는 매우 특별한 해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부는 광복60주년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하나로 오는 10월 28일 우리 민족 오천년의 역사를 새롭게 담은 국립중앙박물관을 개관합니다. 또 문화·관광·체육을 통해 지역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며 인간과 문화가 함께 숨쉬는 공간 환경의 조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조성은 부산 영상문화도시와 함께 앞으로 지역 문화 발전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맞추어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원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문화홍보 업무가 우리 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문화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일에도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지원 체계

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산업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적극 추진했습니다. 미디어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대하며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0월에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계기로 출판산업도 해외 진출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분야에서는 외화가득률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무주, 태안, 영암·해남 등 관광레저도시의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가위상의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8년 북경올림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선진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주력사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후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부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신 차관입니다.

임병수 차관보입니다.

유진룡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이보경 종무실장입니다.

이성원 문화정책국장입니다.

위옥환 예술국장입니다.

박양우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신용언 문화미디어국장입니다.

김찬 관광국장입니다.

조용남 체육국장입니다.

조현재 관광레저도추진기획단장입니다.

성남기 감사관입니다.

김홍찬 비상계획관입니다.

원용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자세한 보고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준비된 인물에 따라 올리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정종복 위원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미경 예.

○정종복 위원 예전의 기획관리실장 자리는 없어졌습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지금 거의 모든 부처에서 기획관리실장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일률적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러면 공보관 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과거에는 공보관이 장·차관 밑에 독립된 기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개편되면서 각 부처 공히 정책홍보관리실의 한 부서로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러면 같은 부서 내에서 홍보·관리 업무를 두 군데로 나누어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아닙니다. 지금 저희 정책홍보관리실 안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홍보관리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그렇습니다.

○정종복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직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종복 위원 예전의 기획관리실장 업무하고 지금의 정책홍보관리실장 업무하고 똑같지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옛날의 공보관 업무가 지금 정책홍보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종복 위원 대통령이 정책의 홍보성을 중요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강화하라고 하니깐 이렇게 이름만 살짝 바꿔 가지고 정책홍보를 한다고 자리를 만든 것 같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색내기용으로 이름을 바꾸고 자리를 만들어도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답변드려야 됩니까?

○정종복 위원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생색내기용이라기보다는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공보관이 하던 역할을 과거의 기획관리실에서 좀더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지금부터 2005년도 국정감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일반 현황 이런 것 다 빠시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하시지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예, 그러면 일반 현황의 연혁 임무 기구 정원 예산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부의 주요 업무는,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예술 측면에서는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미디어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스포츠를 통한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부문에서는 종교 간 화합 증진 및 종교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문별로 주요한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토대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부는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민족 자존과 민족 자금을 재정립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오천년 역사를 새로 담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을 10월 28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관 기념행사에는 기 소르망 등 세계 석학이 참여해서 개관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미래의 문화

와 경제를 주제로 해서 ‘미래는 문화에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상설 전시실에 9686점이 전시되고 보신각 종 등 26점이 야외에 전시되는 대규모 전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복 60주년 기념 문화사업으로서 겨레문화창의단……

○**이재웅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지금 자꾸 읽고 계신데 이 내용을 위원들이 파악을 못 한 것도 아니니까 줄여 버리고 아주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 시간을 더 주도록 하세요.

○**정병국 위원** 새로운 사업만 보고를 하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미경** 그동안 죽 보고를 받아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李在五 委員** 새로이 보고할 게 있어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새로운 사업보다 매번 보고는 드렸지만 좀더 상세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진 위원** 이계진입니다.

한복을 입고 나서 참 마음이 새로웠는데 분위기는 역시 팽팽합니다. 같은 한복을 입었어도 이쪽 한나라당 쪽에서는 주로 전통·보수적인 한복을 입었고 열린당 쪽을 보니까 개혁적인 옷을 입었다, 상당히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는 그런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서 이것은 한지로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것 한 500년 뒤면 문화재적 가치가 될 텐데 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심히 따졌다더라’ 그런 단서가 붙지 않을까 하는데 먼저 장관님께 프로 운동선수의 병역기피 현황이 많다

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역을 필한 우리나라의 야구 축구 농구 특히 프로 운동선수들의 절반 이상이 면제자라면 이 수치를 정말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정도로 당혹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9월 현재 종목별 프로 운동선수 병역 현황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자료를 받아봤더니 병역을 필한 전체 452명 선수 중에 반이 넘습니다. 230명이 완전 면제나 제2국민역, 이걸 합쳐서 병무청에서는 면제라고 표현합니다. 반이 넘는 선수들이 면제로 된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볼 때, 우리나라 총 신체검사 수검 인원이 32만 3000명쯤 되는데 신체검사를 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현역으로 가라가 90%, 보충역으로 해라가 6.3%, 면제가 겨우 2.1%입니다. 여기에 제2국민역이 1.9고 완전 면제가 0.2로 합쳐서 2.1%인데 이것과 비교할 때 운동선수들은 50%가 넘습니다. 50.1%가 면제를 받았다면 그 튼튼한 프로야구, 프로농구 선수들이 과연 군에 못 갈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프로 선수를 하겠는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허탈감을 주는 상황인데 야구의 경우가 199명 중에 107명으로 53.8%, 축구의 경우 168명 중 96명으로 57%나 되고 농구가 85명 중 27명으로 31.8%입니다. 물론 기형적으로 크거나 뚱뚱하거나 그런 선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하다는 거죠.

특이한 것은 지난해 연예인과 프로선수들의 병역 파동이 있었잖습니까? 그 여파로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각성해 가지고 군대를 많이 가게 돼서 과거 2003년에 84.9%에서 2004년에 90%로 일반 국민들은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프로선수들의 면제율은 2004년 동일 시점의 53.7%에서 개선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병역 파동으로 국민의 병역 이행 의식 수준은 크게 높아진 반면에 정작 면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쪽, 그 장본인이었던 프로선수들과 구단 측은 검·경의 강도 높은 수사와 각종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장대비 올 때 잠깐 피해 간다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지난해 130명의 면제자 수로 54%의 면제

율을 기록했던 야구의 경우 올해 107명으로 면제자 수가 23명 감소는 했습니다. 그러나 비율상 여전히 지난해와 비슷한 53.8%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 KBO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제출자료가 제2국민역 122명, 면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2와 8명……

그런데 올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2국민역이 40명으로 줄고 면제가 67명으로 숫자 이동을 합니다. 이걸 무슨 얘기냐 하면 KBO가 작년에 여론을 의식해서 각 구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 숫자를 조작해서 제출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번 하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엉터리 숫자를 냈었다는 것입니다. 조작이지요. 국민의 따가운 눈을 피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작해서 낸 것입니다.

KBO는 지난해, 올해 각각 구단들에 내려 보낸 제2국민역과 면제자의 파악 기준이 달라서 지난해 면제자로 포함되어야 할 인원이 제2국민역으로 파악돼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변명입니다. 설득되지 않을 변명입니다.

그것 외에 1년 사이에 59명의 면제자가 급증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했더니 도저히 설명을 못 합니다. 조작이었으니까요. 한두 명이면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수십 명이 착오의 숫자로 왔다 갔다 합니까?

제2국민역은 5급 판정을 받은 자고요. 면제는 6급 판정을 받은 자로 분명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BO는 6급과 5급 모두를 통상 면제로 분류된다는 병무청 기준을 무시한 것입니다. 교묘한 눈속임을 해서 작년에 국회에 서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장관님, 이것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국민들을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국회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감 시작 전날에 자료 제출이 됐는데 어제 오후 6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이것 왜 이럴까 했더니 오늘 그 지침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고 이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 과연 국정 홍보를 할 기회로 삼을 그런 방법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KBO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국민의

편에서 바로 알리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편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선수라는 게 자기 몸 팔아서 기량 팔아서 돈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국민들은 군대 가고 프로선수들은 모두 속이고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빛나는 젊은 날에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는데 프로선수들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장관님이 어느 편에 서셔야 되겠는가 한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프로선수들의 병역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근본적으로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병역을 같이 하는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프로 운동단체의 자료 제출은 프로단체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늦었다는……

○이계진 위원 관리 감독을 장관님께서 하셔야 되니까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확인감사 때까지 더 독려를 해서……

○이계진 위원 하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검찰의 재수사, 철저한 재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지금 60만 대군, 이미 병역을 필한 사람, 앞으로 가야 될 젊은이들 모두에게 확실한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작은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다음에 여러분에게 지금 배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프린트물이 하나 왔을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뭔가 하실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인터넷 세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4, 50대까지도 인터넷이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어떤 정도냐 하면 우스

개 소리로 어머니가 코피를 줄줄 흘리고 계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답이 뭐냐 하면 ‘빨리 인터넷에 들어가 본다’가 답입니다. 어머니의 코를 막고 안정시키고 119에 연락을 하고 병원으로 모신다가 아니라 처치 방법이 ‘빨리 인터넷에 들어가 본다’입니다. 이게 단순 우스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생활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글이 망가지는 그 심각성은 대단합니다.

지금 나눠드린 외계어라고 예를 들어 놓은 것하고 욱노래라고, 이게 번안이나 개사가 아니라 창작곡으로 나온다는데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장관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해설까지는 어렵겠지만 맨 앞에 ‘㉠남별님㉡는㉢㉣㉤글쓰능高☆로㉥㉦㉧㉨㉩㉪㉫㉬㉭㉮㉯㉰㉱㉲㉳㉴㉵㉶㉷㉸㉹㉺㉻㉼㉽㉾㉿㊀㊁㊂㊃㊄㊅㊆㊇㊈㊉㊊㊋㊌㊍㊎㊏㊐㊑㊒㊓㊔㊕㊖㊗㊘㊙㊚㊛㊜㊝㊞㊟㊠㊡㊢㊣㊤㊦㊧㊨㊩㊪㊫㊬㊭㊮㊯㊰㊱㊲㊳㊴㊵㊶㊷㊸㊹㊺㊻㊼㊽㊾㊿’ 뒤 이런 것 하고 ‘Lr는 *그ㄷrlㄱr*중or’ 이게 외계어입니다.

통신어 중에 방가방가, 추카 이진 정말 널리 쓰여서 웬만한 사람 다 알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국어기본법이 통과된 이 마당에 우리의 글과 말이, 한류 열풍이 부는 가운데 우리의 글과 말을 이렇게 ‘썩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통탄합니다.

거기에 욱노래, 요새 영화 구경을 가면 아마 대사의 3분의 1이 욱일 것입니다. 그 영향이 아닐까, 아름다운 동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노래를 가지고, 순 욱으로 방천을 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대국을 위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다음 여기에 인터넷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단절 현상까지 있는데, 지난 6월 KBS 2TV에서 상상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의 ‘세대공감 올드앤뉴’라는 코너에서 조사를 했는데 ‘주전부리’라는 말과 ‘터울’이라는 말과 ‘회수권’이라는 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10대들이 그 뜻을 하나도 모르거나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다는 현실, 우리말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말을 지키고 우리말의…… 노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서면 질의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해야 될 국립국어원이 1년 예산이 130억입니다. 이번에 국어기본법이 통과되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원 충원을 요청했더니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말과 글이 더 망가진 뒤에 하려면 엄청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된다고, 아마 젊은이들은 가래가 뭔지도 모를 것입니다. 가래는 삼의 안쪽에 줄을 끼워서 셋이 하는 우리 농기구인데 정말 과학적이지요. 힘의 벡터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하여튼 국립국어원이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면질의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위는 어떠냐? 저도 국회에 들어와서 하도 전문용어가 많아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T/F팀이 뭐가 했더니 태스크포스팀이다, 태스크포스도 저는 알아듣지만 일반국민 중에 모르는 분이 꽤 많을 것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이 내려간다는데 어떤 방식일까, 로드맵이 어떻고, 아주 많습니다. 클러스터가 어떻고, 문화바우처, 문광부에 문화바우처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외교바우처 소리는 들었어도 문화바우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여행 관광 바우처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계진 위원 그런 것이지요. 리치아웃이니 세이프 팜존,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 이것을 알아들을 농민이 얼마나 계실까요. 정부에서 출선하여 우리말을 망친다는 그 예가, 증거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보고에 따르면 한글 오용률이 정부 홈페이지에 10%, 방송 7%, 신문 4.2%, 잡지 4.5%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앞서서 우리말을 잘못 쓰고 오염시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힘든 표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소화전 사용법에 이렇게 써 놔드립니다. 이것 우리 보좌관들이 알아온 것인데, “소화전함을 열고

관창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끄집어낸다.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한다” 관창이 뭔지…… 장관님 ‘관창’이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잘 모르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이것이 영어로 하면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즐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해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사람은 소화전 안의 호스를 화재 현장까지 끌고 간다. 다른 한 사람은 신호를 받자마자 소화전 안에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연다’ 이러면 알아듣지 않을까…… 관창이 어디 있는지 찾다가 불다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예산지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서 좀 강제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저희가 협조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참고로 정부 각 부처에 국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책을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정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두 위원 민병두입니다.

X파일 도청테이프와 녹취록 사본을 입수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가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습시다. 저는 이상호 기자의 보도는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을 다 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고 이 보도를 통해서 과거 권력의 추악한 불법도청 실태와 부패한 기득권 세계의 추악한 커넥션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소환조사 했습니다. 아직 검찰의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이와 같이 탐사보도의 전형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의 개혁에 새로운 지평을 연 이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조사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는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켜야 할 문화관광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하며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이상호 기자의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해야 하는 정부의, 문화관광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상호 기자의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것이라고 보는지, 실정법 위반이 더 중하다고 보는 것인지 우선 문화관광부의 태도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호 기자의 보도는 저도 잘 봤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자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료를 입수하는, 법무부에서 그것을 독수독과이론이라고 합니다만 경위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불법적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민병두 위원 저는 사법처리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것이라고 보는가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위원 저는 그것을 독수독과이론, 문광부에서 거기까지 논리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독수독과는 일반적으로 함정을 파서 권력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때를 말하는 것이지 이처럼 제3자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실현을 위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국정원이 과거사 진상 조사를 하면서 정수장학재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가 정부는 진상 조사 결과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는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정부의 한 기관이 진상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묵살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부교육청이 현재 정수장학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학재단의 해결 방법은 기본적으로 정수장학재단을 사회에 헌납하든지 아니면 법에 의

해, 지금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에 보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따라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5·16 쿠데타에 항거하여 결국 보복을 당하여 강제 헌납 당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경영의 어려움도 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향신문의 부지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재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광부는 정수장학재단의 해법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장학재단은 교육청의 판단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사회 일반 여러 각도에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이 임무를 직접 소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두 위원 그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만화산업은 문화산업의 블루오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계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만화계에서도 저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책자 하나 냈는데 ‘만화산업은 문화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정책자료집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전·현직 만화가협회 회장들이 ‘의원님 의원님 우리 의원님 만화사랑 변함 없으신 우리 의원님, 이두호’, ‘정말 멋진 2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세’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만화 월간지 ‘창간’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화계의 선생들과 인연을 맺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만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세계 문화산업에서 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만화 덕분입니다. 일본 만화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 광복 60주년 때 청소년들이 카스툼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 카스툼 플레이에 온통…… 일본 만화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일본 만화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모노에 태극기 걸치고 있지요. 광복 60주년 행사입니다. 일본 사무라이 같은 복장하고 돌아다니지요. 일본 칼 들고, 우리나라 청소년 80%가 일본 만화를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광복 60주년 그 거대한 행사에서 이러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없고 사리분별도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 만화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만화는 그만큼 성장력이 없느냐? 잠재력이 없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우리 만화의 전성기 때 그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본소 말고 대여점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만화 창작 공간이 많이 위축되고 베스트셀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심의를 강화하다 보니까 교보문고 등 출판사에서 만화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만화 전문출판사가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출판하는 만화의 86%가 일본 만화입니다. 우리나라 만화는 불과 14%밖에 출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만화가 일본 만화에 비해서 수준이 낮으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하도 등용 공간이 없어서 순정만화라고 하는 만화를 가져다가 인터넷에 올린 강도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강도영이라는 사람이 졸업 후에 만화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400여 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한 곳에서도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일곱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료로 와서 습작 생활을 해라, 그래서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순정만화를 올렸습니다. 하루에 200만 회 조회수, 리플이 20만 개, 이것이 창작의 원천이 되어서 지금 해외에 1억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고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원천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자를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문학이 상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영화적 상상력의 제왕이었는데 지금 그림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림을 상상력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화산업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의 잠재력을 어떻게 국가가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그들의 창작 공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21세기 문화산업의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문화산업비전을 발표하실 때도 드라마 영화 게임 등등을 주력 산업으로 거론했을 뿐 만화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계진 위원님께서 국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 2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데 100년 안에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한국어는 상당한 정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에서 미들랭귀지(middle language)로 한국어를 채택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못 들어 봤습니다.

○민병두 위원 지난 8월 달에 경희대 지영옥 교수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들랭귀지로 한국어를 채택하자, 미들랭귀지로 언어가 거론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랄지 그런 세계적 공용어가 있는데 한글은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과학성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미들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공용어가 아니라 준세계어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외국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어느 정도이냐? 한심한 수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미국 애들이 쓰는 모국어사전입니다. 국어사전, 유치원 애들이 쓰고 초등학교 애들이 쓰는 사전입니다. 미국 애들은 어렸을 때 사전을 끼고 삽니다.

프랑스의 불어사전입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모국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익히고 모국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문학과 불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국어사전은 어떠냐? 어린이 국어사전은 어린아이들이 전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이런 국어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국어를 사랑하게 하는 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니다.

국어연구원이 있지만 국어를 얼마나 업데이트 하느냐? 언어는 어떤 관념을 대중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아까 이계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나치게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령 국어사전이 10년마다 한 번 개정되는 상황, 한류라고 하는 말도 국어사전에 없는, 지난 10년간 세상의 변화 속도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국어사전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흐름들을 담아냄으로써 오히려 온라인상에서의 언어의 퇴화·악화를 막고 그 나라 언어의 대중성을 보존하는 면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 인터넷판은 1년에 네 차례 개정판을 냅니다. 작년에 중국식 영어 칭글리시(chinglish), 살을 태운 듯 보이게 하는 화장품 셀프 태너(self Tanner), 이러한 새로운 대중의 정서와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언어를 일단 인터넷판에 올려 대중들에게 테스트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가령 섹스 업(sex up)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더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게 만들기 위해 부풀리다'라는 뜻인데 2003년 영국 정부가 이라크 무기 첩보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 섹스 업이라는 단어는 부풀리다는 의미로 변형됐습니다. 이러한 시사용어도 인터넷판을 통해서 일단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삼성출판사 금성출판사 민중서림 등이 국어사전을 개정·증보해 왔으나 이제는 개정·증보 작업을 모두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화학협회에서 화학용어를 전부 통일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비닐이라고 하면 모르고 바이닐 해야 알지요. 화학협회는 화학용어를 비닐이 아니라 바이닐, 비타민이 아니라 바이타민 등으로 수백 개를 통일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 국어에 혹은 국어사전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국가들에서는 가령 스페인어보호위원회, 불어보호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서 자국어에 세계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이때에, 또 700만 해외 동포가 있는 이때에 우리 국어를 격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의 위상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고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류의 컨트롤 타워로서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을 만든 바 있습니다. 한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가 직접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민간을 통해서 주요 거점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방에서 확인한 결과 정관을 변경하고 처장을 임명하는 이사회의 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서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혹은 전년도에 소화하지 못한 예산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전용한다든지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확대될 경우 외국에서 한류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아마존에는 험한류라는 만화가 지금 1위입니다. 다케시마를 한국이 공격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한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때에 아문재단의 문제점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관리·감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명 패널리……

○위원장 이미경 민병두 위원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在五 委員 문화관광부장관님과 여러 직원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국감 때 제가 한강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李在五 委員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문광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는냐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문화관광부가 국가에 남을 만한 사업을 한 것이 있으면 하나만 장관이 들어 보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

○李在五 委員 문화관광부가 지난 1년 동안에 국가에 남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李在五 委員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실무적인 말이 아니고 적어도 한국 하면 무엇이 대표적인 상징이다 하는 것을 문화관광부가 검토·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한강을 대한민국의 역사의 강, 대한민국의 문화의 강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이 넘치는 인간의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장관께서 잘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지요.

(프리젠테이션을 상영하며)

세계 각국은 국가대표 문화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이 꼭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하면 에펠탑 세느강 몽마르뜨 언덕 샹젤리제, 미국 하면 자유의여신상 라스베이거스 그랜드캐년, 중국 하면 만리장성 경극 천안문 광장, 일본은 후지산 온천 신사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장관님, 한국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

○李在五 委員 프랑스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한브랜드이지요.

○李在五 委員 그래요?

한국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는 2004년 KOTRA 자료를 보면 남북 분단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1위가 남북 분단입니다. 남북 분단을 한국 문화관광의 대표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04년 관광수지를 봅시다.

외국인 입국 582만 명, 관광 수입 57억 불, 대신에 내국인 출국은 883만 명, 관광 지출은 95억 불입니다. 관광수지가 38억 불 적자입니다. 연간 외래관광객 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연간 400만 명인데 파리는 연간 3000만 명입니다. 파리의 8분의 1입니다.

이러한 현황은 첫째 한국이 갖고 있는 남북 분단의 이미지, 문화관광 아이템의 부재, 관광수지가 38억이나 적자가 되고 파리의 8분의 1 수준의 관광객이 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안이 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은 다이내믹 코리아를 상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아이템을 개발하고 관광수지를 흑자로 돌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한강을 보고 대한민국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강은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가능합니다. 파리의 세느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강은 41.5km인데 세느강은 13km입니다. 한강의 넓이는 평균 949m인데 세느강은 200에서 300m입니다. 다리는 한강이 24개인데 세느강 32개입니다. 한강에 섬은 8개가 있는데 세느강은 2개가 있습니다.

저는 한강을 역사가 흐르는 역사의 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강 다리에 한국 역사를 재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강의 여러 개 다리에 한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단군신화에서 월드컵 4강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의 역사를 재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타고 한국을 상징하는 다리의 조형 예술과 시각 예술을 보면서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단군신화대교다, 월드컵대교다, 예를 들어서 성산대교는 월드컵4강대교, 한강대교는 한강의기적대교, 천호대교는 단군신화대교, 성산대교는 행주·임진왜란을 상징하는 대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한강변의 역사유적지를 복원해야 됩니다. 한강은 옛날에 뱃길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은 우리에게 친근하기보다는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뱃길을 이용해서 한강변

의 역사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데 한강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정부만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역사유적과 시내를 연결하는 원활한 관광로를 만들고 선착장과 역사유적지를 복원하고 또 자전거 도로와 도보를 통해서 역사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강에는 행주산성부터 아차산성까지 37개의 역사유적지가 있습니다.

둘째, 한강을 문화의 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강변에 문화예술단지를 만들어 문화의 광장, 예술의 광장을 만들고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고 도시·건축 박물관을 만들고 문화체험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강변 전체에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의 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강의 야경을 예술화하여 문화상품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냥 조명 정도로 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한강의 야경을 시각적으로 예술화하거나 형상화하기는 부족합니다. 한강 전체의 야경을 문화상품화할 수 있는 예술성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밤에 벚꽃 유채꽃 보리밭 밀밭 등을 볼 수 있도록 야경 연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한강을 인간의 정이 흐르는 인간의 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의 8경을 관광자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화의 낙조에서부터 공암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88대로라든지 한강변 양 대로의 토끼굴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버브리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인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문화와 인간이 함께 숨쉬는 그런 문화를 만든다고 장관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국의 모든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를 5월이면 5월, 10월이면 10월을 선정해서 한강을 문화의 강으로 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모든 문화축제가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축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서울광장과 청계천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그리고 서울숲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문화축제를 만들어서 서울에 가면 한강문화축제를 볼 수 있다 하는 호응을 외국인들로부터의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숲과 연계해서, 여기에 워터 프론트라고 하는 외래어를 썼는데 이

것은 사람들이 강변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암경기장이라든지 서울숲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숲과 강남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든다든지 고사분수, 제트분수를 만든다든지 인공수변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한강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와 인간과 정서가 있는 강으로, 가령 파리 그러면 세느강 하듯이 대한민국 그러면 한강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국가적인 대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쥐서 한강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난해에 서울시의 문화관광 쪽 담당부서와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쳤는데 서울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한강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우리나라 외래 관광객의 80%가 찾는 서울시가 서울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체계나 사업추진 성격상 맞는 것입니다.

○李在五 委員 그건 저도 아는데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불광천 중랑천 같은 지방 하천은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이나 낙동강 이런 것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하천을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한강……

○李在五 委員 그러니까 한강 주변에 있는 거, 한강변, 수변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시가 역사의 장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아차산 일대를 고구려촌으로 복원하겠다고 하고 또 하남시도 백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구리와 하남을 연결하는 한강이 옛날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터였습니다. 이곳을 복원해서 역사를 재현하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한강 수계와 연결되는 강변을 복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건물 하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리 심고 꽃밭 만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요. 그러나 한강변에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설계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문화관광부에 한강을 국가의 문화브랜드로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손댈 수 있는 것은 고수부지에 꽃 심고 나무 심고 하는 정도뿐입니다. 이런 정도의 국가 브랜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서울도 우리나라로 보면 지방이니까……

○李在五 委員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임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적 설계는 정부가 해야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서 서울시와 이 문제를 잘 협의하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면 한강 개발에 대해서 용역 사업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도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문화관광부가 적극적으로 하세요. 다른 나라들 보세요. 삼바축제도 있고 하다못해 몽골만 해도 한 달 내내 몽골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강 같은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임산업 성인오락실이 거의 도박장화 돼 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될 때까지 이 부분 한번 보시지요.

(프리젠테이션을 보며)

제가 새벽 2시에 성인오락실의 현장을 가 봤습니다.

이게 영등포역 앞에서 성업 중인 오락실입니다. 밤에 촬영한 것이라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일본식 빠짱꼬 메달게임기입니다. 이게 연타 터지는 장면인데 한번 연타 터지면 250만 원까지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250만 원 따려면 한 1000만 원 넣어야 됩니다. 이걸 연타기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체의 현황판입니다. 이게 6대 4 비율의 허가 조건인데…… 여기 보세요. ‘청소년 게임장 출입구’라고 되어 있지요. 허가 조건에 청소년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 6, 일반이 할 수 있는 곳이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임장 표시

만 되어 있지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9월 1일 새벽 2시 현장입니다.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주부들이 여기 오락하러 왔겠어요? 주로 돈 따러 온 것이지요. 이걸 ‘바다이야기’라는 전자식 메달게임입니다. 이 장면은 상품권 환전소입니다. 원래 상품권은 바꿔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품권 사고팔고’라고 붙어 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서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다른 장소가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동일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용역비는 서울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와 서울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조사를 했고 서울시의 문화관광과도 조사를 했는데 자기네들의 애로사항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제시했더니 이걸 문화관광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 주어야지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협의를 하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게임 현장에 대해서는……

○李在五 委員 이따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李在五 委員 아니고 시간이 됐어요.

질의 시간에 내가 다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간단히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李在五 委員 아니, 내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여만 줬고 하나하나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래서 아까 그러한 소위 상품권의 이런 혼란 때문에 저희들이 상품권 지정 제도를 마련했고 경품으로서의 상품권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매우 불법적으로 진행된다면 경품으로서 상품권을 제외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李在五 委員 자세한 것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한 브랜드 행사 일환인 비빔밥을 오찬으로 드시고 나서 오후 1시 반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장관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맨 마지막 질의 순서인데요. 보도자료 3개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침에 얘기가 됐고 나머지 2개를 가지고 오후에 얘기할 텐데 점심 때 보도자료를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만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쉽게 얘기를 하고 할 테니까 보도자료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경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저는 작년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국정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인 공무원들에게 국정감사를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국정감사를 4대 목표를 세우고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안하고 우리 당 위원님들 7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에서 ‘나도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류를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보고 느끼는 국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열두 군데의 기관을 방문했고 청계천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관계 기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질타하고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각 기관별로 칭찬거리를 다 모아서 칭찬자료집을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관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보내달라

고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질의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물을 생각입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 정했던 ‘나도 국회의원이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국회의원이 제안해 주신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나도 국회의원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동구에 사는 국민 국회의원, 화가신데요. 김윤환 씨가 잠깐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혹시 소감 있습니까?

(○김윤환 방청석에서 - 반갑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국민 국회의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문화예술계의 오랫동안 상처인 목동 예술인 회관 건립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목동에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예술인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여된 165억 원의 국고를 지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되었고 세 번의 국정감사와 두 번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사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정동채 장관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업 취소를 통해서 객관적인,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92년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님의 공약 사업에 의해서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사업의 진척이 부진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집행되지 않았던 50억은 저희들이 이미 회수한 바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책임 부서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청래 위원 작년 우리 문광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 여야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신문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신문법과 관련한 논쟁은 신문의 공정성, 공익성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최근에 홍석현 사장이 연루된 X파일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고 언론인, 매우 중요한 언론사 회장으로서 부도덕한 이런 행위가 많은 국민들의 의혹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소위 문제가 되는 X파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몇 가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97년 9월 9일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대화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와 재벌, 언론의 뒷거래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내가 볼 때 우리가 이번에 전한 것이 타이밍상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 날 이 대표……’ 이회창 총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나와 만난 직후 김대중 주필과도 만났었고……’ 그리고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이 대표께 자료를 주면서 대표가 이용당하신 거다. 자료를 보면 누군가가 소하리 공장으로 모셔가는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노조와 호남한테 아무리 아부해 봤자 절대로 안 되는 만큼 확실하게 보수편에 서시면서 민생 쪽에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대강 얘기했더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회창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기업의 자유, 중소기업 육성, 가정경제 보호라는 모토로 나갈 것이니 이번에 꼭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7년 10월 7일 특정후보 당선을 막기 위한 족벌언론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지난 10월 3일 대통령과 친한 아무개가 대통령께 불려가 독대 후 10월 4일 우리 전육 편집국장을 찾아와서는 이회창 씨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장이 지금 와서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회창 씨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김진태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의 조갑제, 구종

상이를 만나서 전해들은 얘기인데 얼마 전 조선일보 방씨 일가가 모여 차기 대통령 문제에 대한 논의 끝에 누가 되던 간에 김대중이가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그 자리에서 김대중 주필을 불러 의견을 물었더니 김 주필 역시 공감하고 하여 1차적으로 DJ의 큰 약점인 건강 문제를 치고 나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DJ는 오른쪽 무릎의 괴사증으로 강서구 소재 모 병원의 주치의한테 몰래 치료를 받고 다니고 있다고 해서 조선일보 기자들이 야간 잠복근무를 하는 한편 CT촬영 결과도 어느 정도 확보했기에 10월 21일경 주간조선이나 월간조선을 통해 터트릴 예정인데 그것이 상당한 파문을 불러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97년 대선을 임박해서 월간조선에 여기에 대화가 나와 있는 대로 김대중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김해 김씨 대제에서 부축받고 겨우 반배'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방송국 분장사: 건강이 가장 안 좋으면서 가장 좋게 보이는 양면성을 김 총재는 갖고 있다. 분장에 의해 표피적으로 드러난 젊음이라고 보면 될 것' 이런 등등의 중간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며칠 전 기사에는 '이회창 총재의 동생인 이회성 씨는 60억이 아니라 30억을 전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면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홍석현: 그러지요. 경과도 좀 봐 가면서 2명에서 15개를 운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30개는 무겁더라고요. 이번에는 비서실 김인주가 믿을만하니까 그 친구, 나, 이회성, 셋이서 백화점 주차장에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15개는 15억입니다. 15억을 2명에서 운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30개는 무겁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1만 원 짜리 현찰로 1억이면 11.5kg입니다. 30억이면 약 350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힘도 좋은가 봅니다. 15억을 둘이서 운반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합니다. 귀공자로 태어나서 버젓한 중앙언론사의 사장이 조폭영화의 주인공도 아니고 왜 백화점 주차장에서 뒹누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님께서' 형님은 이회성씨를 말합니다. '형님께서 9월 8일 지구당위원장 연찬회 때 오리발이 들어가야 하니 집행되

도록 해달라고 하신다고 해서 그 전 토요일밤 집으로 오라고 하여 생색 좀 내고서 2개를 차에 실어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신문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소유 지분 분산 문제라든가 정치적 독립, 그리고 사주의 청렴의 의무를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재연될 수도 있고 미래에도 재연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저는 신문법 개정에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언론사 사주들이, 조선일보 방씨 같은 경우 88.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론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소유 지분 분산 문제 그리고 정치적 불개입 문제 그리고 언론사 사주, 발행인, 편집인의 재산을 공개하는 문제를 이번에 정치 불개입 조항과 함께 신문법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여야 존경하는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학회 문제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경향신문, 부산일보, MBC 문화방송은 공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과 사유재산 탈취를 경험한 대표적인 언론사들이며 아직도 정수장학회에 의한 기형적인 구조에 있는 언론사들입니다. 대표적인 강탈 사건이 바로 경향신문 강탈 사건입니다.

제가 당시 64년도 경향신문을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64년 5월 9일자 당시 '서민호 국회의원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구호가 사라졌다'하고서 직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9일날 '누구를 위한 혁명인가'하는 이런 기사도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상황에서 보면 '허기진 군상' 이것이 조선일보가 빼앗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지개미를 찾고 있다, 줄을 서고 있다' 그다음 '꿀꿀이죽을 아십니까?' 허기진 군상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법원에 무장군인들이 난입하고 이런 군사 위cker문화가 판을 치는 사회를 경향신문은 통렬하게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군사

정부로서 좋을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결국 중국적으로는 어떤 기사가 났느냐 하면 당시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과 사진기자가 반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갇히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고서 10년 후에 결국은 경향신문사가 5·16장학회에 강제적으로 헌납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부일장학회가 5·16장학회에 자진 헌납했다고 하는 부분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미 거짓임이 판명났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사회에 환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관련된 X파일 문제나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강탈한 경향신문, 그리고 정수장학회는 경향신문 정동사옥 밑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런 토지 재산을 가지고 경향신문에 계속 지금 임대료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 얼마 전까지 유력한 대선주자 중의 한분인 박근혜 대표께서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정수장학회 ‘정수’는 박정희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자입니다. 저는 큰 정치를 하시는 분은 과거의 그런 어두움을 툭툭 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표를 볼 때마다 그리고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박근혜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연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이 왔다 갔다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느끼곤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표께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께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재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채신하여 사회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경향신문, 부일장학회 등의 헌납과 관련해 재산 탈취 과정에 있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박정희 대통령 유족을 대표해 박근혜 대표가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부당한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에 대한 사례를 사례집으로 묶어서 백서를 발간하는 그런 연구팀을 저는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직의 아픔을 갖고 있는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막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정원이나 과거사위

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언론인 해직문제나 통폐합의 문제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거사위원회활동이나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다면 백서를 만드는 문제는 그 시점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지금 홍석현 씨가 주미대사 직을 그만두고 내일 이임식을 합니다. 혹시 중앙일보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중앙일보는 언론이기도 하지만 또 사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회사에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X파일은 불법도청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철저히 조사되어서 국민들 앞에 백일하에 낱알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최초로 용기있게 보도한 이상호 기자는 검찰조사를 받으러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은 지금 어찌면 국내에 안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사주는 용서가 되고 이것을 보도한 기자는 처벌받는 이런 불공평한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한국의 언론은 한국 현대사에서 때로는 피해자로 때로는 가해자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언론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그런 중립지대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신문법에 그러한 진정한 의미를 담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다.

옷을 갈아입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량한복을 입기로 이미 약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전주 한지 준비 측에서 한 정당에서 한 사람씩 꼭 한지로 만든 한복을 입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여서 제가 오후에 입기로 양해를 하고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이 한지로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갈아입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카지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카지노 문제를 1년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했고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 5월 1일부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시행이 됐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이 법에 따라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 사업신청서에 따르면 5개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베가스 오브 아시아(Vegas of Asia)가 320만 평 규모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그 베가스 오브 아시아 지구에 5개의 메인 카지노호텔이 들어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스 오브 아시아의 경우 국내외의 15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의 하나로 역시 한국관광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해 결정된 3개의 신설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다가 5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까지 개입하게 되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 직접적이고 또 독점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모든 종류의 카지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관광공사의 업무·경영 능력을 여러 측면에서 제가 평가를 해 봤었는데요. 정부투자기관이 경영실적 평가를 한 것을 보면 관광공사는 늘 하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도 2003년, 2004년 중 비교를 해보면 2004년에도 역시 26.2%라는 굉장히 큰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관광공사의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카지노를 독점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그 법에 의해서도 사업 시행자에 한해서 엄격하게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발 계획 승인 시에 기업도시위원회 등에서 적정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나친 공급 과잉 발생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손봉숙 위원 한국관광공사가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카지노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카지노를 통해서 얻은 이익금은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것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관광·레저기업도시 건설이 하나고, 하나는 대북관광 활성화를 통한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는데 장관님은 지금도 그것을 부인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손봉숙 위원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제가 남북협력기금에 쓸 개연성이 높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자료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그리고 지난해 제가 카지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세 곳에 증설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장 선정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장관님은 그렇지 않고 투명하게 선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선정되지 않았다고 증명이 된 것이 선정된 한무컨벤션하고 계약을 해지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공사가 근거당에……

○손봉숙 위원 이유는 근거당 설정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선정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셨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카지노업자 선정하는데 현장 실사 선정 심사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서류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았더니 한 업장당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한 업장당 2시간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떻게 1000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을 엄청난 양의 서류를 가지고 하는데 그 서류를 2시간 10분밖에 심사를 안 하니까 근거당 금액이 틀리는지 아닌지 밝힐 수가 없지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미 내정을 해놓고 형식적인 심사를 했다고밖에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내정해 놓고 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관광공사는 관광공사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손봉숙 위원 지금 한무컨벤션하고 재판에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재판은 이미 1차적으로 지난 9월 9일 청구권자로서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손봉숙 위원 관광공사가 졌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공사가 졌다고 보다 법원은 한무가 영업장을 계속 하라는 것이지요.

○손봉숙 위원 그런데 재판이 걸렸을 때도 시중에서는 관광공사는 별로 재판에 대응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계획된 재판이라는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무리 사람들의 상상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손봉숙 위원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질 재판을 왜 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이야 관광공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가 근저당의 허위기재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그대로 넘어갔다면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지요.

○손봉숙 위원 그것이 아니라 사전 내락설에 의해서 한무가 결정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떠돌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재판에 지면 관광공사나 문화부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무로 그냥 주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 시나리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봉숙 위원 항소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관광공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봉숙 위원 항소해서 해지를 한 결정이 옳았는지 확실히 밝힐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법원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실 것인지, 장관님 생각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공사로 하여금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카지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하고 옥외 광고 수익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 광고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도표를 들어 보이며)

86아시안게임하고 88서울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해서 특별법상 옥외 광고 사업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애초의 기간은 198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대회가 끝났으면 옥외 광고 사업이 종료되고 이것으로 설치된 모든 옥외 광고물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마는 지난 2003년 7월에 강신성일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2006년까지……

○손봉숙 위원 그것은 너무 건너뛰십니다. 1989년에서 2003년으로 건너뛰시는데 그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광고물이 1989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이 적법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그다음에 체육진흥공단,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 부산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월드컵대회조직위원회, 그렇게 쪽 옥외 광고가 있었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것을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데 그때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손봉숙 위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승계가 되었으면 최초의 법에 의해서 건립되거나 설치된 옥외 광고물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광고 내용, 광고주 이 사람들도 법이 고쳐질 때마다 그대로 승계를 받으니까? 그렇지 않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렇지 않아야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았더니 특정 업체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9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굉장히 큰 옥외 광고물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까 말씀드린 광고주체, 그러니까 올림픽조직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손봉숙 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에 의해서 옥외 광고를 허용했다면 이 옥외 광고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공개 입찰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것을 다 수의 계약으로 연장하고 봐줬다면 그것이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동안에 대회 조직위원회와 광고대행사 간에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봉숙 위원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것이 훨씬 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광고법은 계속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주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광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여쭙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제가 2004년 대구U대회 관련 옥외 광고물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국회에서 2년을 연장해 주었던군요. 그래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회는 끝났고 대회도 순이익을 남기고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이득을 아직까지도 볼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6년 12월 31일에 모든 특별법을 정지시키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1만 개가 넘는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손봉숙 위원 옥외 광고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옥외 광고물은 일반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사이즈도 다르고, 규격도 다르고, 안정성도 해치고, 있으면 안 될 곳에 있고, 일반법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이 옥외 광고물들은 거의 다 편법 내지는 적법하지 못한 광고물들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더 깊이 주장하느냐 하면 금년 들어서 문화관광부가 간판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공간문화학파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특별법으로 법에 어긋나는 옥외 광고물을 허용하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간판 문화를 정비하는 이런 이중적이고 갈등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을 장관님이 동시에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옥외 광고물은 지자체와 행정자치부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손봉숙 위원 이 특별법은 모든 국제 관련 체육 진흥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문화관광부 소관인 것을……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간판 문화 개선과 광고물에 대해서 방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손봉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특별법을 문화관광부가 아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그만 종료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길만이 간판 문화를 정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각종 지자체에서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경우 앞으로는……

○손봉숙 위원 국제 대회는 주로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하고 옥외간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손봉숙 위원 제 시간이 5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지역신문 지원 대상 선정에 굉장히 논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그 잡음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 봤더니 일간지와 주간지의 배점 비율과 배점 항목을 다 달리 했더군요. 저로서는 왜 주간지와 일간지에 그러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기 힘든데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을 한 다음에 장관님께서 서류 없이 구두로 면담하고 전화로 재심

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장관님에게 어떤 한 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 놓은 것을 재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으신지 여쭙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선 구체적인 배점 비율은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점 비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주간신문에 대해서도 별로 이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지역신문 5개에 대해서는 영남이 세 곳 그리고……

○손봉숙 위원 그게 지역신문발전위원회하고 문광부의 차이인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편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1차 심사에서는 17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5개로 했기 때문에 저도 혼란스럽고 해서 또 지역의 여론을 감안하고 지역 언론의 균형발전도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김태진 위원장에게 지역적으로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지역을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인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그다음에 방송광고 TF팀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위원 몇 분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는 데 해당 부처의 의견을 적절하게 잘 듣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기관이 문광부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부는 도달했지만 미치지 못하는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7개 기관 중에 7개 기관만 2%를 넘었습니다. 아무리 요청해도 자료를 주지 않는 곳이 많은데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수상품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외주 전문 채널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된 문광부 TF팀은 당초 두 차례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비 75억, 제작비 1432억 원이 소요되는 새로운 외주 전문 채널 설립을 검토해 왔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병국 위원 그러나 지난 6월 4차 회의 때부터는 문광부의 경인지역 방송 활용 방안 자료를 통해서 독자적 주식회사 설립,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연계한다든가 또는 경인방송 법인과 연계를 한다든가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주비위와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서 논의하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특히 경인방송 참여 사업자에 방송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문예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컨소시엄이나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7차 회의까지 논의를 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대강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외 방송권역 확대라든가 또는 심사 기준에 주요 주주의 공익성이라는 항목을 둬으로써 공공기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대부분 지난 7일 방송위가 발표한 경인방송 허가 추천 기본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대강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부가 콘텐츠진흥원이나 영진위, 영상진흥원, 문예진흥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인방송 사업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국영방송을 설립해서 직접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차 회의 자료를 보면 경인방송에 문광부 산하 기관이 컨소시엄 또는 주주로 참여할 경우 사업자 심사 기준에 외주 편성 비율, 외주 계약 방향 등을 포함하고 높은 배점을 부여해서 외주 전문 채널 특성을 가지도록 함이라고 밝힘으로써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는 문광부의 7차 회의에서 방송위는 사업자 선정 후에도 외주 계획이나 재허가 심사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유도

하라는 것, 사업자 선정 이후까지도 경영과 편성에 지속적으로 간섭하라는 것인데 사업자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편법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광부가 방송위에 보낸 공문서를 보면 외주 제작 비율 관련 법정 비율 초과 사업자에 가산점 부여를 하라는 등 초법적 심사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까지 문광부에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장관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먼저 출자를 지적하셨는데요……

○정병국 위원 일단은 제가 마지막에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가 사업자 선정시 우리 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관련한 외주 채널 설립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정책 목표를 참조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 방송위원회 감사 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까마는 문광부가 새 경인방송사업자에 자본 출자를 하고 방송위는 외주 채널 비율이나 공공성 기준을 높여서 정부가 출자한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자 특혜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TF팀 회의에서는 경인방송 직원의 고용을 승계해서는 외주 전문 채널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서 대신 독립 제작자를 설립하고 4, 5년 정도 우선 계약권을 준다고 제시함으로써 노조원들에 대한 회유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또 문광부는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외주 비율의 지속적 확대 방안으로 행정지도나 허가조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권 침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인방송을 외주 전문 채널화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의 외주 전문 채널 구성 계획을 마무리할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최종 결정은 10월까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병국 위원 이것이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것

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도 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당초 목표는 수도권에 있는 지상파 방송국을 설립한다라는, 100% 외주 전문 채널을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이 문제는 방송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는 한계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국 위원 상임위 때도 매번 지적을 했습시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또 다시 외주 전문 채널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국영방송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보면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2004년도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약 44조 2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은 앞으로 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산업 지원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부처 간 이기주의와 주요 분야별 중복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지적했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디지털콘텐츠 식별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 그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국 위원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이견 조율을 합의해 놓고 아직까지도 조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2004년 10월에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업무 협력 합의를 체결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도 지난 게임 기술 개발에 이어 최근 디지털콘텐츠 식별 체계 도입을 따로 진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은 양쪽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미 진행이 한참 되고 난 후에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협의를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 10월에 MOU를 체결한……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정병국 위원 됐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지적을 했고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문제점은 문화산업 중복 투자 문제입니다.

이렇게 부처 간에 업무 협정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중복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극장용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지원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상업용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각 기관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정병국 위원 현재의 체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총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그다음에 문화산업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 보니 문화산업을 지원해야 할 조직의 분야별 지원이 매우 부실합니다.

먼저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이월되거나 또는 게임산업개발원의 경우에도 게임 개발 완성 소요 경비가 적게는 0.8%에서 많게는 21.5% 정도에 그쳐서 실질적인 게임 개발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게임 지원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지원이 아니라 소액 다건 위주로 계속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소액 다건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도 많은 업체들에……

○정병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작품이 제대로 잘 안 나오잖아요?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애니메이션 지원 부분 등이 미흡한 것은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빠른 결과물을 요구함으로써 단기간 성과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부처 간 중복·분산되어 있는 문화산업 지원 체계와 예산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산업 현장과 밀착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WTO나 DDA 등 협상 대비 민간 중심의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단기적인 실적주의가 아니라 장기적 효과에 집중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각 부처 및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산업 지원 조직을 민간 중심의 문화산업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합니다.

문화산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역할로서는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분야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상은 국내 문화산업의 정책을 심의하고 사업 추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재원은 현재 국고와 기금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재원으로 삼고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조직 구성은 기존의 장르 중심의 산하 기관에서 수행했던 역할은 장르별 본부에서 수행하고 장르 간 공동 협력 사안은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러한 정책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손봉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이거 나눠 먹기 식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해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재심의를 요청하는 법적 근

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재심의를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안 받아 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장관이 한 것이 압력은 아니라는 견해를 성명으로 밝혔습니다.

○정병국 위원 결국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 합니다.

먼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관의 재심 요구는 평가 및 심의에 있어서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운영 세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물론 장관께서는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둘째, 장관께서는 선정 결과가 지역균형발전에도 모한다는 법 취지에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본법의 근본 취지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이지 지역 간 나눠먹기식은 아닙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셋째, 2010년까지 매년 250억 원의 국고를 출연할 계획인데 사업별 지원예정을 보면 신문사별 최고 지원액 그리고 1건당 지원 최고액만을 규정해서 기금이 방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위원 가운데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일간신문 20개, 주간신문 50개 정도를 선정할 것이라라고 먼저 규정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원기준과 심사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눠먹기식 행태를 보여주는 일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균형 있게 그야말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게끔 규정을 다시 만드시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 관광수지 적자가 7월까지 이미 35억 불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38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2003년, 2004년 국정감사에서 매년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나라 관광공사의 관광홍보예산이 경쟁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공사의 2005년도 관광홍보예산은 277억 원인데 비해 싱가포르 관광공사 2004년도 예산은 563억 원, 말레이시아 관광공사 2002년도 예산은 668억 원, 태국 관광청 2002년도 예산은 881억 원, 홍콩 2004년도 472억 원, 대만 2003년도 1588억 원입니다. 이러한 나라들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국내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여러 군데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목표연도에 비해 평균 54%에 그치는 낮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관광공사의 관광지 개발은 여기저기 벌여만 났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전남 해남관광단지 개발은 1991년 시작돼서 2004년도에 완공되어야 되는데 시기를 2011년으로 변경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현재 민간 투자는 70%인데 0원도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세 군데 지정됐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보면 전남 해남관광단지 옆에다 해남·영암 관광개발형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가 화원단지이고 여기가 신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7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30%도 진척이 안 돼 있는데……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65% 진척돼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65%는 민간 투자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도 여기에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무계획적으로 됐다고 보는 것은 이미 여기가 진행이 됐으면 여기를 같이 포함해서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물론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기업도시특별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특별법에 보면 세금감면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기금 및 예산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특별법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정병국 위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데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원단지는, 기 개발되고 있던 데는 그런 특혜가 없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곳은 더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정부나 관광공사에서 투입된 것이 무용지물로 돌아갈 수 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관광단지인데 일방적으로…… 민간 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네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외래 관광 홍보 예산을 현실화해야 되고 또 현재 일률적으로 국고 지원하는 것을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봐 가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광레저용 기업도시 뿐만 아니라 지금 기 개발되고 있는 곳에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광레저용 기업도시 개발 방식은 그 대상 지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장애인 체육 업무가 10월부터 문광부로 이관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3000억 들여서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지으려고 하는 거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노웅래 위원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대규모 공연장을 짓는다면 당연히 문화

정책의 주무부처와 상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대형 공연장 건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덜렁 부지만 매입해 버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타당성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부지 매입하고 건축가 선정도 강행하고 또 노들섬 옹벽 철거 공사를 위한 예산 29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놓고 또 이런 대규모 공연장을 지을 때는 국제 공모를 통해 건축가를 선정하는 게 상례인데 임의로 수의 계약해서 변칙적으로 건축가를 선정했는데 이게 서울시민의 문화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의도 때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공연장, 오페라 공연장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서울에만도 대형 공연장이 6곳, 경기도까지 합하면 12곳이 있고요. 유료 관객 점유율 이게 4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는 횟수가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연간 0.13이에요.

이 정도라면 지금 공연장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이런 대규모 공연장을, 더구나 우리 민족의 젖줄인 우리 한강에 우리 역사의 한강, 우리 문화의 한강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세운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입지 조건도 이게 부적절합니다. 소음, 교통, 접근로 불편, 침수 위험이 다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이 패널에 나오는 것처럼 이 큰 중지도, 이 노들섬이 장마철이 돼서 물이 차면 57%가 잠기는데 여기다 어떻게 이 큰 대형 공연장을 짓겠다는 건지 납득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위에 한강대교가 지나가는데 이 소음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때 공연 시간이 7시대 저녁 시간일 텐데 그 시간이면 가장 교통체증이 심할 때인데 이런 입지 조건에서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대형 공연장을 짓겠다는 건지 납득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 대형 공연장을 무모하고 변

칙적으로 이렇게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 장이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서 문화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일단 서울시의 사업인 오페라하우스 건축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나가겠습니다.

현재 오페라 제작 편수 또 관람 인구 또 노들섬의 입지적 조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이 한강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아마 협의하는,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도 그쪽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까지 협의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직은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런 대규모 공연장이라면 당연히 협의를 하든지 사전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공연장보다는 중소 규모의 공연장이 지역 지역에 더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조사 결과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이런 공연장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정말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연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봅니다.

정수장학회 건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당초에 알고 있기에는 경향신문 강탈 사건 그때 당시의 사장이었던 이준구 사장의 부인인 홍연수 여사가 오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언론사가 강탈당한 사건,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 불참한다고 하니까 참 유감스럽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향신문,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언론사를 뺀 것처럼 이 MBC, 부산문화

방송, 부산일보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주를 구속시키고 그리고 풀어준다는 조건으로 이 언론사를 빼앗아서 만들고 탄생한 것이 바로 박정희 '정'자, 육영수 '수'자 정수장학회 이게 탄생한 건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야당 대표라는 분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와서 한단 얘기가 '정수장학회, 강탈된 것 아니다 이미 환원됐고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공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확실히 가려지도록, 이것은 박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광부가 사업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 아시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노웅래 위원 이 관광복권이 2002년 3월부터 외국인 전용으로 발매됐는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일단 판매 중단 상태인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노웅래 위원 복권 판매액이 지금 한 340억인데 이 가운데 당첨금이 190억입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내국인이 샀고 당첨금도 대부분 내국인한테 불법 지급이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고액 당첨자 중에 45%가 두 번 이상 중복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어떤 한 사람의 경우 17만분의 1 확률인 2등 복권에 일주일에 네 번 당첨된 사람이 있고 이틀에 세 번 당첨된 사람이 있고 3개월에 다섯 번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게 17만분의 1 확률인데 이렇게 자주 당첨이 된다는 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복권 발행과 당첨금 지급하는 이 코로또라는 회사, 이 회사가 어떤 수법을 썼나 하면 외국인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국인이 복권을 사고 당첨금 받으면 외국인 여권으로 해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주고 당첨금 부당 지급하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첨금 지급 업무는 국민은행이 하도록

문광부가 승인했는데 복권 발행 2개월 후부터 코로또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당첨금을 그냥 지급했습니다. 기타 여기 중간에 위탁한 관광협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복권은 외국인 전용 복권이기 때문에 외국어로만 발매가 되어야 되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발매되어야 되는데 한국어로도 엄연히 발매돼서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 관리 감독 제대로 하는 책임, 책임 물으셔야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물론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게 있었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복권에 일본말, 영어 이런 걸 전부 섞어서 했던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금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권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설이나 관광호텔 등 외국인이 자주 찾는 곳을 중심으로 발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복권의 운영자의 작동을 돕는다는 이유로 한국어 화면이 추가되었으나 관광복권 개선T/F에서는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예,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에이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음반 등 우리 연예산업 이것은 우리 한류열풍을 만들어 낸 아주 효자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관광부에 연예산업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직접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우리가 문광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담당 분야가 없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연예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톱스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연예기획사의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연예 권력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우리가 흔히 우리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노예 계약이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한 명의 스타를 섭외하려면 끼워팔기식으로 해서 같은 소속사 연예인들을 억지로 써야 하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연예산업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외국처럼 공인에이전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게 지금 민간 자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지금의 추세로 봐서 정부에서 그러한 연예담당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것은 좀더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외국에서 이런 제도 도입해서 운영하시는 건 아시죠? 얘기는 들으셨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좀더 살펴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반드시 규제 완화의 문제 또 연예산업은 우리가 총괄은 없지만 게임, 음악, 영화 이런 쪽은 관련 부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서들도 전부 규제나 간섭은 저희들이 일체 없습니다. 지원하는 기능뿐이지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한류 톱스타들을 한류 행사에 초대하려고 그래도 엄청난 고액을 요구하는, 그 에이전시 때문에……

어떤 스타를 대만에 잠깐 좀 가 주라는데 5억을 달라 해서 손을 들고 해서 저희들에게 호소를 해 옵니다. 그런데 그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한류 스타를 끼고 있는 그 기획사들에게 깎아라 말아라 했다간 또 저희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잡음이 안 나고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래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이런 것같이 국가 자격을 부여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관련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레저스포츠는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3면에 바다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해양 레저스포츠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쿠버다이빙만 보면 국내 동호인이 한 2만 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에 나가서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는데 이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가 절대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트의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한 크루저급 요트나 파워보트는 정박할 계류장 이런 게 사실상 없는 상태고요. 스쿠버다이빙은 상태가 더 나쁜 상태고요. 그래서 이 해양 레저스포츠는 우리 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프라와 다양한 서비스가 절대 부족한 상태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부가 얼마 전에 2010년 문화강국 전략인 'C-Korea 2010'을 발표할 때 보면 이 레저스포츠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해양 레저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 제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상레저스포츠는 안전법상에 해양경찰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주로 규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서는 해양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에서는 레저스포츠진흥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따라서 해양 레저스포츠를 적극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웅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아시아문화산업재단 거기에 지난번 사무처장을 선임할 때 정관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장관의 허가가 난 이후에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날 회의의 참석자들도 보면 참석 안 한 사람을 한 것으로 이렇게 거짓 기록을 남긴 것, 이런 점들로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이제 문제가 된 뒤에 파악했습니다만 제가 신현택 이사장님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김양래 사무처장 임명과 관

련한 그 즈음에 당시에 연말이어서 이사들을 면담하거나 또는 유선상으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일이 만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또 회의록을 만든 것은 행정 미숙에 의한 잘못된 것이 인정되나 민법 제38조 공익을 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 이후에 법적인 하자가 치유가 다 됐나요? 말하자면 장관님이 허가를 한 이후에 그 전에 했던 각종 자금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에 서명을 자격 없는, 즉 무효인 처장이 한 서명들에 대해서 법적인 치유가 다 됐다고 보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추인을 했기 때문에.....

○김충환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충환 위원 저는 한류를 지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문재단의 역할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내용이 대단히 법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있고, 그 행위가 무효인 이런 행위들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양래 처장과 장관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는 제가 아문재단에 추진을 했습니다. 김양래 처장 전에도 제가 몇 분을 추천을 했는데 본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상 또 고사를 해서 제가 세 번째로 김양래 처장을 추천하였는데요. 김양래 처장은 평화방송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슨 교분이 있다기보다도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 사람의 지금까지 성과를 봤을 때 능력이 기대한 만큼 잘 되고 있다고 보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지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신현택 이사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충환 위원 지금과 같은 법적인 문제 또 앞으로 성과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충환 위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특정 씨클, 말하자면 바른지역언론연대라고 하는 쪽에서 총 37개 중에 20개 사를 독점을 한 일, 그리고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주로 충청도 대전에 모여 있다고 하는 일, 그래서 결국 신청자의 91%가 충청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점은 대단히 불공평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시정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시정하라는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배점이나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간지 5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고르게 지역이 배분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든지 평점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가 받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없고, 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받아 볼 수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금 언론재단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 기금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기금이 정당하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결정대로 집행됐는가 하는 것만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선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형평성의 문제, 평등성의 문제, 또 내용에 불법 행위도 개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섭이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까마는 제가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고 발전위원회에서도 제 의견을 묵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견을 교

환할 수 있다고 봅시다마는 가령 어느 신문사를 선정하게 하라 이런 것은 부당하지만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충환 위원** 이런 경우는 바른지역언론연대, 이름이 바른지역언론인데 누가 보든지 형평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일을 한 것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금을 쓰는 목표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충환 위원**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대학 명칭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법은 지금 고등교육법 제59조를 고치는 방법과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의 입법발의안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김충환 위원** 최근에 고객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문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11개 기관 중에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하나만 상위로 평가가 되어 있고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2개 기관이 중상위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8개 기관이 중하위 이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 보면 그 중에 1위를 한 게임산업개발원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32%를 줬는데 중하위를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200%, 한국방송광고공사 127%, 한국체육산업개발 100%, 이렇게 해서 결국 고객만족도 또는 경영실적 평가와는 맞지 않는 이러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우선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 경고 조치와 함께 개선 대책을 제출받고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과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김충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

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불법 행위,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에 속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또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복권을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아주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또가 부도 직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도 직전에 이르도록 그것을 감독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있었는가, 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복권사업자가 사업 추진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밝히고 있어서 동 사업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이런 일들은 사실 국민으로 하여금 큰 실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광부 소관 예산 지원 단체 사후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문재단의 경우 5명이 중국 상해와 북경 출장을 갔는데 4박 5일에 1인당 390만 원씩 썼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경우는 해외 출장비로 어린이 옷, 양주, 고급차기세트, 여자 화장품 이런 것을 구매하고 그 출장비 정산 영수증을 문광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소설가협회는 스토리뱅크 사업으로 18억 원 중에서 7억 원을 횡령을 해서 4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광부에 제출된 증빙 영수증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두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출장비 과다 집행에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문재단에 대해서는 부당 집행 여부가 밝혀질 것입니다. 향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문제된 사용 내역에 대해서 반납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정산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한국예총회관이 당초에는 자체 모금 30억 15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8300만 원밖에 부담을 하지 못했고 지금 문광부가 50억을 회수하고도 170억 원이 지원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총이 자구 노력을 하고, 예총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의지와 그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회수한 50억 원을 다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총 쪽에 밝혀 놓았습니다.

○김충환 위원 사전에 예총이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것이 92년도부터 진행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장기화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까지나 이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일단 50억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예총이 자구 노력을 하고 예총 스스로 회관의 건립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예총회관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문화관광부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이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회계법 제162조에 보면 소속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가 이것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 관련 주요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구성원들이 현재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지금 외부 인사는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한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것은 대개 드라마, 영화 이런 쪽으로 한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일본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한류의 근본적인 동력은 한국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영화, 영상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인데 지금 이 한류와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씨애틀에 있는 셋별문화원, 여기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마는 미국의 입양인들 또 미국의 2세, 3세 자녀들, 현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단체이고, 스페인에 있는 뉴밀레니엄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KBS에서도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스페인 사람들이 합창단을 구성해 가지고 한국의 민요와 또 한국 음악을 유럽에서 연주하는 단체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합창단이나 우리나라 공연단이 외국에 갔다 오는 것은 의례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지인들이 현지인들의 목소리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은 일부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부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조금 불씨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우리 문화산업국장이 그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육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두 단체를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일선에 가보면 통합하기 어려운, 대한생활체육협의회의 특별한 영역이, 또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단체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공조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광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선진국의 사례도 그렇거니와 통합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 쪽에서 양단체 통합에 대한 혁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의 여러 모델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마는 통합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예총회관에 대해서 50억을 회수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 김재홍 위원입니다.

문광부의 정동채 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오욕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이 각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별로 나눠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과 관련한 과거사 청산 작업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진실위원회 그리고 국방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언론 탄압과 관련된 과거사 청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부독재를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정부 내에서 언론에 관련된 주무부처는 문광부입니다. 언론 정책을 다루는 대표적인 정부 부처인 문광부가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언론 탄압과 관련된 규명 작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든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보안사가 당시에 통폐합을 주도하고 자료들이 저희 부에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 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김재홍 위원** 잘 알고 있고요.

국정원의 진실위원회는 민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식 있는 학자,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같은 데에는 언론의 주무부처인 문광부가 참여해서 정부 부처가 합동 조사를 하거나 합동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요청이 있으면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국방부 당국과 정부 부처 내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정규멤버인 국무위원이십니다. 언론 탄압과 관련된 과거사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역

할을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재홍 위원 국정원의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지난 7월 22일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난 9월 5일 80년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점은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재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당의 정청래 위원님과 노웅래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부연 설명하는 입장에서라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정수장학회, 부일장학회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로 yesterday는 우리 당의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위한 의원 모임 28명의 의원이 기자 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의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우리 당의 조사단 활동의 결론이 일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의원들의 활동입니다.

국정원 진실위원회는 일반 자료나 자기 기관이 보유한 자료 또 타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다 통합해서 646건, 8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김지태 씨의 유족, 전 중앙정보부 임원, 5·16장학회나 정수장학회 관계자 등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집중 면담하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의 지시였는지 여부 또 김지태 씨의 재산 헌납과 그 후에 5·16장학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해서 부산일보, 한국 문화방송 그리고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 씨를 구속한 뒤에 처벌을 면죄해 주는 조건으로 그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만 147평을 헌납 받았다, 이것은 자진 헌납이었습니까?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정원의 조사 발표를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자진 헌납은 아닌 것으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기가 된 수사를 직접 담당·지휘했고 헌납된 재산 중에서 특히 토지의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것은 물론이고 정권의 언론 장악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앞장선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의 언론 장악 의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5·16 쿠데타 세력이 정권 장악, 언론 장악, 국민 여론 장악을 위해서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진실위원회는 부일장학회,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 한국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서 헌납 또는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의견을 어떻게 실천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까? 그냥 의견 제시로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정수장학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것이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한 견해를 피력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위원 그러면 정부 기관인 국정원에 설치된 진실위원회에 대해서 특정한 기관으로 치부해 버리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제가 국정원의 발표는 발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법적 쟁송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예상이나 향후 대책 같은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재홍 위원 쟁송은 쟁송인데 민사소송도 있을 것이고 행정소송도 있을 것이고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정부 부처인 문광부가, 언론사의 주무부처인 문광부가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수장학회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의 조사 결과 발표를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데 대해서 견해를 이런 공식적인 국정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재홍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뒤에 한국 문화방송 MBC 노조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또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 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정수장학회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 또 정수장학회 재단 임원진이 총 사퇴하고 공익적인 인사로 재구성해서 다시 출범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 물어보면 같은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마는 정부 기관인 국정원의 민관 합동 조사에서 낸 결론을, 또 해당 언론사 노조와 유력한 시민단체의 결론이 실천될 수 있도록 문광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정수장학회가 MBC에 소유 지분을 헌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부산일보를 부산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C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익재단으로 출발할 때까지는 장학회 자산의 사회 환원에 MBC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광부의 입장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지금까지 문광부는, 특히 정 장관은 80년 언론인 강제해직 문제에 대해서도 문광부에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거사 규명에 대해서는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무장관이 되어서 그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하나마 정부 부처 내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주무부처답게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문광부는 당시 언론 탄압의 주무부서였던 문공부의 후신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공부의 후신은 아닙니다. 이미 문화부와 공보부가 분리되고 이어령 장관 때부터는 문화부로서 다시 재탄생했고 또 체육 관광이……

○**김재홍 위원** 통폐합됐다가 갈라지고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마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언론 통폐합

을 일으켰던 공보 라인은 우리 부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재홍 위원** 예를 들면 전두환·노태우 그룹의 신군부 집권 이후에 언론 탄압의 도구로 제정된 언론기본법 역시 당시 문공부의 소관 법률이었지요. 여기에 청와대 허문도 비서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박용상 판사가 관여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박용상 판사가 여야 의원이 합의해서 만드는 새 신문법에 대해서, 보수언론 조선일보의 위헌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위 언론 개혁에 반대하는 논리의 첨병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과 긴급성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음으로 방송통신 융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감에 앞서서 정책자료집 ‘열린 뉴미디어 방송통신 정책이 IT강국이다’라는 자료집을 냈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 8월 문광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3회 연속 토론회를 거친 결과 만들어진 자료집입니다. 거기에 바탕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문광부의 방·통 융합에 대한 입장은 방·통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은 문화관광부가 맡고 새로이 만들어질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만을 맡아야 된다는 기능 분리 주장을 해 왔지요. 지금도 그런 입장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은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구조개편위원회가 출범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업무 획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어떤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홍 위원** 이것은 수년 전에 문광부가 발표한 입장입니다. 물론 정 장관 취임 이후 구체적인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마는 저는 방송통신정책을 융합하는데 지원과 규제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융합은 융합입니다. 기능도 융합입니다. 그래서 지원행정과 규제행정을 함께 해야 우리가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제는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위원회대로, 정

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대로, 우리 부는 우리 부대로 처한 입장이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방송 업무는 문화관광부가 관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영상산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지원과 규제는 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다른 쪽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홍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송영상산업 진흥도 문제 있는데요, 앞으로 방·통구조개편위원회가 발족되면 일반적인 문화산업은 물론 문광부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과 관련된 영상 진흥, 콘텐츠 진흥, 방·통융합 정책 이런 것은 전부 다 방·통융합 기구에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92조에도 방송영상진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방송의 규제나 심의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방송위원회가 하되 방송영상산업은 저희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 또 방송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위원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방·통융합 개편을 하려면 관련 법들을 많이 제·개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불합리한 방송법 규정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데 그것을 두고 학계나 시민단체 인사들이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과 규제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문화부는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과 함께 콘텐츠 진흥과 지원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위원 1분만 더 쓰게 해 주십시오.

토론할 시간은 안 됩니다마는 미국의 FCC인 연방통신위원회는 지원과 규제가 나뉘어 있습니다, 융합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통합되어 있지요.

○김재홍 위원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지원행정이나 규제행정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정부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앞으로 통합위원회가 구성되면 계속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재홍 위원 계속 토론할 시간 여유가 안 되어서 유감입니다마는 한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류정책 관련해서도 과연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되는 것인지, 합동 대처가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불법 복제가 판쳐도 문광부 혼자 대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외교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산자부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내에 한류정책 조정 전담기구를 발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무부서는 문광부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한류지원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정책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송언론의 특성상 지원과 규제가 일원화되어 있었을 때 반드시 탄압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때 분리했습니다. 지원하고 규제하는 것을 쥐고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 문화공보부 시절에 탄압시비가 있었고 언론에 대한 간섭과 규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저희 부의 공식 견해입니다.

○김재홍 위원 그래서 민간 기구로서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규제 정책을 갖고 그 대신 정부가 지원과 진흥 정책만 담당하는 것인데 너무 기능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정책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강하지요. 지금 방송위원회의 불만이 그런 것이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1분 완전히 더 쓰셨으니까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김재홍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세 위원 먼저 뉴미디어시대 매체 난개발 문제와 함께 콘텐츠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부는 콘텐츠 정책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콘텐츠

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끼워넣기식의 정책으로 사업이 마련되어 있음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정책 내용도 보면 다분히 비상업적이고 공공적인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도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솔직하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콘텐츠 지원책에 있어서 공공성의 고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상세하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국감에 홍석현 현 주미대사인 전 중앙일보 사장을 X파일과 관련하여 그리고 언론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반드시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X파일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도 언론 개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9월 2일자로 신설된 서울제6 중재부 언론중재위원으로 한부환 전 법무부차관을 위촉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지난 8월 19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에서 X파일에 나와 있는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당시 법무부차관이었던 김상희 차관은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노회찬 의원이 8월 19일 발표한 떡값검사 중 한 사람인 한부환 전 차관을 명단이 발표된 이후 채 보름도 안 된 9월 2일에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잘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분을 천거했기 때문에 위촉했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런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X파일 건으로 온 국민들을 우롱하고 분노에 차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 된다고 하는 마당에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 중의 한 부분이 바로 X파일로 인한 내용 공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뻔히 아시면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의해서 이분이 결격 사유는 없고 또 이분이 그것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을 의뢰했는데……

○천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이나 특검법에 의해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해촉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세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확인이 되면 그러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저는 향후에 밝혀지기 이전에 이분을 위촉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언론중재위원이 어떤 겁니까?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마는……

○천영세 위원 다음은 신문유통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7월 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신문유통원은 정부에서 돈을 투자하는 만큼 참여하는 신문사들도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 도입을 언급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매칭펀드 방식을 거론하셨다는 것은 결국 설립 단계에서부터 자금력이 있는 메이저 신문사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아니면 전제하고 언급을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매칭펀드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과 참여하는 언론사들이……

○천영세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문법에 따른 신문유통원 설립 초기 단계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메이저 신문사의 초기 참여는 절대로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을 지금 잘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천영세 위원 왜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유통원 설립에 메이저 신문사들을 배제한다는 원칙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참여하게 될지……

○천영세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메이저 신문사들이 신문유통원 설립 단계부터 참여했을 경우 마이너 신문들이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이렇게 되면 현재의 신문 유통 체제를 답습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결국 그러한 문

제를 제거하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문유통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게 언론 관련 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미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신문유통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오비이락인지 중앙일보 판매국장을 지냈고 중앙일보사가 100% 보유하고 있는 광고전단회사 제일피알의 상무인 이병석 상무를 선임하고 또 설립준비팀에는 동아일보의 계열사인 동아전단 배성룡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 이 부분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여러 번 저도 규탄 받았습시다만 준비위원회입니다. 준비위원회에 유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만 여기에 무슨 메이저 신문에 근무했던 분은 안 된다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신문유통원의 구성이 메이저 신문이 주축이 되고 마이너 신문들이 종속되는, 현재의 배달조직과 유사하게 되는 것을 장관께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 않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신문유통원은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신문사들의 애로를 개선해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만큼 유통원이 메이저 신문사들의 독차지가 될 게 없습니다.

○천영세 위원 질의 요지는 현재의 그런 체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메이저에 의해서……

○천영세 위원 메이저가 중심이 되고 마이너들이 종속되는 그런 배달체계가, 신문유통원이 그런 구조나 구성으로 설립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설립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들이 처음부터 신문유통원에 참여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메이저 신

문사들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메이저 신문사들이 참여한다고……

○천영세 위원 뒤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요. 이미 체계나 구조가 갖추어진 뒤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데 메이저 신문들 중심으로 주도했을 경우 여러 가지 질곡으로 난맥상을 겪고 있는 현재의 배달체제와 같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려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유통원은 유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지요.

○천영세 위원 장관님, 다른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사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메이저 신문사가 참여한다고 해서……

○천영세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을 어떻게 보니까? 시기도 상관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유통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유통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설립은 안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대강 11월쯤에……

○천영세 위원 현재 주무부서인 문광부에서 다 주선해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기는 하지만 유통원 설립과 유통원 운영에 대한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지금 원칙적인 대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영세 위원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정청래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민 앞에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충환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충의 자구 노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다면 환수한 50억을 재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한 부분을 또 수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165억 원 국고지원은 16대 국회 때부터 문화관광위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현안과제입니다.

문광부가 지난 2003년 12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그대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귀부(문화관광부)로서는 예충에 대하여 비리의혹 등이 제기되어 더 이상 예충이 본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 나아가 귀부가 2002년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 실질적으로 예충이 본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예충에 주지시켜 예충으로 하여금 보조금법 24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본건 공사를 문예진흥원에 인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법률검토 의견서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천영세 위원 그러함에도 아까 장관께서는 예충의 자구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예충을 계속 보조사업자로 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까 국민 앞에 사과는 뭐 때문에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이미 정정을 했고요……

○천영세 위원 구체적인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충 총회 자료집에 ‘이제는 담보대출에 대하여 문광부와 긍정적으로 협의하여 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문광부에 확인한 결과 승인한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충에서 부지나 짓다 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 온다면 승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한 시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충이 거대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해 온 직능단체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회도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7년간이나 이렇게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방치하고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예산 허용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미 165억 원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천영세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자구 노력이 있거나……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아까 앞서서 답변드린 것은 정정을 했습니다.

○천영세 위원 사과하셨으면 사과하신 것에 맞게 책임 있는 실천 모습도 같이 갖추셔야지요.

다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정병국 위원과 손봉숙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도시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서 장관으로서 또는 문광부로서의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넘기셨는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가 주무부서입니다. 관광레저도시 관련 기업도시위원회의 안전작성과 설명은 문광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장관께서는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시범사업으로 서남해안, 태안, 무주 이렇게 세 곳이 선정됐는데 사업부지가 총 1700만 평, 투자재원이 14조 원입니다.

본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사업을 좀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 전에 우선 수행하는 것이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천영세 위원 기업도시조성사업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전경련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삼성제철 산하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언오 전무가 지난 4월 20일 문광부에서 주최한 관광레저도시 조성방향 공청회에서 이미 경제자유구역·국제자유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추진 중인 3, 4개 관광레저도시 조성계획은 곤란하다며 전국적인 특구양상은 자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전체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2개 내지 3개 선정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관광레저형만 3개 해서 총 6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위원회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마감일을 4월 15일까지로 정했고 8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과 평가체계를 확정하는 것은 신청이 끝난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원서접수 이후에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식이 돼 버렸습니다. 즉 신청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를 다 인지한 바탕 속에서 평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해남·영암의 경우처럼 10조 원 넘게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시범사업 신청 지역 8곳을 검토평가한 기간은 단 1주일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 5월 18일 기

업도시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성, 친환경성 등 총 5개 항목의 공통평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통기준에 대하여 과락제 40%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총체적인 평균이 나오더라도 40점 이하에는 과락을 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남해안, 해남·영암 시범사업이 친환경분야 평가에서 39.1%로 과락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번복하고 재심의를 거쳐 8월 25일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오비 이락으로 봐야 되겠지만 4월 24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광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낙후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기 바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훈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하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혹여나 장관께서 아까 어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처럼 이걸 특별법으로 다 돌리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이미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에서 모든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광부 부처 내에 있는 기구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장관이 책임지셔야죠. 책임지실 일이 있으시면……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제가 책임집니다.

○천영세 위원 지금 앞에 부분 얘기하신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말씀드리면 4개 이내의 선정계획은 기업도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 내용이나 평가 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보다 신청 지역의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의욕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기업도시위원회 판단으로 6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해남·영암지역이 환경 분야에서 기준미달 점수를 받았으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또 국제 관광지역으로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책 마련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기업도시위원회에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한 후 재심의를 통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도시위원회 결정사항……

○천영세 위원 한 말씀만 더 첨부드리면 8월 25

일자 문광부 공식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살기 좋은 지속·발전적인 기업도시는 친환경, 환경 친화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을, 환경 문제를 부차적으로 자꾸 두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친환경적이어야 됩니다.

○천영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락을 맞았는데……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을 보완하라고 하는 한 달여간의 기일을 준 것입니다.

○천영세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숙 위원 박찬숙입니다.

다른 걸 먼저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천영세 위원님의 관광레저도시에 관한 질의의 후속 질의처럼 빠진 것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평가지원단에서 평가한 결과 3개 지역은 환경분야 평가에서 과락기준 40% 미만에 해당했는데 유독 해남하고 영암지역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평가 대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한 달쯤 뒤에 9페이지 가량의 ‘환경분야 보완대책’이라는 간단한 보고서가 첨부돼서 관광레저형 시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또 하나 기업도시위원회 민간위원 15명이 위촉됐는데 관광레저 분야, 문화 분야 민간위원은 문화부장관이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책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11명의 인사를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간담회까지 개최했는데 이 자문단으로 위촉한 사람 중에서 3명이 일주일 뒤에 기업도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우연으로 보기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또 기업도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엄정한 평가자여야 될 기업도시위원회 민간위원에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신청한 도시의 공동 사업자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인데 전경련은 앞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관광레저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해남·영암지역의 개발 컨소시엄 메인 사업자입니다. 말하자면 선수가 심판 노릇까지 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

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 하나 해남·영암지역의 개발 컨소시엄 주요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시범도시 선정 보름 전이던 6월 18일경 또 두바이의 팜 아일랜드 현장시찰에 같이 동행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주만 선정되고 다른 지역이 재심의를 거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자 기업도시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2개 조로 나뉘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멕시코 칸쿤, 프랑스, 마카오, 오사카 등 세계의 유명 관광지만을 골라서 거액을 들여서 해외시찰을 보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왜? 미리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급히 관광공사에 관광기금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해외시찰을 불과 6일 앞두고 부랴부랴 한 8000만 원의 기금교부 신청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열흘 동안 호화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떠난 것 같은데 출발 전에 회의를 했다거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디 어디를 간 게 아니고 간단회를 가진 것이 출장 다음날 파리에 있는 한 식당이었고 멕시코 칸쿤의 일식당에서 1시간 30분 정도 오찬을 곁들여서 회의한 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수십조 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이런 도시, 이런 것이 사전의 준비, 치밀함, 면밀한 검토 이런 게 없다면…… 도대체 반경 200km 안에 대규모의 관광레저도시 세 곳을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선정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요약되는 일본의 경우 중앙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사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테마파크 추진하고 골프장, 레저단지 이런 것 무리하게 조성하다가 잃어버린 10년의 바로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장관께서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2000년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 명예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이 한 31명인데 그 중에 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소위 물 좋은 곳의 단체장이나 고위 임원으로 퇴직한 고위 관료가 재취업했습니다. 94%나 됩니다.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재취업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퇴직 공무원 30명 중에 63%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후 일주일 이내에 또 퇴직한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산하단체 임원으로 임용됐다는 것, 이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 협력을 하는 데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이것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국장 했던 분을 민간 사기업 골프장 사장으로 임명, 관광과장 했던 분이 관광협회 부회장으로, 그나마 또 하나 다른 점은 실력과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 중앙 박물관 사무국장 했던 사람이 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한국체육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또 중앙도서관 연수과장 하던 사람이 광고회관 건설본부장, 종무실장 하던 사람이 체육진흥공단 감사로 취임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상식적으로 이것 이해되십니까?

잘못된 관행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오게 됩니다. 도덕성과 개혁을 전유물처럼 내세우고 있는 이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못된 관행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산하단체로 진출하는 4급 이상의 여러분들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인력들입니다.

○박찬숙 위원 장관님, 그렇다면 이미 산하 기관에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퇴임한 그날, 바로 그 다음날 취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장관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퇴임하고 바로 간 그런……

○박찬숙 위원 바로 간 게 63%에 해당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게 지금 저희……

○박찬숙 위원 장관께서 답변이 궁하실 것 같으니까 다음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지난 6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장관께 일관성 없는 부실하고 졸속 심사에 따른 게임업소용 상품권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했습니다. 선량한 업주 그리고 그 혼란 동안의 몇 조 원의 피해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랬더니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효 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결과 22개 상품권 모두가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취소하셨습

니다. 그러셨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박찬숙 위원 책임지겠다고 그러셨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셨습니까?

바로 그때 담당 주무국장이 부이사관이었는데 지난 8월에 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것이 책임진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진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그 문제는 허위로 보고한 20 몇 개는 전부 취소하고 이제 새롭게 서울보증보험에……

○박찬숙 위원 아니, 저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어떻게 졌는가를 여쭙보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건 제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박찬숙 위원 장관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시중에 혼란이 일어나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그래서 그것을 전부 조치를 하고 허위 보고한 모든 상품권 발행업소는 전부 취소시키고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그때는 저희 부에서는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정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신 거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공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박찬숙 위원 공정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공정했었고요. 공정했었고 허위 보고를 하면 취소시키겠다고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을 했습니다.

○박찬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위보고에 대한 취소에 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2005년 2월 23일 상품권인증 신청공고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증받은 후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박찬숙 위원 그리고 향후 2년간 인증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상품권 22종이 허위 자료 제출로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인증’이라는 단어를 ‘지정’

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락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9종을 결정했는데 이미 허위 자료로 인증이 취소됐던 상품권이었습니다. 인증을 지정으로 바꾸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기존 고시에 의해서 시행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고시 변경을 통해 개선한 지정제도는……

○박찬숙 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인증으로 취소된 업체가 지정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지정이 됐다면 그 9개 업체를 위해서 인증을 지정으로 바꿨다는 것밖에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상호간에 법적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적 충돌이 없어서 인증제도 규정은 새로운 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박찬숙 위원 그렇다면 지정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인증에서 취소된 업체를 다시 하신 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업체들은 제외하셨어야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게 보증보험의 추천에 의하면 거기에서 확실한……

○박찬숙 위원 좀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부하고 게임산업개발원이 이것의 시장규모를 1조 원으로 말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최소 7조에서 많이 보는 분은 100조까지도 보고 있는데 5000원 권 상품권 1장당 0.1%인 5원을 건넸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30~40억, 2010년에는 한 300억의 수수료가 생기는데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상품권지정제도 운영경비, 유통 관련 전산시스템 이런 데 쓰겠다, 그러면 더 많이 건히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가서 별도로 추후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증을 지정으로 조건해 놓고 이것 한몫 챙기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누가 한몫을 챙기겠다는 겁니까?

○박찬숙 위원 가장 이 제도의 치명적인 건……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누가 한몫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찬숙 위원 예?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누가 한몫을 챙기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박찬숙 위원 무능한 결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대혼란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증을 지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바꾸면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만든 자체 운영규정에서 스스로 상품권 지정기관임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비영리 특수법인에 불과합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을 여기에 쥐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당초에 지정제도 운영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상품권 발행업체 9개 사가 협의회를 지난 9월 1일에 구성하고 상품권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서 건전 게임문화를 조성하고자 게임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저의 질의에 대한 하나하나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2005년 7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 회의록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조준희 위원장이 “그 문제는 간섭하지 말아라, 다른 위원들의 의사를 참작해서 내부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문제이지 절대 간섭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완강하게 얘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임 전에 장관께서 조준희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만났습니다.

○박찬숙 위원 장관께서는 압력성 어떤 제안이나 요구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조준희 위원장님한테 압력을 가할 위치도 아니고요. 그분이 압력을 받을 분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을 뿐입니다.

○박찬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용언 국장, 어디 계시죠?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예.

○박찬숙 위원 일어나 주십시오.

중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운영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라는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제가 했습니다.

○박찬숙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느 조항에 그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운영 규칙이 당시에 새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이전입니다. 7월 31일에……

○박찬숙 위원 언론중재위원회는 뭘 하는 것입니까?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외부 압력에……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시행 이전에는 그 운영 규칙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시행일 이전에……

○박찬숙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모르십니까?

중재위원회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행하고 직무상 어떤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그렇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옳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아닙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가지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 규칙 개정안을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박찬숙 위원 그러면 개정된 언론중재법 어디에도 사전 협의나 승인 같은 절차를 규정한 예가 없는데……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개정법에서는 없습니다. 그 개정 전에는 있었습니다.

○박찬숙 위원 개정 전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예.

○박찬숙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모법을 일탈했다, 위원회의 운영이나 예산에 대해 문화부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는 협의의무조항을 끼워 넣었다가 삭제할 것을 지적당하셨지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삭제가 아니고요. 국고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부와 협의하도록 변경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문구 대신 ‘사무처’로 바꾸셨지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당초에도 사무처였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예.

○박찬숙 위원 ‘위원회’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저희가 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독립성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무처는……

○박찬숙 위원 ‘사무처’로 바꿨는데도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아닙니다. 사무처는 방송발전기금이 되었든지 국고든지 공공자금을 쓰기 때문에 그 예산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근거만 둔 것뿐입니다.

○박찬숙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무처’를 지금 거두어들이셨지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지금 국고 지원과 관련된 부분만 저희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박찬숙 위원 지난 8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에 보낸 공문을 보셨습니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당 위원회가 언론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다루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명시된 바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당 위원회를 귀 부처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예,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다르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알겠습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너무도 큰 것인데요. 이것이 2조 원이 넘고 20년이 넘는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아직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이 없었는데 최근에서야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용역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인가요? 벌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도 없이 2조, 20년이 넘는 것을 한다면……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회의 참석률이 약 50%를 밑돕니다. 또 사업의 실무적 검토를 담당하기 위한 실무위원들도 약 20%에 불과합니다. 15명, 10명 중에 3명이 회의

에 참석합니다. 왜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띠고 있는데 위원회가 걸돌고 참여율이 저조한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 외에는 추가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광주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입법과정을 통해서 전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회 회의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들의 회의 참석은 저조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찬숙 위원 15명 중에 2명, 3명만 참석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들이 매우 바쁜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까닭에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들의 광주 사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의의 안건은 모든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불참위원들도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매주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해서 위원들이 수시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국감 첫날 정확하게 열한 분 위원님이 질의를 마치셨고 제가 끝나면 나머지 열한 분이 남으셨습니다.

제가中间的 반환점에 서 있는데 비디오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는 머리로는 아니라 가슴으로 봐 주십시오. 앞으로 한 달여 후에 개관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미리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휠체어장애인들이 십여 분들과 함께 가서 박물관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얼마만큼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약 3분 정도 소요되는 비디오입니다.

(16시09분 비디오 상영개시)

(16시13분 비디오 상영종료)

비록 짧은 시간에 비디오를 보셨지만 여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함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침성대를 확인을 하는데 그곳이 장애인어린이를 위한 문화체험교육관이라는 곳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아동들을 위한 문화체험관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다른 국립박물관으로, 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이 프로그램을 공유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한마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민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휠체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저상버스가 없이는 박물관에 접근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에 간다 하면 남부터미널 앞에서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휠체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있는지 장관님 아시나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체험을 하면서 일반인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일단 국립 문화시설에 한 대 정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떠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소외 계층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예산들이 저는 더 증액되는 것이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6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보니까 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복권기금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복권기금으로 할 경우에 불안정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혹시 장애인 문화예술교

육정책의 후퇴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사회교육 프로그램 25건, 예술치유 프로그램 2건, 관련 연구개발 5건 등 다양한 연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다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대책 전반을 포괄하는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마무리되는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대책을 꼭 세우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 중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이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서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계획, 즉 말하자면 청각장애인에게 미술을 지도하는 방식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주목하셔서 포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민병두 위원님이 남들 할 때는 긴 것 같은데 내가 할 때는 짧다고……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보신 것은 우리가 오프상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의 문제인데 사이트상에서의 웹 접근성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2003년 11월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고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정부 각 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들이 웹 접근성을 상당히 고려를 한 홈페이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에서 문화관광부 홈페이지하고 산하 기관 32개 홈페이지를 죽 웹 접근성이 어떤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부 홈페이지가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나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안민석 위원** 저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문광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문화부가 큰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 가장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를 올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홈페이지 담당자 200여 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문화관광부나 산하 기관 직원들이 현재까지 교육을 받은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문광부나 산하 기관이 관련 교육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하 기관하고 단체별로 교육받은 실적을 6개월 정도 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안민석 위원** 그리고 이번 국감과 관련해서 증인 신청 중에 축구협회에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축구협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풀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작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그것을 떳떳하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의연한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밀하게 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주위의 동료위원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법인화가 안 된 단체다, 법인화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1년에 250억에서 어떤 때는 350억까지 쓰는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축구협회가 아직까지 법인화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반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뭐를 했나, 과연 정부에서는 축구협회가 법인화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축구협회가 법인화를 하도록 노력을 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간접적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금년 중에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법인으로 등록되면 매년 사업계획, 예산 이런 것을 저희 부에 보고해야 하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동안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축구협회에게 법인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구두나 실무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쭉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중으로 법인화를 하기로……

○**안민석 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언제부터 유도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배 차관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장관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올해 축구협회가 법인화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축구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올해 하고 싶었는데 아마 정부 쪽의 사정 때문에 올해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체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올해 기금으로 법인화 지원 예산이 10억씩 두 군데가 되어 있어서 이미 올해 소프트볼하고 농구가 신청을 해서 법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바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장관님께서서는 올해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신청은 올해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프트볼하고 농구 2개 단체만 승인을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쪽의 사정 때문에 올해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예, 재정이 열악한 단체 그러면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소프트볼이나 핸드볼 같은 단체를 먼저 법인화하고, 법인화를 하면 한 단체에 10억씩 들어가야……

○**안민석 위원** 그러면 돈 10억 때문에 축구협회 법인화를 유보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니, 아까 체육국장 답변대로 재정자립이 열악한 그리고 비인기종목의 단체를 먼저 법인화하고 축구협회는 방금 국장 말대로 연차적으로……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단체 할 때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10분 정도 정회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 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활동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처음과 끝이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장관께서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하겠다고 하셨지만 상당히 외교적 발언으로 들려서……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에 관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광부 내에서 비공개해야 될 자료이고 공개해야 할 자료이고를 분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보였던 소극적인 자세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과학적인 여론조사 기법을 이용해서 100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정

부의 언론방송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63.9%, 잘한다는 여론이 32.9%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언론 개혁에 관해서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2%, 언론사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41.2%, 국회나 시민단체가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 47.7%로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부의 언론정책, 또는 언론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있어서 불안과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겨레신문이 갖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장관님께서 공교롭게도 이번에 한겨레신문 제2창간위원회에 꼭 들어가셔야 될 분인데 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무런 이유도 없고 제의도 없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박형준 위원** 한겨레신문 출신이신 장관님께서 상당히 판단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제2창간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테 국가공직에 있는 분들이 대거 한 신문사의 제2창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떻게든 간에 또 과거의 관계가 어떻게든 간에 국민들로 하여금 특정 신문사와 권력이 결합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1000만 원 기탁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이유도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데 대한 부담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특히 지금 주요일간지 적자상황을 보면 약 2조 887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년 후년에 이르기까지 제2창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문사들이 부지기수로 생길 텐데 이럴 때마다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제2창간위원으로 참여해서 특정 신문사와 정권이 결합되는 인상을 주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또 이렇게 되면 다른 신문사들이 받을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문제가 되었던 상품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 삼아 보겠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 저희 방에서 열흘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쳇말로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31일 문광부는 새로운 상품권제도를 만든 이유는 사행성을 방지하고 상품권의

환전을 방지해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에 있
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현재 정확한 추계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9개 상품권발행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하고 또 게임산업개발원의 자료를 바
탕으로 해 보니까, 하루 발행 한도는 1억 5000만
장으로 7500억 원인데 하루 최소 유통량이 750억
원이고 최고로 잡으면 2800억 원으로 경품용 상
품권의 연간 유통량 규모는 최소로 계산해도 무
려 27조에 달합니다. 최소로 잡은 것이 27조인데
최대로 잡으면 약 100조 가까이 유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
고 이게 여러 가지 유통문제도 있지만, 우선 위
조상품권이 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
다.

○박형준 위원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상품권하고 이 상품권이 육안으로 구별이
되십니까? 어떤 것이 진본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여기서는 잘 안 보입
니다.

○박형준 위원 가까이 와서 보셔도 똑같습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비춰 보면 이것은 뒤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별표가 있고 이것은 별표가 안 나
온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인쇄기술이 워낙 좋
아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 상품권과 이 상품권을
육안으로 구별할래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습
니다. 가짜에 속지 말고 짝퉁에 울지 말자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돌고 있는 게 7월 31
일 이후 현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권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약 2800억 규모의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시장에서 이런 딱지상품권이나 위조
상품권이 얼마나 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
악이 안 되지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다음에 왜 상품권 문제가 사회
적으로 큰 문제냐 하면 액수도 액수이지만 불법
유통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상적인 상품권 유통구조는 게임장으로 가서
소비자에게 가서 가맹점을 통해서 발행사로 오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상품권 회수율은 0.4%밖에 안 됩
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어디로 돌고 있느냐? 정
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비정
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총판에서 게임장으로 가고 게임장에
서 바로 환전소로 갑니다. 그러면 환전소에서는
이것을 게임장으로 다시 돌려서 재사용하거나 아
니면 총판에서 교환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돌면서 이 사람들이 얻는 수익이 천문학적인 숫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전부 탈루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전소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
습니다. 이게 분명히 불법적인 것으로 사료됨에
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
에서 상품권발행사만 조정했다고 해서 전체 상품
권 유통시장이 정상화가 되느냐 하면 전혀 그렇
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7월 31일 대책
이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달이 더 가면 아마 내
년쯤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안 그래도 지난주에
총리 주재로 상품권의 사행성 등 여러 가지 불법
문제에 대해 검찰 경찰까지 참석한 관계 기관 회
의가 있었습니다. 위조상품권 유통, 불법 환전 및
환전소, 아까 이제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고 팔고
있는 환전소들에 대해 이미 다 파악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이게 조폭과 연계되어 있다는 경찰의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행만이 아니라 사
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정
상으로 유통되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찰
과 경찰에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그리
고 법개정을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부에도 사법권
을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대
처하기로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아까 패널에서 보여 드렸지만 문

제는 불법적인 유통구조를 제거해서 정상적인 유통구조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현재 상품권발행사는 자기한테 돌아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1년 기준으로 보면 27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세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의 탈루되는 것입니다. 또 전체 총판에서 5500억 원, 전체 환전소에서 약 2조 70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사실은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세청과 경찰 쪽에서도 탈루되고 있다라는 것을 포착해서 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박형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이것이 가져올 복합적인 효과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예비조사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몇 가지 것만 땀방식으로 고쳐서 낸다면 현장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불법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조직들은 문광부의 머리 위에서 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상품권 유통 전체에 대한 전자적인 유통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하신다고 했지만 문광부, 정보통신부,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실시간 감시센터를 지금이라도 운영해서 불법적인 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상품권 환전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가맹점으로 오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수확대를 해야 되고 이런 건전 유통체제를 만드는 데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이것이 더 미루어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다음에 한무컨벤션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한무컨벤션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준 위원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미 보도에도 나왔고 여러 심사위원들의 증언에도 나왔지만 지난번 심사가 부실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 관광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도, 법률 검토기간이 무려 두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 오후에야 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판을 하면 질 것 같다는 의견이 4개 법률 검토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 것을 뻔히 아는 재판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진 다음에는 대책을 세워서, 사실 원칙적으로 하자면 거기에 있는 공인회계사한테 하루만 시간을 줬더라도 발견될 사실을 발견 못 해서 심사 전체가 부실했으면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 재판에 진 것은 아닙니다. 관광공사가 진 것은 아니고 가계약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한무컨벤션하고 다시 계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또 관광공사는 지난 5월에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부총리에게 12월에 강남점 오픈한다고 보고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의혹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실제로 한무컨벤션 관계자나 오너를 취재하면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위층과 약속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기자들도 의혹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분 후에 감사를 재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경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한글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약 한과 그리고 한류 등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문화는 우리 문화 콘텐츠의 원천이자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인 문화산업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문화를 대표적인 원 소스 멀티 유저(one source multy user)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옥의 경우 무량수전 경복궁 불국사 등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들의 미니어처 그리고 조립과 분리가 가능한 한옥레고 등을 개발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상품이라든가 관광 상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품으로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도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한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문화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글만 보더라도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한글 망가뜨리기는 그 도를 넘어섰고 정부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한지로 만든 문광부 현황보고서만 보더라도 디지털매직스페이스, 디지털미디어 시티, 문화바우처,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종합영상 아카이브, 디지털콘텐츠 컨퍼런스 그리고 광복60주년 행사의 제목이 i60 희망네트워크코리아 이렇게 외래어가 수두룩합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앞으로의 올바른 한글문화 자리매김 그리고 한글의 세계화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한글 문제는 국어기본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정부 내에 각 국별로 국어심의관을 뒤서 외래어에 오염된 우리말을 순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확산되고 있는 점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성원 문화정책국장님, 제가 상임위 때마다

해외동포 한글지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교육부 또 외교통상부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지난 7월 1일자로 한국어 해외보급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문화관광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예, 문화부가 협의체의 차장이 됐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구체적인 대안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예,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곧 종합적인 계획들을 문화부 주도로 꾸려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윤 위원 문화부가 해외동포 한국어 교육에 대한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님, 한글날을 국경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정부의 행정 자치부입니다마는 이견의 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한 문화를 구체화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좋은 분야가 공예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영국의 명품거리에 있는 명품들이 공예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재윤 위원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의 약 7, 80%가 공예품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재윤 위원 그렇듯 공예산업은 명품산업이자 하이테크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를 보면 예술성·창

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예품이라고 해서 문화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보면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4조에 관광기념품·전통공예품 등의 부문은 관광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예산업을 관광국에 둔 이유는 우리의 공예상품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원활하게 유통시키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채에는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고요, 또 이것들도 보십시오.

이런 제품들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는 요새 중국산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이 아닌가……

○김재운 위원 이게 전부 다 중국제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들은 동남아시아 제품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사동에 있는 상품의 85%가 국적 불명의 동남아나 중국산들입니다. 국내 공예품의 80%가 중국산 아니면 불법 복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 유명 관광지의 관광 상품들을 조사했는데 70%가 동남아 또는 중국산들입니다.

관광국장님, 이런 곳들의 공예품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가 직접 조사한 적은 없고요, 진흥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 내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값싼 저품질의 국적 불명의 공예상품이 우리나라 고유의 공예상품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예작가들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공예진흥원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예진흥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예진흥원의 실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예진흥원이 낙후돼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이게 무너질까봐 기둥을 대놓은 것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무너질까봐 대놓은 것입니다. 여기가 공예전시관인데 전혀 전시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 보십시오. 이게 물이 새 가지고 이 벽이 다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축계획서를 문화부에 제출했는데 계속 검토 중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계속 표류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공사기간 합쳐서 약 2년 동안 전시나 교육사업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상을 장관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취임한 직후에 그곳을 갔습니다. 가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공예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이 정도의 전시관으로는 안 된다, 이걸 통합해서 다시 지어야 한다 그런 지시를 했고요.

그동안 공예계에서 제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도 공모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예를 담당하는 문화부 직원도 지금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직원이 재직하는 기간이 3개월, 4개월, 8개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예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도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전통문화산업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참고로 총리께서도 이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내각에 각별히 지시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운 위원 영국의 경우는 공예청을 뒤 가지고 역시 공예청이 판매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및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예예술인에 대한 인재 양성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공예진흥원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해마다 5개나 6개의 도시를 돌면서 어떤 페어를 통해서 공예작가들이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예산업을 앞으로 고부가가치 명품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짚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예산업은 하이테크 명품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국에 뒤야 되는가 문화산업국에 뒤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공예산업이 정말 균형 있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조직의 문제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공예전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의 7, 80% 이상이 공예품인데도, 그리고 이것은 관광 상품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공예전시관을 한번 건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것도 제가 신축을 지시했다라는 것은 공예전시관다운 공예전시관, 그것도 인사동에 위치한 그 지역에 지금 신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의해서 다른 지역도 역시 공예전시관이 꼭 관광 상품을 전시하는 전시관과 같은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좌우간 공예전시관의 확보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공예산업은 디자인 분야 그리고 또 예술 여러 가지가 죽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예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육영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국민의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손기정 선수의 유족으로 고인의 외손자인 이준승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상영하며)

금메달 기증에 대한 기증 증서가 없습니다. 손기정 선수도 자신이 딴 금메달을 볼 수도 없었습

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손기정 선생님은 이 금메달을 국민의 것으로 돌려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면 이것은 육영재단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것을 육영재단에 넘겨줬다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잘 보면 박근영 이사장이 스포츠조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 나라의 보물로 관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보물로 관리하면 이걸 국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근영 이사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 이사장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려면 메달은 나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만약 박 이사장이 메달을 국민들이 볼 수도 없는 금고에 넣어서 보관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유지도 받들……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지든가, 왜냐하면 국가에게 기증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보존을 못 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 장관이시기 때문에 면밀하게 짚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국가에 기증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우리 체육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영재단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거기와 상의해서 국가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손기정 선생님 가족도 그렇고 지금 손기정 선생님의 유품들이 육영재단하고 손기정기념재단에 모아져 있습니다. 손기정기념재단 가족들은 이걸 다 함께 모아 가지고 국가가 관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영재단에 있는 손기정 선생님의 유품들도 결국은 국가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손기정기념관을 만들어서 이 유품을 전부 다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손기정 선생의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뒷받침하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게,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나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체육박물관 건립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손기정 선생의 유물관을 하여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보충질의 그다음에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그 전에 민병두 위원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민병두 위원** 장관님, 사실 황영조기념관은 이미 지어졌고 그 당시에 황영조 선생이 손기정 선생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79년도에 국가에 기증할 때 국가에서 손기정기념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그 금메달을 받은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웅 위원** 본 위원은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한 브랜드 행사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진지하지 못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정치적 이벤트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미처 늦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끼었다는 게 제가 참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국정감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나아가, 거기에다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 기능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정치적 이벤트에 제가 그냥 진지하지 못하게 끼어 버렸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왜 제가 이 행사를 정치적 이벤트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또 우리 문화관광위 위원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한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사업 주체까지 바꿔 버립니다. 사업 주체까지 바꿔 가면서 이 한류사업을 확산시켜야 되겠고 우리의 위원들은 어떻게든 이 한류를 성공시켜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국위가 선양되는 걸 바라지 않겠으며 그 선양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참으로 오늘 이 질의 시간까지 오늘 밤 마칠 때까지 저는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죽 해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하고 싶은 말이 더 있고 더 따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항상 일문일답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읽어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전부 정리해 뒤서 읽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께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차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을 제발 좀 이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사업자 변경을 위해서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조금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았습니까? 장관님, 승인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승인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승인한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사업인게 요구서를 제출받았습니까? 그 자료도 제출하세요.

내가 유진룡 실장한테, 그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이건 보조금사업자 변경에 대한 법절차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부는 계속해서 사업자 변경의 정당성을 올 하순 기획예산처에 목간 전용 승인요청을 했다고 하면서 마치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광부가 콘텐츠진흥원에 배정한 25억 중 12억 원을 아문재단에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전용 승인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법 제16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후에 교부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법 이 16조를 어기면서까지 교부신청도 하지 않은 아문재단에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배정된 25억 중 12억 원을 미리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특혜를 의식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광부는 아문재단에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기획예산처에 전용 승인요청을 한 것은 옳 하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문재단이 국고보조금 25억에 대해 교부금 신청을 한 것은 2004년 8월 19일입니다. 이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동채 장관께서 아침에 아문재단 사무처장으로 김양래를 본인이 추천했다고 상당히 확신에 찬 어조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의혹이 더해집니다.

법절차를 어겨 가면서까지 보조사업자를 바꾸고, 예산을 전용해 주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김양래를 사무처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여기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아문재단은 20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날 재단 사무국 회의실에서 정관변경을 합니다. 그 건이 2건입니다. 하나는 굳이 잘 되어가던 사무국을 사무처로 바꿉니다. 직원 12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다 김양래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2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전에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재단이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본 위원도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허위임을 확실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장관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저는 장관 취임 초에 인사 개입 의혹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시던 것이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려지면서 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다음에 아문재단은 문광부로부터 2003년 6월 4일자로 설립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21일 신임 신현택 이사장이 주재를 하는 이사

회가 제3차 이사회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서희덕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서희덕 이사장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 이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 재단 설립 이전까지 쓴 비용 7519만 원을 신현택 이사장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보조금관리업무지침이 명백히 있습니다. 문광부 직원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조금 교부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돈을 주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고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현택 이사장 2000만 원, 김규원 사무국장님, 이때는 사무국장체제입니다. 김규원 사무국장은 920만 원을 현금으로 출납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고환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3년 10월 21일자로 이사장에 취임한 신현택 이사장은 본인의 사업체인 삼화프로덕션, 이 삼화프로덕션이 세 들어 있는 그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본인이 임대인이고 본인이 임차인입니다. 진짜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2년 월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월세 계약이 268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하고 3개월 뒤에 월세를 460만 원으로 올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한류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없이 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버젓이 문산기본법에 의해서 배정한 예산,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배정하는 것을 별 이유도 없이 아문재단에 주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도 하나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나중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9차 이사회에서는 제규정개정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직책별 연봉지급기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처장의 연봉을 하한 8500만 원, 상한 9000만 원으로 정합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얼마지요? 장관님 연봉이 얼

마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8500만 원입니다. 8510만 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일개 사단법인, 그것도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인 아문재단에 국고를 30억씩 지원을 하고 거기에다 직원 12명밖에 안 되는 아문재단의 사무처장 한 개인에게 연봉 8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85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장관 연봉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규정을 만듭니다. 수익사업으로 생긴 것은 10%를 떼 가지고 수당으로 지불하게 합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고생한 대가로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전액 국고보조를 받고 있고 수익사업이라 해 봐야 다른 업체들이, 기업들이 보조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남긴 이런 돈을 다시 수당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2005년도에 3300만 원 갈라 썼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문재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건수가 3건이 있는데 여기 3건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총 2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주식회사 바이타민 비즈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주식회사에다가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연구비로 지급합니다. 제가 연구보고서 논문 심사 수없이 했습니다. 이 내용 제가 일일이 다 봤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산업정책연구원이 한 3000만 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보고서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검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성균관대학 어찌고 이래 가지고 4000만 원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컨텐츠 연구소에서 4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받은 것입니다. 2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을, 증빙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이 설문조사를 위해서 1대 1 면접을 한다고 다 썼다…… 문화관광부에서 분명히 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문광부에서 이렇게 실정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나라당 좋습니다. 사무처장 한 사람보다는 직원 12명의 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새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사실을 어떻

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감사원이 어제부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의 절차 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은 감사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지 못한 것들을 예결특위에서 감사원 감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3월쯤 나올 것입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방만하게 엉망진창으로 집행된 국고를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재웅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숙 위원 각 분야마다 과거사 청산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방 6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친일잔재를 청산 못 했기 때문에 현대사에서 역시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고 문화예술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얼마 전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친일 인명사전 1차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예술인이 144명, 언론인이 6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친일 논란 인사에 대해서 검증절차 없이 국민세금으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문학가 이원수, 청마 유치환 이런 분들은 1차 명단에는 없지만 친일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비 건립, 생가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대중가수로 유명한 남인수는 친일활동이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인데도 그의 생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했고 진주시는 생가구입비를 내년 문광부예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남인수 가요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백범 김구 선생의 지시로 작성된 친일파 명단에도 있는 인물입니다.

김은호 화백은 이윤곡 등 역사인물 영정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각 지역 시민들이 꾸준히 철거

요구를 하고 있고 표준영정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 역시 친일 전력으로 그가 그린 영정을 바꾸라는 시민 요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를 추모하는 미술대회를 문광부가 후원하고 장관상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홍난파, 채만식 기념사업은 친일 전력으로 중단되었고 마산의 조두남 기념관과 노산 이은상 문학관은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마산 문학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념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전북 고창의 서정주는 친일행각이 주목되고 있는데도 미당 시문학관, 미당 시문학상, 국화꽃축제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친일과 장우성 미술관 역시 그 이름의 미술관이 국비 포함하여 53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언론인 장지연도 그를 기념하는 상을 제정하고 기념사업회는 문광부 산하 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산 시민들은 그의 묘소에 대해서 문화재 등록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장지연로라는 도로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언론인들도 묘소참배 거부나 독립운동가 서훈 박탈 논의가 있는데도 작년 언론인 명예의 전당에는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분야에서 과거사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 미래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언론인에 대한 과거사 진실이 검증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들의 '공'과 '과'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친일행각은 엄중하게 문제 삼아서 다시는 후손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그들의 예술성도 수용하는 비판적 계승의 자세로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친일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가의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친일 시비가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산은 명확하게 친일의 전력이 가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관련 위원회가 현재 조사 중이므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친일행적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동예술회관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예술계 전체의 문제거리로 되어 있는 목동예술인회관 문제가 이제 일주일 후부터는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문제로 비화되게 생겼습니다.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술 전문채널인 아르떼에서도 크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르떼는 9월 29일 딱 일주일 이후에 목동예술인회관의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한국 예술가들의 퍼포먼스를 상영한다고 합니다.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목동회관은 92년 출발부터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건물의 75%가 오피스텔이어서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국고로 환수해서 새로 출범하는 문예진흥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목동예술인회관 문제는 더 이상 물리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제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습방안과 처리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산은 이미 165억이 투입되었고 사업의 50%가 진행된 상황에서 건물의 신축 용도로 들어가 있는 액수를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좀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대책위원회나 이런 것을 문광부 차원에서 새로 구성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예술인 전체를 위한 예술인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남북한이 공동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22회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평창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는데 평창이 선정될 수 있도록 문광부는 물론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공동유치에 적극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인은 유감스럽

게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을 북한과 공동유치할 경우에 7개국 7개 유치 희망 도시의 치열한 유치경쟁 속에서 평화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서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개최지는 원천적으로 1국가 1도시로 관행화되어 있지만 내년 12월 아시안게임에도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도 규정을 고쳐서라도 단일팀 출전이 성사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계올림픽의 공동개최 또한 성사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도 2014년 동계올림픽을 남북한 공동유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북한과의 공동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IOC헌장 제34조는 1개 도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곤란한 점이 있고요. 또 장웅 북한의 IOC위원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개최가 여의치 않다고 일단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는……

○강혜숙 위원 이미 의견 타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장웅 위원장이 그렇게 IOC헌장의 문제를 들어서 곤란하다고 했지만 평창이 유치가 확정될 경우에 IOC 및 남북 NOC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몇 종목은 분산해서 개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숙 위원 올림픽의 정신이 평화의 정신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문화예술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기업의 기부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기부 비중이 8%에 머무르고 있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업의 세

금감면에 큰 유인효과가 있는 세액공제제도를 제안합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에 의하면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에 있어서 세액공제제도는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세액공제제도를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할 경우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잠정 유보되었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세수 감소로 재경부가 반대한다면 한시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다시 한번 논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재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금 확대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아시는 것처럼 문예진흥기금 기부 시에 소득금액의 100%를 손금산입하는 것인데요. 이런 손금산입한도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제도의 효과가 크므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지금 재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혜숙 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전통양식 건축물은 한국의 멋을 대내외로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관법, 프랑스의 풍경법 등은 그들의 고유전통양식을 건축물에 반영해서 그들만의 멋을 세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의 건축물에 대한 전통 마인드에서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광부는 지난 5월 가칭 문화적 공간환경조성과제탑승제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통양식과는 거리가 먼 옥외 광고물, 공공미술 디자인 위주로만 과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관님, 이 과제탑승제에 전통양식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통문

화에 대한 관심 부족, 마인드 부재 때문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지적에 대해서 이 분야의 전통양식 전문가가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리고 지난 3월에 건교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경관법 제정계획을 밝혔고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전통양식을 살리는 방안이 경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긴 말씀드릴 것 없이 양 부처가 중심이 되는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우리 전통양식이 경관법 중심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 문광부에서는 최근에 방송광고 TFT 광고분과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최종 의견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간접광고 도입방안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복수미디어랩 도입방안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광부가 외주 전문 채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지상파의 독과점을 막고 외주제작사의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TFT에서 협찬노출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지상파 방송사에 무분별하게 광고를 허용하자는 것은 외주 전문 채널을 만들고자 한 당초 문광부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 여자 연예인이 너무 심한 간접광고 때문에 촬영을 거부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간접광고의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광부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지상파만 의식한 무분별한 특정매체 밀어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

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 73.2%가 간접광고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상표를 알아보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러한 간접광고시의 모자이크 처리가 TV 시청에 방해가 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5.5%에 이를 정도로 간접광고로 인한 시청자의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부는 신문광고가 지면의 50%를 넘을 경우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하자는 것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특혜이자 매체 간 경영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간접광고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간접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을 지상파 방송사에 줄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들의 횡포에 울며 겨자 먹기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업체에게 주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문광부의 TFT에서 제시한 안에는 이러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방송정책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복수미디어랩에 대한 것입니다.

문광부가 기껏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서 내놓은 안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년 전에 논란을 일으켰던 수준에서 한 발짝도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스탠더드니 방송의 공공성이라느니 또 시장경제원리의 조화를 도모한다느니 하면서 좋은 말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KOBACO의 독점적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KOBACO의 자회사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무늬만 민영 미디어랩인 기형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2단계에서 제2의 공영 미디어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5년 전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 내용 속에 있는 광고발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광고에도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설정해서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로 참여정부다운 편리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광고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국가도 아닌

데 걸핏하면 상한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이 정부의 뇌구조가 정말로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무너지고 광고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의 거대 자본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인데 광고시장을 아직도 강보에 싸인 아이 다루듯 해서 어떻게 새로운 매체에 적응하고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이제 우리의 광고제도도 말로만 글로벌스탠더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구닥다리 제도를 또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좀 풀고 무한한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방송광고시장의 체질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장관의 생각이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190억이라는 국고를 지원해서 현재 조계종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시중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총무원 자체적으로 호법부에서 올해 4월, 6월 두 차례 그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 8월 11일 종단 내에 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85일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36억이면 되는 박물관 공사비를 62억 7300만 원으로 계약했고 15억이면 되는 인테리어 공사는 27억 5600만 원 넘게 책정해서 집행됐고 이미 지출된 공사비 역시 과다지출 되었으므로 초과지출된 14억 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종복 위원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화관광부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국감 현장에서까지도 자료가 파악이 안 됐다고 문광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게 조계종에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정종복 위원 물론 조계종에서 안 주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조계종에서 그렇게 답변한 공문서를 또 그대로 저희 방에 보냈더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 시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종복 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문광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만 계속 받고 또 예산만 지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전혀 파악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모 월간지 9월호에 상세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조계종에서는 월간 중앙에 가서 이 기사에 대한 항의 농성을 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는데 지금은 농성 진도 철수해서 조용한 것 같습니다만 공사비 380억의 절반인 190억을 지원한 문광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종단 내부의 문제라는 민감성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선불리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법이 정한 대로 정상절차를 밟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인사로 현재 여당 소속의 정치인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의 계보로 알려진 임모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교박물관 도급업체인 Y라는 회사가 발주자인 조계종의 승인도 없이 하청을 준 인테리어 업체 P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또 불교계 일각에서는 이 인사가 이번 공사비 뺑뺑이의 주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보면 조계종에서 입찰 참가 통지서 4통을 발송했는데 모두가 임모 씨의 직원이라는 K씨에게 전달됐다는 것하고 선수금으로 1억짜리 수표 18장, 8190만 원짜리 수표 1장 해서 18억 8190만 원이

모두 K씨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지난 4월에 임모 씨와 K씨를 서울지검에 고소를 해 놓았는데 저도 고소장을 읽어 봤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여당 정치인이 공사비 담합을 주도해서 불법 이득을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고를 지원한 정부는 이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눈감아 주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고요.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형 불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종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불사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좀더 투명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가 권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문화관광부 자체에서는 큰 국고금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의혹 사건이 생기면 서둘러서 진상을 파악하고 그 처방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정산하고 대책도 빨리 세워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답변드리겠습니다.

190억을 지원한 것인데 문제가 된 것은 전시관의 건립 문제인데……

○정종복 위원 박물관 인테리어 문제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박물관과 우리가 지원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의 투명한 관리와 제도적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산해서 반납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런데 문광부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아직 해당 공사에 안 썼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수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정종복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재오 위원님, 박형준 위원님께서 성인오락실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불법과 사행행위가 판치는 성인오락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인오락실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갔더니

성인오락실 바로 위층에 환전소가 있는가 하면 성인오락실 앞에 아무런 표시도 없이 간이환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환전소가 심중팔구는 성인오락실 주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서 정상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환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오락실은 그 차액을 챙기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법과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싶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제한하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새벽 한두 시까지 영업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오락의 범위를 넘어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하거나 예시나 연타 등의 심의기준을 위반한 일이 있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도록 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말하자면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일본처럼 기계 안에 칩 장치를 해서 사용내용을 굉장히 투명하게 기록하게 해서 주인이 세금을 탈루한다든가 하는 부정한 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 보시고, 또 재사용 방지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좀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상품권을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배출될 때 상품권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해서 재사용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재사용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법령을 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이것도 참고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께서 신고포상금제나 재사용방지 시스템 등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호 위원** 윤원호 위원입니다.

제가 비디오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간접 광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장관님께서 바쁘셔서 못 보신 것 같아서 드라마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찬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보시고 간접 광고의 도가 어느 정도나 심한지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5분 비디오 상영개시)

(18시08분 비디오 상영종료)

장관님, 저 비디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간접 광고 하다가 시청률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윤원호 위원** 혹시 비데공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루루공주 말씀하시는……

○**윤원호 위원** 룰루가 비데회사의 이름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

○**윤원호 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윤원호 위원** 이렇게 간접 광고의 도가 지나칩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 방영한 패션 70's은 부산에 있는 한 업체의 일대기를 그린 것입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동춘섬유라는 이름을 쓴 섬유회사인데 전국적으로 300여 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패션업체입니다. 그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원래 12부작인데 엄청 인기가 있어서 24부작으로 늘렸다, 남자를 여자로 바꿔서 자기 사장의 일대기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가상 광고가 지금 지상파 드라마에서 난립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가 이걸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법 73조에는 분명히 프로그램과 광고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협찬의 경우도 협찬고지만 할 수 있도록 시행령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윤원호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접 광고를 공식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반대가 있죠. 조금 전에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

찬노출이라는 이상한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정당한 광고인 것처럼 포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간접 광고는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남몰래 하고 있는 광고’ 또 ‘은밀한 광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광고TF에서 다수의견으로 제시된 것이 협찬노출입니다마는 이것은 간접 광고하고는 다릅니다. 협찬노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전후에 고지한다는 것이지요.

○**윤원호 위원** 저 비디오를 보시고도 저게 협찬노출이라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시청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찬에 따른 제품이나 장소의 자연스러운 노출을 최소한으로 허용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나 디자인이 없는 미미한 소품 등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윤원호 위원** 장관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송에서의 광고정책이나 행정은 정치적 독립 등의 사유로 독립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방송광고정책 등에 대해 참여하고 주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장관님, 그것은 방송영상정책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방송법 92조에 방송영상정책이 있고 정부조직법 35조에 방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할 일이 아닌데도 공연히 그렇게……

○**윤원호 위원** 그런데 방송법 27조에 보면 방송위원회는 방송영상정책에 관한 부분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송광고입니다. 방송영상정책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광고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5조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문화관광부와 합의해야 되는 사항은 방송법 시행령 20조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송영상 산업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제도 수립, 둘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급 및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변경, 세 번째 방송시장개방 또는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정부가 협력하여야 할 사항, 넷째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변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 네 가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 담당이 문화관광부입니까? 방송위원회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입니다. 그러나 방송광고정책은 방송법이나 그 시행령 규정 등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되므로 저희들이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윤원호 위원**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방송광고정책을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송광고정책은 정부조직법 제35조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 업무입니다.

○**윤원호 위원** 제가 아직 못 보았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송 선진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간접 광고, 가상광고, 중간광고는 이미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일본 NHK는 어떤 경우라도 협찬사를 절대 방송에서 밝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프랑스의 경우 광고는 광고시간에만 하고 프로그램시간에는 절대 방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독일 역시 광고를 프로그램과 구분하지 않고 간접 광고를 했을 경우 제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국 BBC의 경우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출연하는 광고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대에는 광고도 방송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전혀 PPL을 허용하는 그런 방송 선진국이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간접 광고라는 것과 협찬 노출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 표를 가지고 있

습니다.

○**윤원호 위원** 협찬 노출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간접 광고는 아까 저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거지만 협찬 노출은 앞뒤에 고지를 하고 드라마에 필요한 소품, 의상……

○**윤원호 위원** 저런 드라마에서는 전혀 앞뒤에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간접 광고라는 형태를 빌린 것이지요. 저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이 표에 의하면 협찬 고지나 협찬 노출은 전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장관님,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릴 게 많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결산 상임위 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관광산업 인프라가 많이 변화가 돼서 관광진흥기금이 특급호텔 시설 확충에 용자를 하던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진흥기금의 53% 정도가 특급호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진흥기금이 쓰여지는 데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호텔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또 외국인들의 소비실적이 89%를 차지하는 절대적 역할을 특급호텔이 합니다. 그래서 고품격 양질의 서비스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급호텔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고요.

○**윤원호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 이후에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기금의 운용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특급호텔은 특급호텔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원화환율의 상승 등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저는 특급호텔들이 업살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는 업살은 꼭 아닙니다.

○**윤원호 위원** 2004년 말에 서울에 16개, 전국에 44개로 늘었습니다. 2000년도에 32개였던 게

44개로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 일급 호텔 외국인 투숙객 수가 9.3%나 줄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호텔 값이 비싸기 때문에 회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상하이나 푸켓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저희들의 지원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윤원호 위원 장관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으면 외국인 내장객이 늘어야죠. 그런데 자꾸 줄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 중에서도 지금 특별히 용자를 해 주신 서울 소재 특 일급호텔인 위커힐호텔, 임페리얼호텔 이런 곳이 평균 외국인 내장객 79.4%보다 월등히 낮은 5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광기금 운용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불가피합니다. 특급호텔과 중저가호텔 용자 비율, 조건 등을 차등화하겠습니다마는 특급호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핵심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장관님, 그러면 이 이후에도 계속 특급호텔에는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특급호텔만 지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윤원호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의 거의가 특급호텔 시설 확충을 하는 데 지금 계속 용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호텔들이 지금 이자 수익만도 얼마나 얻었는지……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특별용자는 아니고요. 수요에 따라서 개·보수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윤원호 위원 어제 저녁 MBC 9시 뉴스에 이걸 직접 취제한 MBC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인터뷰한 어느 특정 호텔에서도 ‘이건 엄청 싸입니다. 시중 이자에 비해서 굉장히 싸입니다’ 이랬는데 이게 W호텔, 아미가호텔, 메이필드호텔 이 세 호텔에만 용자를 해 준 금액들의 이자차액이 시중금리보다 187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돈을

갓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재윤 위원님께서 우리 한국 관광 상품이 모두 중국에서 제작되어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관광진흥기금의 운용을 한국 토산품을 만들어 낸다든지 또 다른 관광 상품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꾸 힘 좋고 돈 많은 특급호텔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그렇습니다.

중소호텔에 적용한 우대금리가 0.75%인데요. 이것을 대기업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W호텔이 대기업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중소호텔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또 용자재원을 중소호텔에 우선 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용자금액하고…… 제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다음 보충질의 시간 때 시간 주시렵니까?

○위원장 이미경 예.

○윤원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관광호텔의 187억의 이자차액은 우리나라의 결식아동이 25만입니다. 이 결식아동에게 6개월 동안 점심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구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아침과 점심에 아주 멋진 행사를 만들어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전주 출신 이광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자리에서 했던 발언으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권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당당 노이로제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국회나 야당이나 언론에 대해서 늘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증 같은 것을 가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

니다.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언하는데 피식거리거나 빈정거리거나 반문하거나 나무라거나 심지어 호통까지 칩니다. 저는 기자로 14대 국회부터 즉 관찰해 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왜 그럴까, 제 나름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럴수록 칭찬 받고 출세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마침내는 국민에 대해서 강하게 맞받아칠수록 승진도 하고 장관도 되고 공천도 받고 떨어져도 낙하산으로 구제도 되고 하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관료조직은 이런 데에 참 예민합니다. 처음에는 이른바 실세 장관 몇 분만 그러더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실·국장급까지 국회의원 질문을 우습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4800만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발언이니까 국민 앞이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답변하라 하는 그런 원론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 말만은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많이 정의로워졌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잘못에서 단죄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즉각 단죄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는 장관석을 얘기합니다. 국민 내려다보면서 탕탕 큰소리치던 분 중에서 지금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빠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권은 영원무궁하지 않습니다. 한 순간 착각으로 몸과 이름을 망치고 후회로 땅을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은 본회의에서 자주 보기 때문에 국회의원 질문을 우습게 아는 장관을 거론할 때 우리 정동채 장관님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 하지만 제가 답변하는 실·국장을 보는 곳은 이곳이 전부입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께 묻겠습니다.

카지노에 대한 것입니다. 카지노 자체 문제보다는 국가기관의 의사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로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 문제는 작년 9월 3일에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이후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찰한 결과 대체로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규 허가 방침이 발표가 된 것 그게 하나고 업체 선정된 것이 두 번째고 허가가 취소된 것이 세 번째고 재판이 열려서 지난 9월 9일자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이게 9단계, 10단계까지 갈지 20단계까지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반전 이후로는 좀 황당해 가지고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카지노 신규 허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무슨 여론의 압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이 아니고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일반 국민은 좀 느닷없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느낌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때 당시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광수지 적자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04년에 3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지 적자를 개선할 필요성과 또 삼십 몇 년 동안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라는 생각, 저도 문화관광위원회에 8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카지노는 허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구식 위원 정부의 판단이 곧 특히 우리 장관님의 독자적인 판단이셨던 거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물론 제가 결정하기 전에도 그 논의가 하여튼 죽 있어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지난 한 8년 동안도 해야 된다고 말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줄다리가 있어 왔다는 것을……

○최구식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표를 9월 3일 장관께서 직접 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최구식 위원 자주 발표를 직접 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난번에 사행성 중독 그런 것도 하고 예, 가끔 합니다.

○최구식 위원 기자들은 우리 장관님 뵈기가 참 힘들다고 그렇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도시도 하고 중요한 건 제가 직접 발표합니다.

○최구식 위원 이 일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작년 국감에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실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마

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또 게임중독 예방 발표할 때는 그게 또 제일 중요했고요. 고비 고비마다 발표할 시점은 제일 중요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지요.

○최구식 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신규 허가를 하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한 1억 5000만 달러의 외화획득이 예상된다, 1억 달러가 늘어나면 유관 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1519억, 기타 부가가치가 1608억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가 1만 1738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그런 건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검토보고서 또 용역 결과 또 공청회 등 학계 그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종합……

○최구식 위원 1억 5000만 달러 획득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왜 기준은 또 1억 달러 기준으로 했습니까? 계산이 잘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구식 위원 그래서 제가 1억 5000만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돈이 2280억, 2400억 그리고 고용 효과도 1만 7600명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될 거라고 실제로 믿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문화부 생기고 문화부에서 한 사업이 이런 엄청난 효과를 유발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추정치입니다. 기대치를, 추정치를 예상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통 사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약간 좀 과장됐겠지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정책연구원이나 학계의 논문 또 각종 세미나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먹구구로 황당하게 그렇게 보고한 건 아닙니다.

○최구식 위원 두 번째 단계가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11월 17일에 신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신

규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관광공사가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이런 일의 경우에 대체로 문제라면 졸속으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로비를 받고 부정하게 한 것이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대체로 경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나 혹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이런 카지노 영업허가를 해 주면서 로비를 하거나 불법으로 해서는 단 이틀도 못 가서 내부에서 폭로를 하든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칠 만한 그런 망상을 가진 사람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무엇이 미숙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근거당 기재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조작하고 심사에 수많은 사람들 전부 기만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은 이미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구식 위원 그러면 미숙함으로 인해서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것인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535억이라고 기재한 것이 사실은 근거당 등기부 원본을 떼어 보니까 1530억이었는데 그것을 빨리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사업자 선정은 공사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구식 위원 카지노 허가는 장관의 허가를……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허가는 저희들이……

○최구식 위원 지휘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휘감독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영업장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계약이 잘 이루어졌는지 또 그 영업장은 국제적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최구식 위원 허가 취소는 카지노 신규허가 과정에서 사안이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허가 취소를 했다면 큰일이지요.

○최구식 위원 그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계약해지 말씀이십니까?

○최구식 위원 예.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관광공사 사장의

로부터 제가 최초 보고 받은 것이 6월 30일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와서 ‘허위기재를 발견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몰랐다’, 그때도 관광공사 사장이 신임이었습니다마는 자기가 발견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밝히고 가야지 이것을 공개하고 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청문회감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었지만 발견됐으면 발견됐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공개해야지 만약 이것을 민감한 문제니까 덮어서 슬금슬금 갔다가 나나 사장님이나 나중에 청문회에 선다, 그러니까 밝혀라, 우리가 얻어맞더라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허위기재의 내용은 정확히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때 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구식 위원 사안의 본질을 흔들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허위기재라는 것은 허위기재 했다는 사실 하나, 그것이 법원에서는 영업장을 변경시킬 만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한점 부끄러움 없이 공정·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또 관광공사에서 법률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구식 위원 법원의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이 9월 9일에 있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9월 9일과 14일에 송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최구식 위원 그 내용은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법원의 판단은 지금 장관님 판단에 따르면 잘못된 것인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최구식 위원 법원의 판단은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고 누락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계약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라, 그리고 계약해지가 부적법한 행위다, 계약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재입찰 공고를 하거나 차순위 입찰자와 계약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소송비용은 5분의 4를 관광공사 측에서 물어라, 이렇게 나왔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최구식 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관련 서류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광공사의 판단이 틀렸고 그 기업체의 억울하다는 주장이 맞다 이런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법원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고, 제가 보더라도 관광공사는 이것을 그대로 지나쳤다가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허위기재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하고 관광공사는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변호사들은 이것은 계약해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반 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구해야지 이 시점에서 이것 그냥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가서는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사태를 맞을 것인가……

○최구식 위원 상식에 입각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2단계 신규허가까지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하 간에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발표를 했고, 거기서 특정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특혜설이 나왔고 이것은 사실 여하를 떠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허가가 취소되면서 관객들이 매우 헛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특혜로 봐주기로 한 것이냐, 아니냐, 봐주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패썹죄에 걸린 것이냐, 아니면 기득권자의 로비가 먹힌 것이냐, 이것은 워낙 큰 이권이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권 중에 제일 큰 이권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언론에 계속 얘기가 되는데 제기되는 의혹의 중간에 장관이서 계신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최구식 위원 처음 들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최구식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장관님 전임자 중에 한 분이 큰 결정을 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장관으로서 나라의 큰일을 결정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돈 몇 푼 먹고 이것을 하겠느냐, 상

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장관님이 이런 결정을 하면서 그런 추호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장관님 자존심도 너무 크고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일은 용납이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하여튼 이 일을 보면 여러 가지 좀 헛갈립니다. 저도 헛갈리고 옆에도 헛갈리는 사람이 많던데……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헛갈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제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여쭙어 보겠습니다. 제가 헛갈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여쭙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남해안관광벨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중에서 통영시에 통영항 지구 사업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환경 문제와 사업타당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경숙 위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보통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성이 있을 때 설치하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주민투표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경숙 위원 주민투표 전에 경제성이 있을 때 보통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경숙 위원 그런데 통영시장도 경제성은 없다, 단지 왜 강행을 하나면 시공업체에게 60억을

몰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공을 한다는 것을 경제단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통영시장의 그 발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데도 선출직 공무원의 치적과 그 다음에 결국은 경제성보다는 60억을 몰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공사를 강행한다고 이렇게 통영시장이 말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아주 큰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세하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륵사는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금방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리인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더 큰 문제점은 문화재 보호조치나 여러 가지 지지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사적인 봉수대가 상류정류장에서 200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경상남도도 뭐라고 결정을 내렸느냐면 선복원하고 후 공사하라고 했습니다. 복원조치를 하고 공사하라고 했는데 통영시에서는 이것을 무시했어요. 이렇게 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장의 말씀과 여러 가지를 좀 다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적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파악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 중간점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상남도에서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 복원 조치하고 실시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문화재청에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조계종에서 반대 공문을 세 번이나 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고 반대 공문을 세 번을 했는데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통사찰보전법 위반이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영화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통영시의 추진과 주민투표의 그런 것이 좀 꼬여 있어서요.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전통사찰보전법과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부지의 30%에 해당하는 것을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2005년 8월 23일 최종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이것도 역시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자꾸 지역주민 찬성, 찬성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통영시민이 13만 3900명입니다. 거기에서 3만 3000명만 모여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2만 7000명이 찬성한 것인데요. 반대서명한 사람이 3만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찬성자보다 반대서명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이 많고, 찬성자보다 반대자가 더 많고, 게다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승인 없이 케이블카 먼저 샀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집을 마련하지 않고 장농부터 산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느냐 하면 2006년 3월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50%도 못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국고 낭비 아닙니까?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남해안관광벨트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늘 듣고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더 자세히 파악하는 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통영항지구 사업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남해안관광벨트를 시간나는 대로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상영하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륵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상류정거장을 벌써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여수 무술목 유원지인데요. 여수시가 포기한 사업입니다. 오른쪽에 놀이시설 1개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사업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이 기존의 상가이고 뒤에다 부지 선정을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 실안비토지구인데 여기도 분양이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 전통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 현장인데요. 왼쪽에 예술인회관이 있습니다. 전경은 참 좋은데 과연 여기에 예술인들이 와서 살 것인가, 수도권에도 모이기가 참 힘든데 저기에 살 것인가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남해안관광벨트는 아닌데 관광지인 김제 온천입니다. 국고가 53억 투입되었는데 개장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고 휴가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칠갑산 도립온천 건설부지입니다. 오른쪽은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부지이고 왼쪽은 부지 옆에 세워지고 있는 건물인데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동안 34억 1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업 타당성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업 타당성조사가 안 되어 있느냐하고 보니까 500억 미만일 때는 사업 타당성조사 안 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경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말한 통영항지구의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는 500억이 안 되지만 주변 지구를 다 합치면 충분히 15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 방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해봐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중복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전남 보성 비봉공룡공원 조성 조감도입니다. 아직 지은 것이 아니라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보성 옆에 있는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학습장 조성현장입니다. 왼쪽이 조감도이고 오른쪽이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외국에서 화

석을 수입해서 공룡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거의 완공단계에 경남 고성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지입니다. 왼쪽이 조감도이고 오른쪽이 전시장 내부입니다.

그다음에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왼쪽이 박물관 전경이고 오른쪽이 전시장 내부입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공룡전시관과 박물관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미 지어졌고 보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무슬목 유원지 등 14개 사업을 저희들이 부진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계속 보완을 추진 중입니다. 또 아까 공룡 등 네 곳에는 중복 투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환경을 무시한 관광지입니다.

전북 윤일암 반일암 관광지인데요. 이번 여름 직전에 계곡 정비사업을 했는데 석축이 계곡과 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화장실인데 주변 환경과 너무 이질적이고, 이렇게 하고 나서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충남 예당관광지입니다.

저수지를 콘크리트 구조물이 둘러싸서 저수지와 땅의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있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몇 군데를 다녀보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관광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해안관광벨트가 집중적인 것은 여러가지가 문제지만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64개 사업을 병렬적으로 묶어놓은 것에 그치고 말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남해안 관광벨트를 관광벨트가 아니고 부실벨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관광에 대한 남해안의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거기에서 전략과 보조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사례가 없는가 하고 보았더니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료집이 나와 있습니다. 랑독-루시옹나 일본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한다는 유후인 마을,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이 보이는 다랭이 마을과 토구미 마을의 공통점은 컨셉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주민들하고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씨가이아 리조트단지는 관광시장의 수요변화를 읽지 않고 공급위주의 개발전략을 택해서 결국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남해안관광벨트가 조정되어야 성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지적에 다 공감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관광지사업은 균특회계라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행법령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문단을 상시 운영하고 사전점검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평가체제를 도입해서 중간평가를 해 나가면서 사업에 타당성이 없거나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국비는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중간평가 꼭 하시고요, 앞으로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간사단체가 되어 국무총리 산하에 이 기구를 뒤편에 두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통영시 케이블카 사업은 너무나 불법이 많습니다. 조사해서 결과를 확인감사 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게임장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게임장에 가 봤는데, 게임장에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따러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게임장이 오락이 아니라 완전히 사행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2004년부터 게임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단속반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 따러 왔다고 그러는데 돈 따러 오게 된 결정적인 게 뭐냐, 결국은 경품상품권 지정제도가 부채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것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에 칩만 한 번 넣으면 전부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거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빨리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 층이 아케이드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종합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게임상품권이 인증제에서 고시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권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이라고 해서 상품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 상품권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게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상품권 인증제가 확실하게 실시가 안 되어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품권이 나왔는데, 문광부 내에서 두 종류의 상품권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는 인증제이고 하나는 고시제이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술국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예술국장 위옥환 현재의 유사 문화상품권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번에 문예진흥법을 개정했는데 내년도에 시행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2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할 때 일원화시킬 것을 건의드립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국회 증언·감정법이나 국정감사법에 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가 안위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우리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

○심재철 위원 법에는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요구를 받은 기관이 나는 비공개할 테다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출하기는 어렵고 서면제출이 아닌 열람을 권유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지금은 법적인 규정을 따지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법적인 규정이지요?

○심재철 위원 법에는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이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기밀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규정대로 제출하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자료 제출은……

○심재철 위원 법대로 제출하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법대로 하시겠지요? 법을 지키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물론 법은 지킵니다.

○심재철 위원 다음번에 확인감사할 때까지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을 못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대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회의록 원문을 요청하신 것은 열람을 하실 수는 있으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우리가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수단은 없는 겁니다.

○**심재철 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원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개입찰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 계약을 할 것이냐, 그 기준선이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3000만 원이 넘었는데도 수의 계약을 했던 것이 15건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3000만 원이 넘었는데도 수의 계약을 했다면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심재철 위원** 어디다 통보하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감사원에……

○**심재철 위원** 감사원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총무과장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일부 누락된 경우는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 약 3건 정도가 3000만 원이 넘었는데 수의 계약했고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기획단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장관의 책임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전적으로 제 책임이지요. 포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본부나 본부 직할 소속 기관도 통보를 하지 않은 건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보고를 받았습시다.

○**심재철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지금 자세한 것은 기억 못 하는데 본부도 일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충 몇 건 정도? 한두 건, 여섯 건, 이삼십 건?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저희들이 통보하

도록 되어 있는데……

○**심재철 위원** 건수만 말하세요.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언제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심재철 위원** 날짜가 없으니까 개기시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부 누락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빨리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여태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그래서 금년도……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완료해서 제출해야 될 시점이 언제였는데 여태 안 하고 있었는지 그 날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최근에 마무리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못 했던 것이라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얘기 되죠?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특별한 시점은 없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몇 건이냐니까요, 본부하고 소속 기관에서는?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건수는……

○**심재철 위원** 한 10여 건 됩니다.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정산을 합니까, 장관님?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산합니다.

○**심재철 위원** 정산을 하기는 하는데 얼마만큼 영땡한지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상영하며)

한국관광학회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허위나 간이영수증으로 하고 있는데 5만 원 정도가 넘으면 제대로 된 영수증을 써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간이영수증은 5만 원 정도까지는 봐준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액수는 모르는데 좌우간 영수증은 정확히 써야지요.

○**심재철 위원** 그런데 허위영수증을 보면…… 미도문방구, 우리문구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가짜인지 아느냐? 이쪽에 필체가 나와 있지요. 우리 문구 쪽에서 ‘전자계산기’ 나오는 게 있지요. 결국 간이영수증 갖다가 거짓말로 쓱쓱쓱한 것입니다. 원래 영수증은 한 사람이 제대로 발급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 55만 원짜리입니다. 55만 원짜리인데도 간이영수증을 쓰

고 있습니다.

또 웃기는 과정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영수증을 위조하는데요. 2개를 보면 같은 데서 나오는데 이쪽에서 보면 2005년 것을 2004년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도 역시 2005년을 2004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아마 모르셨을 텐데 이런 문제점들이 정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점검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정산은 반드시 의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산은 해야 됩니다.

○심재철 위원 정산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정산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문구를 집어넣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국민의 돈이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겠지요.

○심재철 위원 계약서 양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산이 잘 안 된 게 있는데 2000만 원 이상 건수가 33건입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이중에서 정산을 한 게 불과 5건으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85% 정도를, 4분의 3 이상을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장관님께서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있지요? 지역신문들로서는 어디에다 돈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선정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당연히 그렇지요.

○심재철 위원 일반안건으로 처리하는 게 옳겠습니까? 중요안건으로 처리하는 게 옳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안건이니까 중요안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일반안건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안건인데 일반안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잘못된 처리입니다. 불법 의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결과는, 그때 됐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고 따라서 무효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 말에 논리적으로 틀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일반인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심재철 위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 판단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주간지는 한 2300 종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30개 정도의 주간지가 모여서 바른지역 언론연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단체에서 지발위 위원으로 김영옥, 김영오, 장호순 이렇게 세 사람이 뽑히고 또 한 사람은 지발위 전문 위원으로 뽑힙니다. 도합 네 사람이 임원으로 뽑히게 되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소속된 22개 신문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9개 신문사가 당첨이 됩니다. 지발위기금 지원 대상에 합격되는 것입니다. 합격률 86%입니다. 굉장히 성적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혹이 있다는 뒷말이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역신문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요, 해당 위원이 당해 신문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전부 학계나 이런 데 계시던 분들인데 뭘 그렇게……

○심재철 위원 잘못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우연히도, 합격률이 86% 이니까 이것은 좀 이상하다라는 뒷말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제척사유이지요? 그것은 어느 회의에서든지 일반적인 사유가 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요. 일반적인 사유이지요.

○심재철 위원 당연히 여기에서도 그런 제척사유가 적용이 돼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사람이 선정하는 데 가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나 세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지발위의 결정은 무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 2004년, 2005년 해서 전체적으로 신문공고가 4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특정신문은 3년 내리 4건 다 주르륵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2개 신문사가 2건씩 나누어서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다른 모든 신문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문재단 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철 위원 아닙니다. 문광부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신문광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따져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3년 내리 4건 다 당첨. 그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는 2건 당첨, 2건 당첨. 다른 모든 신문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맥아더동상 철거는 잘못된 움직임이지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한 맥아더동상 철거와 같은 반미 분위기는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에도 이롭지는 않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좋을 리가 없지요.

○심재철 위원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장관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문법에서 편집규약이랄지 이런 것들을 논란 끝에 임의규정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우선지원 조건으로 다시, 사실상 강제조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문화미디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신문법에서 편집규약 관련 조항은 시행령에서 빠졌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심재철 위원 시행령에서 빠졌는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우선지원 기준으로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먼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새 신문법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 이후에도 잘못된 것으로 빠져 있으니까 다른 시행령도 전부 다 손질되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먼저 제정되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먼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있었는데 그 뒤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역시 바뀌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할 단계라기 보다는 우선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따라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이제 막 집행이 된 단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재철 위원 먼저 됐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아닙니다. 다소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들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보완을 해 나가시겠다는……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니까 고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 그쪽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물론 저희들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마는 언론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생각해서 우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 있어 주간지와 일간지의 기준을 보니까 유가부수가 나오는데, 유가부수는 어느 한 군데에만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양쪽 다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유가부수 비율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가부수랄지 아니면 기자들에 대한 재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기초적이고도 당연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주간이든 일간이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따지지 않고 공통기준이 되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그 부분 법을 인용하면 법에서 간별에 따라, 발행주기에 따라 예를 들어 일간이나 주간은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한 공통기준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별을 따지지 말고 당연히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점에는 수긍하시지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위원님 말씀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해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재철 위원** 신문은 나름대로의 특색을,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경향보도가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문방송학 원론입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글썄, 거기에 대해서는……

○**심재철 위원** 신문학 원론에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이 경향성을 무시하는 것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우선기준으로 하는데 자문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5개를 받느냐 10개를 받느냐? 일간지는 10개를 받으면 최상급이고 주간지는 5개를 받으면 최상급이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데, 각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종의 성격을 다 받아서 경향성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여기에 시민단체의 추천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사의 기준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심재철 위원** 그쪽에서 한 것이라 모르겠다 이거죠?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그쪽에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그러면 다음번 확인감사 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수장을 여기에 모셔 오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독립기관인 지발위의 의견을 우리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지발위 위원장님께 재심을 말씀드렸다는 것조차도 여기의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립기관인 지발위의 위원장을 불러온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따가 증인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지발위에 상당히 많은 돈이 있는데 정기예금기관을 하나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이관합니다. 그런데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에 따라서 각각 이율이 달라집니다. 지발위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자율을 높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 여유자금으로 있는 50억은 중장기로 예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3개월 단기로 예치해 가지고 이자에 있어서 스스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확인감사 때 저한테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철 위원 이광철입니다.

저는 이번 국감은 문화 소외 계층인 장애인 문제를 중심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문화예술인·체육인들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향유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전에 우선 궁금한 사항 한 가지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감 준비하면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축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2002년 월드컵 이후 1679억 원의 월드컵 잉여금이 남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광철 위원 월드컵 경기장 10개 중 9개가 적자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1679억 원 중 순수하게 축구협회에 지원한 돈이 230억 원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맞습니다.

○이광철 위원 월드컵 잉여금은 공공재원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조직위원회 수익금으로 봐서 공공성 자금으로 보기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공공재원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국민체육기금 2103억 원과 국고 2713억 원 해서 모두 4817억 원을 들여 월드컵을 치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 남으면 국고나 기금으로 먼저 편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잉여금이라면서 이게 공공으로 얻어진 공공재원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공공재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철 위원 공공재원이 아니면 뭘니까? 그냥 사적인 이윤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은 법인의 잔여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어느 법인의 잔여 재산으로 파악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월드컵조직위원회요.

○이광철 위원 그러면 월드컵조직위에 파견된 축구협회 임직원 숫자와 공무원 숫자, 월드컵 잉여금 배분을 위한 회의록 사본들을 오늘 내일 사이로 바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광철 위원 다음은 지난해 국감 때 지적했던 사안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에 대한 문화적 상징물인데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까지 오는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상징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특히 관광은 이미지하고 상상력인데 우리의 상상력을 마케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용역 중인 10대 민족문화 상징물 연구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첫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상징물 건립에 대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타당성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또 하나는 지역 문화 균형발전의 핵심전략 산업이 문화중심도시 사업인데요, 장관께서는 광주·부산·전주·경주 등 문화중심도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동안 예산처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내년에 경주와 전주에 각각 역사문화도시와 전통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 냈습니다.

○이광철 위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은 겨우 확보했지만 부산 영상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주나 경주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에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부산은 계속사업이라 새로운 편성을 할 필요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광철 위원 저는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의 문화적 모델이 문화중심도시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도 기획예산처의 이런 여러 가지 제

한들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장애인 문화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화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애인 단체 중 하나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공동TF를 꾸리고 문화·예술·관광·체육·방송·영화·문화유산 등 10개 분야에 걸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결과물을 오늘 이렇게 자료집으로 냈는데요, 이 자료집을 만들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장애인 문화정책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믿었는데 그 인식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표피적이었는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선 체육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법정 단체로 출범하게 되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1일 출범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맞습니다.

○이광철 위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예비승인 정관에 의하면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고 이사인 사무총장이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런데 왜 사무총장의 임명을 내년으로 미루고 정원의 60%밖에 안 되는 15명만으로 출발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사무총장은 법인 발족시 임명할 예정입니다. 직원 규모는 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이체되는 예산 사정으로 우선 15명으로 출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내년 초에 신규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광철 위원 그런데 15명으로 출발하는 것도 복지부로부터 고용승계를 보장받은 복지진흥회 인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이렇게 해서 장애인 체육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온 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재활이나 특수체육으로 분류돼서 일반인들의 체육과는 다르게 많은 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면 복지부에 있는 장애인 체육 예산은 통틀어 4억인데 비장애인 체육예산은 국고와 기금 합쳐서 모두 1조 3000억 원입니다.

또 장애인 단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운동부족에서 오는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활체육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따라서 장애인 체육을 국민적 권리와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장애인 체육도 엄연히 체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계여부 부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원들이 그대로 왔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장애인 체육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지적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로 업무가 이관된다면 장애인 체육의 면모를 일신하고 또 장애인체육회를 발족시키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적어도 장애인체육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게 성격도 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진흥회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했다는 것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10명을 추가로 더 뽑고요, 또 우리 부로 오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업무하고는 다른 차원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광철 위원 이런 지적들이, 연속성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부가 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 중에도 보면 경기도 이천에 835억의 예산을 들여서 가칭 장애인종합수련원 짓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광철 위원 이 사업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2008년 장애인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하기도 하겠지만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설계부터가 지금 엉터리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상영하며)

보시면 저게 지금 설계도인데요. 보십시오. 이게 시설배치계획도고요. 여기 보면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을 보면 25m로 일반인들을 위한 수영장입니다. 장애인올림픽 체육에서는 50m가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 수영선수들이 수영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일반인들을 위한 수영장으로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양궁장이 위에 있고요. 양궁장 옆에 바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룬볼장이 있고요. 주차장 옆에 양궁장이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궁장은 무엇보다도 조용하고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옆에, 이건 일반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상당히 심각한……

여기 보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올림픽 종목이면서도 경기장조차 없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룬볼처럼 올림픽 종목도 아니면서 룬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천종합전용훈련장에서 준비 중인 종목도 이 설계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훈련 종목에 대한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로 설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인수한 이후에 전문가 또 장애인단체 협의를 거쳐서 조금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이광철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그다음에 장애인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전혀 받지 않고, 더 더욱 이 엉터리 사업을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이천시민들을 활용해서 운영비 11억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천시민들이 19만인데 이천시민들이 가능한 사람들이 모두가 저기에 와서 활용을 해야 이 운영비 11억을 확보하는데 결국은 장애인들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이천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애인종합훈련관이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시설 규모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이것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결국 공공재원을 통해서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전용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는데요.

현재 장애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들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2008년 북경장애인올림픽 그다음에 내년에 또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밖에도 각종 체육시설 확보나 우수지도자 육성 등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적인 플랜들이 과연 있는 건지, 장애인에 대한 체육정책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장애인체육 업무를 인수한 이후에 바로 전담 과가 설치가 되고요. 그 과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적어도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육상트랙 같은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16개 시·도별로 1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차적 계획 좀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자료집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관님, 청각장애인이 발레나 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철 위원 시각장애인이 연극배우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4개밖에 없는 피아니스트 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피아니스트 봤습니다. 있죠.

○이광철 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용 악기 같은 건 없는 거죠? 미술도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백만 원씩 들여서 특별히 제작해야만 하는 것인

지, 혹시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강진희 씨 아시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 공연은 못 봤습니다만……

○이광철 위원 이런 소위 장애인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위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학교나 장애인 예술교육원을 설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연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내용에 따라서 장애인예술학교, 예술교육원 또 장애인 예술 창작물의 공연·전시공간 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광철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집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을 좀 프리젠테이션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상영하며)

오늘 안민석 위원님이나 강혜숙 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외 계층, 이 문화 소외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정책들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것이……

지금 보면 이 편의시설이 말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교통 편의시설 같은 것은 장애인을 위해서는 75%를 넘어가고 있는데 문화예술 쪽에서는 30%, 4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가 50% 넘어가는 데는 3개 단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체육, 음악, 미술, 문화유산, 관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기본적인 다른 정책보다도 아주 뒤져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보고받으셨나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그동안에 문화예술 박물관이나 이런……

○이광철 위원 지금 보세요.

서울시립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특별히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 보면 현실적으로 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는 계획서나 안내장이나 모든 것을 보면 점자 보도블록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보

면 없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국립중앙박물관 복도인데요. 점자 보도블록들이 있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 없습니다. 허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화장실 입구인데요. 있다고 시설에는 전부 다 표시되어 있는데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예술의전당 사례입니다. 예술의전당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에도 보면 시각장애인은 아무 데도 들어갈 데가 없고요. 현관 내부에 보십시오. 아무도 시각장애인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로에 보면 핸드레일은 있지만 거기에 촉지판, 층수 내지 거리를 정하는 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암월드컵경기장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앞인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암월드컵경기장은 더더욱 경악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은 접근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 입구인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례입니다.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점자 보도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24시간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애인시설이 잘 됐다는 데입니다. 고양시종합운동장 사례인데요. 이 사례들이 정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좀 좋은 사례가 되고 다른 시설들도 모범을 받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점자블록들이 모든 곳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동로에 설치된 핸드레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점자 안내도입니다. 안내도가 다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까지 동선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이 있고요. 화장실 입구까지 이어진 점자블록입니다.

이제는 장애인도 작은 차이,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 향유와 체육 향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제가 본질의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책상에 16권의 정책자료집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성실성이 눈으로 보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이번 국정감사, 하반기 국회의 주요 과제가 사회 양극화 해소, 민생 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민생 안정 혹은 양극화 문제를 많이 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문화적 소비고 문화적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장 고통받는 것이 저소득층 그리고 특히 지방의 문화 소비가 급격히 위축됨으로써 오히려 문화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데에 사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사실 굶어죽는 사람은 매우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대개 다 문화적인 체험이 완전히 전무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앞두고 연구소 한 군데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지난 1년간 예술행사, 이 예술에 영화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예술행사를 관람한 비율이 40.7%, 1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술행사에 참여해 보지 않았다는 사람이 약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60%가 1년 동안 어떠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76.5%로 높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은 14.2%,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20대는 자기 동생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50대가 14.2%면 20대 미만, 10대와 그 미만에는 어떨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가 6.1%, 대졸 이상이 66%, 학력

별 차이, 세대별 차이, 지역별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경상남도가 47.6%로 가장 높고 전라도가 33.8%로 낮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의 박탈감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대단히 심각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소외 계층에 대한 저조한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게 지역별, 계층별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먼저 위원님실에서 개혁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이렇게 좋은 조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크게 정책적 참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문화관광부는 그동안에 국민문화 향수권 신장에 역점을 두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진한 면은 있습니다만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 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복권기금 중 약 285억 원을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연령·지역·소득간의 균형 있는 문화 향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참고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호 위원 그동안에 사실은 문광부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역순회형 지원 사업도 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매우 부족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역에 가는 프로그램 중에서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서 성공한 문화 프로그램을 가져옵니다. 현란한 조명과 댄스와, 여러 가지 도시형 문화 프로그램을 저 농촌 가서 보여준단 말이지요.

사실 그건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로 하여금 혹은 그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에 대한 동경과 선망을 더 부추기는 문화예술이거든요. 사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동원해서 지역 토착형 문화에

술사업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세심한 배려 특히 소외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우상호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불법 복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산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불법 복제로 인한 우리 문화산업의 피해규모가 총 9184억 원에 달합니다. 적발규모 또한 온라인 영상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3년도 약 10만 건에서 2004년도 약 20만 건, 2005년도는 8월 20일 현재 17만 건으로 연말까지 합산하면 아마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 음반산업의 몰락이 바로 이런 불법 복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의 불법 복제도 제대로 막고 있지 못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복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인 ‘팍드라마’라고 하는 사이트를 저희 방에서 직접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05년 9월 18일 현재 이 사이트의 게시물 번호수를 살펴보면 총 22만 164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클릭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따져보고 실제 실험을 해 보니까 이 조회수에 이르는 대부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판매와 연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료사이트입니다. 콘텐츠를 우리 것으로 불법적으로 조회하게 해 놓고 팔기는 다 판단말이지요. 그래서 포인트 구매의 최소단위가 15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돈을 벌고 있는데요. 한국의 문화산업체로 돌아가야 할 수익이 해외에서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불법 복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도 신속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내 것은 단속 못하면서 외국에 가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데, 특히 기술적인 문제, 아까도 사실은 정통부와의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기술적 장치를 통해서 불법 복제를 막아

내는 방안에 대해서 정통부하고 제가 볼 때는 일반적 협의보다는 상시적인 연합팀을 구성해서 문화산업계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서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고 법률자문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이미 사업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또 민관공동의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 신고사이트 구축 및 침해 방지대책을 세우고 해당 국에 대해서 침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9월 27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지 진출업체, 저작권 관련단체, 전문가, 외교통상부, 법무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말씀드린 9월 27일에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문화산업 분야에서 강조한 것은 현재의 시장상황에 대한 대책이고요.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 현재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대로 대처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안 대응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향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드림웍스 제2스튜디오 유치, 그리고 헐리우드의 해외거점 확보를 위한 해외문화원 특히 런던문화원 개설, 그리고 드라마 페스티벌,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드라마 분야의 종주국으로서 가치와 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세 가지를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이렇습니다. 2001년 이후에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6위까지 작품의 제작비와 전국 관객수를 비교해 보니까 1명의 관객을 모으기 위해서 소요되는 제작비가 약 3만 7000원입니다. 1인당 영화 입장료가 7000원이라고 산정할 경우에 1인당 3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심각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관객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 것이

지요. 예를 들어 ‘태극기 휘날리며’와 ‘실미도’를 비교하면 1000만 기준으로 하면 ‘태극기 휘날리며’가 2080원 ‘실미도’가 1100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다 이런 변명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내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드림웍스의 ‘슈렉’,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동원됐거든요. 소위 말하면 극장용 애니메이션시장이 한국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안 먹히는데 그 심각한 원인이 바로 우리나라의 pre-production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슈렉’의 제작하는 것과…… 우리가 하청을 잘 하기 때문에 제작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결국은 이 기획 제작, 이문이 떨어지니까 외국 점유율이 높거든요.

제가 보니까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미국이 69.2%를 먹고 있고 일본이 21.2%를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은 9.6%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화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데 애니메이션은 9.6%라는 것이지요.

결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는 결국 pre-production능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아무리 운영비 줘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슈렉’을 만들었던 세계적인 드림웍스의 제2스튜디오, 슈렉3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2스튜디오를 외국에서 찾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찾고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애니메이션 산업을 살리려면 이 드림웍스의 제2스튜디오를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 pre-production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소, 학교를 아무리 세워봤자 그 사람 가르칠 사람이 그 만한 수준이 안 되는데 뭘 가르칩니까? 이것을 데려다 놓고 현장에서 굴러가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류의 해외 확산을 위해서 지금 동남아권은 자생적으로도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구권을 공략해야 되는데 서구권 공략 핵심이 바로 런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브로드웨이에 상영되는 대부분의 뮤지컬을 실험

하는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실패한 뮤지컬은 절대 브로드웨이에 상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바로 해외문화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지난번에 가서 보고 온 장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런던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인데요. 성공회 교회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이것을 125년간 약 120억 정도의, 조건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싼 가격에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현지 대사관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류가 동남아를 넘어서 서양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런던에 거점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거점 만드는 일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대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10월까지 부지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주영 대사관에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교회 건물이기도 하고 또 대사관하고 거리가 멀고 등 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판단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우상호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건물을 중심으로 로터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 말씀 잠깐…… 그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지 공관에서 난색을 표시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우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구주반 국정감사 가는 우리 당 위원님들에게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제가 과연 우리 문화관광부에 있는 문화산업 다루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실태를 점검을 해 보니까 총 23개 위원회가 있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35회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전체 들어간 금액은 약 4억 정도가 들어갔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문화산업과 관련된

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문화산업진흥위원회는 회의 개최 수가 전무하고 음악산업진흥위원회는 2003년 두 번 모인 것이 전부이고, 비디오물산업진흥위원회 또한 2003년도에 두 번 개최하고 나서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문화미디어국이지만 출판물 문화산업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또한 2003년도 단 한 번의 위원회 회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구는 많이 만들어 놓고 문화산업과 관련된 위원회는 2004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위원회를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경제장관간담회 또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또 대외경제위원회 등을 통해서, 제가 늘 참석합니다마는 문화산업의 정책이슈 및 대책을 그 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저희 부에서 설치한 위원회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그런 방금 말씀드린 회의에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문화산업진흥위원회 개최 시 유사안을 다루게 될 것이고, 굳이 우리 문화부에서 설치한 것을 운영하지 않고……

○우상호 위원 만약 그렇다면 다른 조직의 회의에서 더 내실 있게 회의를 하고 있다면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셔서 위원회 체제에 변화를 주든가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폐지하든가 해서 내실 있게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기구만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위원을 파견하는데 회의도 한번 안 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보낸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산업 분야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관심을 뒀습니다마는 이번에 면세점 부분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관광공사를 상대로 얘기할 내용인데, 특이한 것은 OECD 회원

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면세점 관련 매출규모가 상당히 높습니다. 2000년, 2001년까지는 영국, 미국에 이어서 3위를 하다가 2002년, 2003년부터 드디어 미국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면세점 매출규모는 세계 2위 수준인데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국산품 매출현황을 보니까 3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결국은 매출액 많이 올려서 국산품보다는 외국회사에서 수입한 제품들이 더 팔리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관광공사 상대로 질의할 때 보니까 면세점이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은 세계 1위인데 적자면 뭔가 경영을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한국적인 명품 개발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산품의 비율이 2002년 27%에서 2003년에 30%, 2004년 31%, 2005년에 33%, 조금씩 그나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의 상품은 품질·가격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적인 명품 개발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후에 관광레저복합도시를 세워서 대규모 관광인프라가 조성되면 면세점 규모를 이제 확장하게 될 텐데 이럴 때도 면밀히 분석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면세점에서 국내산업 부문에 연관된 효과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꾸 적자나는 면세점 얘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유념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미술은행에 대한 점검은 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데 이제 추가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8시 30분에 감사를 재개해서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감사중지)

(2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경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고 나서 문화관광부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는 순

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네 분 증인 중에 서동진 육영재단 사무국장은 지병을 이유로, 홍연수 전 경향신문 이사는 치료를 위해 출국하였음을 이유로, 김혁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각각 진단서와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와 진단서 등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들 간에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양래 증인의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정 확인의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했으므로 인정 확인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에서 신문하는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그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증인 신문을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증인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증인 김양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특별한 이유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증인 신문을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양래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양래 증인께서 가운데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양래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양래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 김양래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를 전달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증인 한 분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이재웅 위원님께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이재웅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질의하시고 나머지 두 분씩 두 분씩 네 분이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김양래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연봉이 얼마이지요?

○증인 김양래 8500 받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8500을 몇 달 받았지요?

○증인 김양래 1월부터 받았습니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 27일……

○이재웅 위원 그것이 중앙공무원 봉급으로 비교하면 무슨 급인지 혹시 아세요?

○증인 김양래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재웅 위원 장관의 봉급입니다.

지금 아문재단의 직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증인 김양래 15명입니다.

○이재웅 위원 이사장, 사무처장, 또 어떻게 되지요?

○증인 김양래 직원이……

○이재웅 위원 좋습니다.

15명 직원에 연봉 8500만 원, 9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요?

○증인 김양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하한 8500, 상한 9000?

○증인 김양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대단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으로 임명될 때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지요?

○증인 김양래 이사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니다.

○이재웅 위원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 비로소 본인이 사무처장이 된 줄 알았어요?

○증인 김양래 그 이전에 이사장님으로부터 한번 연락이 왔습니니다. 사전 면담……

○이재웅 위원 장관이 추천한 것은 아셨어요?

○증인 김양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잘 모르고요.

○이재웅 위원 장관이 추천한 것을 본인은 모르는데 장관은 김양래 씨를 사무처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장관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까?

○증인 김양래 광주 출신이시기 때문에 알지요.

○이재웅 위원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증인 김양래 글썄요,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재웅 위원 방송국에서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셨지요?

○증인 김양래 총무국장을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무슨 총무국장입니까?

○증인 김양래 총무국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뭐를 하는 총무국장이지요?

○증인 김양래 총무국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관리하고……

○이재웅 위원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입니까?

○증인 김양래 예.

○이재웅 위원 광고 판매가 아니고요?

평화신문의 보급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평화방송의 총무국장을 하셨지요?

○증인 김양래 그렇지 않고요. 제가 1988년에서 1989년 사이에는 평화신문의 지사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평화방송의 총무국장을 한 것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이재웅 위원 광고 판매 국장이 아닙니까?

○증인 김양래 광고 판매는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재웅 위원 좋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19일 제9차 이사회에서 사무처장을 별정직으로 바꿨네요?

○증인 김양래 글썄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왜 그랬지요? 본인은 모르고? 이사회에서 그냥 별정직으로 바꾼 것입니까?

○증인 김양래 예, 아마 제가……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본인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증인 김양래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내부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사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별정

직으로 바꾼 것입니까?

○증인 김양래 예.

○이재웅 위원 별정직으로 바꾸면 뭐가 좋지요?

○증인 김양래 저는 그것을 잘……

○이재웅 위원 본인은 잘 모르고?

○증인 김양래 예.

○이재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3월경에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광주에 있는 포디디자인이라는 업체를 선정했지요?

○증인 김양래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다가 다시 번복하셨지요?

○증인 김양래 그렇지 않고요.

○이재웅 위원 번복하신 적이 없습니까?

○증인 김양래 포디디자인을 번복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은 그대로 포디디자인으로 갔습니까?

○증인 김양래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포디디자인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했다는 얘기지요?

○증인 김양래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확실합니까?

○증인 김양래 예.

○이재웅 위원 번복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다고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증인 김양래 그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재웅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중경에서 목단꽃 축제에 증인이 참석한 적이 있으시지요?

○증인 김양래 그것은 아니고요. 낙양인데 낙양에서 목단꽃 축제를 하겠다고 한국의 한류 가수들, 스타들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문서가 중국 문화부로부터 우리 문화관광부에 전달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하고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4월 말 또는 5월의 행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 이전에 부랴부랴 중국에 가서 북경에서 관련된 분들을 만난 사실은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경에 가셨다는 얘기지요?

○증인 김양래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북경에서 ‘내가 대통령도 동원할 수 있다, 내가 문화부 차관보다 더 높다’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양래**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문화관광부장관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중국 문화부에서 한국 문화관광부로 향의나 확인 외교문서가 온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없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본인이 문화부 차관보다 더 높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거기다가 중국 문화부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온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증언으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규원 전 사무국장, 이사회에서 사무처로 정관개정을 하기 전에 사무국장이던 분이 지금 김규원 조사연구실장이지요?

○**증인 김양래** 예.

○**이재웅 위원** 이 김규원 조사연구실장이 감사원 감사가 결정되자마자 사직을 했는데 이것도 오비이락입니까? 왜 그랬지요?

○**증인 김양래** 김규원 전 사무국장은 7월경에 그분하고 함께 일을 하던 여직원 두 사람이 그분과의 갈등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웅 위원** 여직원과의 갈등이라는 게 무슨 얘기지요?

○**증인 김양래** 업무상의 문제가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요.

○**이재웅 위원** 업무상의 어떤 일입니까?

○**증인 김양래** 개인에 관계된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재웅 위원** 사무처장이 업무를 통괄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문제라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 파악도 안 하고 사직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증인 김양래**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재웅 위원**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증인 김양래** 그분 개인의 명예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이재웅 위원** 성추행입니까?

○**증인 김양래** 성추행은 아니고요.

○**이재웅 위원** 그러면요?

○**증인 김양래** 일단은 그분들이 나가면서는 업무상 자기 상사로부터 출근이……

○**이재웅 위원** 좋습니다.

장관께서는 아까 두 사람을 먼저 추천했는데 두 사람이 고사해서 김양래 씨를 추천했다고 말

씀하셨는데 처음에 추천하셨던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실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두 사람 다 여성이었는데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이재웅 위원** 밝히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왜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분들 역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사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재웅 위원** 고사 이유로 해서 저 사람이 사무처장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름은 밝히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지금은 박물관에 가 있는 광영진 전 문화산업국장과 죽 상의하면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의사타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재웅 위원** 글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네요. 이 사람이 사무처장이 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저 사무처장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던 분인데 이름조차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러면 김양래 사무처장을 처장으로 추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김양래 사무처장은 카톨릭 계통의 언론에 있었는데 여러 성직자들로부터 인품에 대해 매우 정직한, 강직한 성품이고 업무에 대한 추진력과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히 그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어서 천거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김양래 사무처장이 인품이 좋고 추진력이 뛰어나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류문화사업 구축을 위한 중대한 사무처장의 직위에 마땅한 사람이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 한류사업 구축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이재웅 위원** 한류문화사업을 주축이 되어서 해 나갈 만큼 어떤 점을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

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한류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고…… 잠깐만요. 제가 그때 본 자료를 갖고 있었습시다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재웅 위원님, 질의 시간이 끝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2분만 질의드리고 나머지 3분은 이재웅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아문재단의 성격이나 앞으로의 기능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아니면 운영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의식이 덜 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쓰는 것이나 운영에 있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그야말로 일반 사조직에서 하는 것 비슷하게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아문재단 전체의 의식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재단 정관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한달 전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지요?

○증인 김양래 예.

○박형준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설명 못드리는데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바깥에서 볼 때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신현택 재단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삼화프로덕션에 판권이 있는 일일극 ‘결혼의 법칙’을 영상물교류 예산 3억 원 가운데 1억 7326만 원으로 구입해서 홍콩 TV로 방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재단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이사장 개인회사가 판권을 지닌 것을 사 가지고 방영을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도덕적 해이가 어디 있습니까?

또 3억 원 중 불용처리된 1억 2600만 원이 회수되지도 않았고 연수프로그램 사업비 8000만 원도 부당하게 집행됐고 1억 7900만 원이 지원된 한류브랜드 이미지 조사도 별도의 연구실적을 내놓지 못하거나 부실한 연구실적을 보이고 있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해 오고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아시아문화재단이 이렇게 남의 돈 쓰듯이 주인 없는 조직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시아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문광부에서도 관리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재웅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바로 쓰시겠어요?

○이재웅 위원 예.

○위원장 이미경 이재웅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재웅 위원 사무처장은 장관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증인 김양래 장관님께서서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뵈고 소개 받거나 그런 일은 없고 저희 지역의 의원이셨고 저는 지역에서 언론에 종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관계입니다.

○이재웅 위원 장관께서도 김양래 씨를 언제부터 아셨는지 모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국회의원 하고 난 뒤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게 몇 년쯤 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98년인지, 하여튼 제가 96년부터 국회의원 했으니까……

○이재웅 위원 국회의원 하시고 난 뒤에. 국회의원은 아는데 정작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모른다, 김양래 사무처장은 지금 장관을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니……

○이재웅 위원 그제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교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되고 난 뒤 개인적인 교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증인 김양래 이렇잖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역의원이시니까……

○이재웅 위원 교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답을 해 주세요.

○증인 김양래 대개 의원님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귀향활동을 하시면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재웅 위원 그게 몇 년도냐구요?

○증인 김양래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

때는 제가 언론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재웅 위원** 장관님, 신현택 이사장과 사무처장이 상당히 불화관계에 있다는 설이 있는데 모르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아문재단과 관련해 질의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민병두 위원께서 이사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미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상임위 때부터 위원님이 지원의 근거,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느냐를 지속적으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것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요.

○**이재웅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시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처 운영비를 당초에는 5억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왜 6억 5000으로 다시 올렸지요?

○**증인 김양래** 언제 말씀이십니까?

○**이재웅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시행일자 7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수신, 참조 문화산업정책과장, 사무처 운영비를 다시 변경하는데 한두 건이 아니예요.

○**증인 김양래** 맞습니다.

○**이재웅 위원** 한두 달마다 바꾸는데 이것은 좋고, 사무처 운영비가 5억에서 6억 5000으로 왜 1억 5000이나 증가했지요?

○**증인 김양래** 답변드릴까요?

○**이재웅 위원** 예.

○**증인 김양래** 연초에 6명이었던 작년 정원을

기준으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확정됐지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면서 한류 증진·확산을 위해 인원을 늘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즈음 돼서 경상비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미경** 시간이 됐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한류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로 1억을 또 올렸지요?

○**증인 김양래**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랬다가 7월에 1억 다 못 쓰겠다, 3500만 원만 쓰겠다 해서 또 바꿨네요?

○**증인 김양래**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일을 하는지 이거 하나만 봐도 충분히 자질과 능력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 난생 처음 국회에 증인으로 오셨지요?

○**증인 김양래** 예.

○**정청래 위원** 저도 난생 처음 증인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아시아문화재단이 잘 활동해서 세계문화재단으로 계승·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증인 김양래** 감사합니다.

○**정청래 위원**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제조업시대에서 문화산업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문화를 잡는 국가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고 이미 그것이 적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산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측면도 물론 주요하겠지만 실지로 문화운동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양래** 동의합니다.

○**정청래 위원** 재단구성을 보니까 실지로 대한민국의 한류문화를 생산해 내는 기라성 같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총망라되어서 한류문화를 확산하고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죽 살펴봤더니 방향도 맞고, 초기단계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협조를 잘 이끌어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으로서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증인 김양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 아문재단이 초기에는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미숙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 일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정부의 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받아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계기에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저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상임위에 잘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지로 미래에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의 효자산업으로 문화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10대 문화강국 중 10위에 턱걸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간다면 5대 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제가 파리에서 길을 헤매서 전화를 빌려 쓰려고 하는데 그분도 삼성 애니콜 전화를 갖고 있으면서 애니콜의 나라니까 쓰게 해 주겠다고 할 정도로, 실지로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럽에는 한류문화가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상호 위원께서도 런던을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자주 가는데 중국에서는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정도로 우리 한류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 게임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양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은 중국에서 스스로 시장개척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을 잘 하고 있는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문재단은 현지 전략을 챙겨 감에 있어서 잘 하고 있는 것은 복돋을 수 있는 방법을, 문제가 있는 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게임문제에 있어서는 게임 자체에서 하는 일들을……

○정청래 위원 그 분야는 제가 조금 압니다. 중국도 그 일 때문에 자주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류 스타 배용준 씨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제 우리 문화를 다른 문화에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해야 한다.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 우리 문화의 발전뿐 아니라 한류의 지속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향이 맞았고 그리고 구성원을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쪽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화인사들 중심으로 꾸린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양래 처장의 잘못은 아니지만 회의를 열지 않고 연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점은 앞으로 한류문화 전파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국회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증인 김양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충환 위원 김양래 사무처장님, 지금 한 9개월 됐지요?

○증인 김양래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본인이 지금 하는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양래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동안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증인 김양래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사명감이 있습니까?

○증인 김양래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정관 개정할 때

누가 개정하자고 주장했지요?

○증인 김양래 어떤 정관을 말씀하십니까?

○김충환 위원 작년 12월에 정관 처음으로 개정하고 사무처장될 때……

○증인 김양래 죄송합니다마는 그때는 제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도 누가 주장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증인 김양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김충환 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증인 김양래 예.

○김충환 위원 그런데 그때 사무처장으로 바꾸는 것이 무슨 긴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증인 김양래 제가 사무처장으로 막 부임했을 때 저희 직원이 여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충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정관 개정 후 3개월 쯤 지난 다음에 장관의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무슨 조치를 했나요? 말하자면 허가가 나기 전에 취임한 것 또 취임해서 여러 가지 결재한 것이 사실상 법적으로는 무효인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따로 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동안 한 일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단든지 무슨 결정을 한 적이 있나요?

○증인 김양래 없었습니다.

○김충환 위원 없었죠?

○증인 김양래 예.

○김충환 위원 정관 개정 자체가 긴급한 이유라고 하는 명백하고 현저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 없이 했을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가 난 이후 그때까지 3개월 동안 돈 지출한 것이나 그 외의 결정이 무효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정해 주는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도 그런 조치가 없었던 말이에요?

○증인 김양래 예.

○김충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변호사나 일반 법조인들에게 의논해 본 결과 지금까지도 무효인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만 둘 각오도 있는지?

○증인 김양래 저는 이사회에서 의결돼 임용이 됐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그 행위 자체가……

○증인 김양래 이사회에서 저에게 해임을 권고한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초기에 포디자인으로 바꾸는 문제, 목포대학의 손 교수님하고 중국에 갔던 문제, 북경에 4박5일 가면서 돈을 많이 쓴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

○증인 김양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충환 위원 말하자면 홈페이지를 포디자인으로 바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양래 포디자인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맡긴 것이기 때문에……

○김충환 위원 그리고 목포대학의 손영환 교수님하고 갔다 오신 적 있지요?

○증인 김양래 그분은 저희 자문위원이시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목포대학은 입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시 중에……

○김충환 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쭙 보고 싶은 것은 비용지출을 어떤 기준으로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부와 기준을 맞췄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썼나?

○증인 김양래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중국에 갔을 때 러브 샷을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양래 그것은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투서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중국 CCTV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증명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예산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한류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또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처음에 정관 개정한 이후부터 장관 허가가 나기 전까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법적인 무효가 된 행위들에 대한 하자치유에 대한 것이 바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빨리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김양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2003년도 창립 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변경했거나 비용을 소급 지급했거나

한 일들이 실제 아문재단 내부의 운영 과정에서 있었지요?

○증인 김양래 있었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대개 김양래 처장께서 오시기 전 일이지요?

○증인 김양래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사실 아문재단은 김양래 처장이 오시기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취임하신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변경했거나 비용을 소급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증인 김양래 없습니다.

○우상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김양래 처장이 오셔서 이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던 조직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신 것 아닌가요?

○증인 김양래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상호 위원 처음에 사무처장으로 오셨을 때 조직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가 보니까 2004년 12월 말에 총 6명의 직원 중 사무국장을 제외한 전원이 이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증인 김양래 사실입니다.

○우상호 위원 사무국장만 빼고 나머지 직원이 전부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증인 김양래 사무국장하고 업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위원 1명도 아니고 전 직원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까?

○증인 김양래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면 결국 그 대타로 들어가신 거네요?

○증인 김양래 사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사업을 변경했거나 비용을 소급 지급한 것도 바로 그 전임 사무국장입니까?

○증인 김양래 그분이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투서가 혹시 전 사무국장이 투서하신 건가요?

○증인 김양래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우리 국회에서 한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한류를 전담하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제기됐었는데 실제로 우리 김양래 처장 들어오셔서 역

점을 둔 일이 됩니까?

○증인 김양래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역점을 뒀던 일은 우선 저희 문화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정보교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우상호 위원 그래 가지고 해외에 여러 리포터나 통신원을 두고 거기서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리스크립팅(rescripting)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을 한 것이죠?

○증인 김양래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저도 사실은 매일 그 소식을 봅니다만 굉장히 유용한 정보로서 제가 국정 질의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료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양래 감사합니다.

○우상호 위원 해외에 간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해외에는 주로 무슨 이유로 가십니까?

○증인 김양래 제가 해외에 열 차례 나갔는데요. 그 중에 네 차례는 단장 자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호치민 해방기념일 행사의 단장, 아이치엑스포 한류스타 공연단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장 또는 저희 이사장님께서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가서 이벤트에 참여하고 저녁 때 술 먹고 러브샷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일을 보고, 물론 거기 계신 분들하고 때론 술도 먹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회의하고 한 그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있습니까?

○증인 김양래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상호 위원 주로 어느 나라하고의 연대나 교류를 더욱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양래 금년에는 중국하고 베트남 쪽을 주로 역점적으로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한류라는 것이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 사실 상호 교류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굉장히 평등한 그런 교류협력을 추진한 그런 쪽으로는 어떤 일들을 추진하셨어요?

○증인 김양래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외 언론들을 초청해서 한국의 발전된 문화산업을 그 나라에 가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여 개 나라에서

약 150명 정도의 언론인들이 한국 문화산업을 취재하고 돌아가서 자기들이 쓴 기사나 테이프를 저희에게 피드백으로 보내줄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하고 좀 긴장관계에 있는 중국 같은 데서 드라마라든가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수입해서 한국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영한다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의 다큐멘터리들을 좀 수입을 해 가지고 방영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양래 처장 들어오셔서 저는 상당히 조직도 정비되고, 전 직원이 사표를 낼 정도로 흔들리던 조직이 정비도 되고 또 나름대로 큰 성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의 조건에서 상당히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으로 오신 것은 단순히 증인이 처장이 된 이후에 잘했나 못했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문재단이 분명히 과거에 여러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변경했거나 비용을 소급 지급했거나 이사회를 열지도 않았으면서 열고서 사실 참석자도 적은데 된 것처럼 이렇게 하거나 이런, 사실은 미숙했다고 표현하지만 국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옳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있던 일을 왜 이런 증인이 됐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가지고 이후에 진행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한류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여러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정보와 교류협력에 도움을 주시면서 내부적으로는 정말 엄격하게 자기혁신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양래** 예.

○**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재웅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간단하게 확인하십시오.

○**이재웅 위원** 지금 국회 문광위에서 아문재단이 논란이 되고 난 뒤에 혹시 김양래 사무처장께서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 중에 누구 만나신 적이 있어요?

○**증인 김양래** 위원님들이요?

○**이재웅 위원** 예.

○**증인 김양래** 만난 적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국회에 출입한 적도 없고요?

○**증인 김양래** 출입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만나 뵈는 적은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국회에 출입을 했는데 우리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아무도 만난 적은 없나?

○**증인 김양래** 예.

○**이재웅 위원** 국회에 왜 오셨죠?

○**증인 김양래** 그때 투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여당 보좌관 한 분이 이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분을 뵈는 적이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여당 보좌관을 만나셨어요?

○**증인 김양래** 예.

○**이재웅 위원** 어느 위원 보좌관인지는 혹시……

○**증인 김양래** 죄송합니다.

○**이재웅 위원** 그것은 나중에 출입 보면 아니까……

○**증인 김양래** 예, 찾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재웅 위원** 보좌관을 만나셨나?

○**증인 김양래** 예.

○**이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일반 증인에 대해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증인 신문을 종결하고 증인은 퇴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양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신문에 이어서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추가질의는 여야 3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당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 오전에 이걸 꼭 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문광부의 각종

사업들이나 예산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방만하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건 좋습니다. 뷔페가 좋은데 그 뷔페음식이 하나하나 전부 맛있는 음식이 되어 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예산낭비가 되고 탁상공론식 사업계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예만 제가 들겠는데요.

우선 2002년부터 46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시죠? 이게 투입자금에 비해서 활용 실제 판매액이 예상 판매액 14억보다 훨씬 못 미치는 6억 99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14억 이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적게 잡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2002년, 2003년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을 통해서 총 54개 과제를 선정해 115건의 상품화가 추진되고 있고 그 개발 진행과제 중에서는 9개 과제만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과제수행 비용을 감안하면 대단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동경문화원 신축공사를 보면 79년 개원 이래 이게 임차료가 많다 그래서 새로 짓기로 했는데 2002년 총 사업비 720억 원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 말 공사 착공 2004년 완공이라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 진행률이 5%에도 못 미치고 2년여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 사업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등 이게 재검토 사업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박형준 위원 이런 것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어떤 의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광주 문화중심도시고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카고의 밀레니엄파크에 대해서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못 들어 봤습니다.

○박형준 위원 시카고의 밀레니엄파크가 약 우리나라 돈 5000억 원을 들여서 그것도 거의 한 5, 6년 동안 진행된 사업입니다.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지은 프랑크 게리라고 신이 내린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이 총 프로젝트 커미셔너를 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프랑

크 게리가 야외 음악당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작가들을 전부 동원해서 그것도 시민들이 인터랙티브하게 그야말로 참여 속에서 서로 작품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시카고의 또 다른 새로운 명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분명하게 관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철저한 사업계획입니다. 그 사업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네트워킹하고 실행해낼 수 있는 추진력,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이런 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KDI가 작년 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몇 가지를 굉장히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성격 그다음에 공연·전시물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고민이 불명확하다, 경제성이 사실상 기대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지금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제시가 됐고 제가 이번에 국회 예산정책처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 적정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땅부터 전부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부지부터 확보해 놓고 부지비용 다 지불해 놓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물론 돈을 일단 집어넣어 봐야 국가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큰 국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계획하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의구심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제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충분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이미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자료만 하더라도 문

광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나눠 먹기식 아니면 상당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문화올림픽인 텔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텔픽은 고대 그리스에서 아폴로신에서 바치던 문화제전을 현대화한 문화올림픽입니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예술, 문학 등 문화예술 경연을 벌이는 텔픽은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제2회 텔픽대회가 열렸고 제3회 대회는 2009년에 열리게 됩니다. 3회 텔픽대회 개최지는 내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시에서 열릴 예정인 IDC(국제텔픽조직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도 등 몇 나라가 제3회 텔픽을 유치하기 위해 맹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초기 단계인 세계텔픽대회를 유치하여 성공리에 개최하면 창작국,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관님, 문화올림픽인 제3회 세계텔픽대회를 유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말씀대로 텔픽 게임이 우리나라에 유치된다면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대회가 문화예술뿐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건축, 농경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대회인 만큼 관련 부처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만약에 세계텔픽대회가 우리나라에 유치되면 이 대회를 적극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관계부처와 먼저 사전에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예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SBS 공채 출신 연극배우가 4년 동안 연극을 해서 받은 돈이 4만 원이라고 합니다.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현재 연극협회 이사장이 60이 넘어서 그것도 TV에 출연한 이후에야 밥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밀가루 한 포대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날 발걸음이 하늘을 날 것처럼 가벼웠다는 어느 예술인의 말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시인 소설가 음악가 화가 배우 등 예술인은 우리 시대를 이끄는 빛나는 문화예술의 생산자입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화콘텐츠는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책 영화 방송 게임 그건 또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이나 문화산업 진흥은 무엇으로 이룩하겠습니까?

저는 창작국도 건설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예술인 복지대책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에 창작환경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예술인 복지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이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개편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다른 차원에서 좀더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던 고서적 중 25권의 수사본(手寫本)과 121권의 인쇄본이 도난된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김재윤 위원 당시 BNF,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히브리어 담당 관장인 미셸 가렐(Michel Garel)이 수 년 동안 코란 및 페르시아의 고서적을 훔친 사건이었습니다. 미셸 가렐은 1993년 당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외규장각 문서 1권을 돌려준 일을 ‘국가 원수가 절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관장이 고문서를 절도한 사건을 두고 프랑스 현지의 언론은 BNF의 모든 책들이 도난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

랑코 미테랑 도서관 등에서 1997년 이래 3만 권의 고문서 분실이 있었고, 2004년에 1183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회장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문화재청이 2004년 11월에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외규장각 도서 분실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주 외교통상부가 프랑스로부터 현재까지 수사결과 분실된 것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실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프랑스정부로부터 분실된 것이 없다는 공식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김재윤 위원 앞으로 프랑스가 보관 중인 외규장각 문서는 명백한 약탈 문화재로서 마땅히 반환받아야 하는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보물입니다. 유네스코는 1995년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협약’에서 약탈 문화재의 본국 반환을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약탈문화재를 ‘무력분쟁, 점령, 식민지배의 결과로 반출된 문화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우리나라의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반환을 요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이 외규장각 문서를 프랑스가 제대로 보관하고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지난 7월 5일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 유일본에 대해 디지털 복사본을 요청했습니다. 1991년 서울대 도서관이 외규장각 고문서를 반환해 달라고 했을 때 프랑스의 외무성은 ‘선물이나 대여도 불가능하다. 다만 한 통의 마이크로필름 복사만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직접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문화재교섭분야는 문화재청이 창구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 바는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례 조사연구’ 보고서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철 위원 아까 장관님께서 월드컵 잉여금에 대해서 공공재원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체육 주무부처 장관이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아직도 월드컵 잉여금이 공공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기부 전에는 법인재단이나 기금의 재산입니다마는 기금에 기부된 이후 현재는 용도가 한정된 사실상의 공공재원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광철 위원 월드컵 잉여금은 공공재원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 8월 12일 현재 불법 복제물 18만 1829건이 단속됐습니다. 장관께서 이것을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

○이광철 위원 이것은 지난해 2만 1354건 보다 약 9배가량 많은 것인데 아마 연말까지 간다면 1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도 2004년 28건에서 2005년 8월 현재 108건으로 최대 7~8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붕파라치 아십니까? 일회용 붕투를 무상으로 주면 신고해서 포상금 챙기는 붕파라치, 과파라치, 고액과외 신고해서 상금타는 과파라치, 슈파라치 아십니까? 슈퍼에서 상품 기일 넘어간 것 신고해서 하는 것, 노파라치,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 것, 넷파라치 아

세요? 넷파라치는 네티즌들의 불법 복제나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내서 의뢰받은 사이트에 연결해서 형사고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18만 건이나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네티즌들의 의식이 올해 초 새로 적용된 개정 저작권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단속과 이런 과정으로 해서 온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한테 저작권 문제는 교육이 열쇠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같습니다마는 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 금년 내로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교육 예산에 저희들이 10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실제로 지난해 12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6대 도시 13세 이상 55세 이하 남녀 713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작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6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자체가 아직 매우 낮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더더욱 낮고요. 이렇게 해서 단속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불법 복제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저작권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해서 저작권법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지 않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저작권 교육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통한 홍보와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저작권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작권 교육 및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1차년도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사회의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기준과 내용들이 전국적 관점에서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오히려 지역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어서 지역의 특수성과 내용을 고려해가면서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문에 대한 지원과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갖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역신문발전협의회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은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되었고 그것이 간섭했다는 불씨를 제공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역신문발전협의회에서도 내년부터 그런 의견을 참작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이광철 위원 상근 위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할 해당 부처를 이미 정했고 그것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광부는 본부청사 수선에, 개선하는 데 10년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95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진위, 관광공사도 최근 5년간에 시설 개·보수에 1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옮겨갈 기관의 청사를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수·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물이 낡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손봉숙 위원 오래 되었지만 만약에 다음에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모르고 새로 들어오는 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돈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더러 혹시 안 갈지도 모르겠다,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수를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개·보수를 하는 것은 주로 파이프나 벽면들입니다.

○**손봉숙 위원** 영진위 경우를 보면 야외 화장실 증축, 녹음실 공사, 춘사관 증축, 한국관광공사를 보면 승강기 홀, 천장텍스 개·보수, 외벽 도장, 승강기 6대 교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이전하면 또 거기 가서 새로 사야 되고,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자기 용도에 맞게 다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가 고치지 않고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복수미디어랩 도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계적인 경쟁체제로 이행하겠다 그래서 제1단계, 제2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제1단계는 1공영, 1민영…… 1민영이지만 코바코가 30% 출자, 그냥 비슷한 체제로 가는 것이지요. 하나 더 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2단계로 넘어가서 2공영, 1민영으로 가려면 1단계의 어떤 전제조건을 두셨던데 과연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1단계로 갔다가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전제조건까지 달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은 검토단계이고 10월까지의 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손봉숙 위원** 그런 2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 같은 것은 없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시장에 주는 충격도 있고요. 종교방송이나 신문의 광고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단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손봉숙 위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1단계, 2단계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광부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경쟁체제로 간다는 것이 실현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주제작 전문채널 설립하고 또 방송광고 T/F팀을 구성해서 두 가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이 과정에서 반드시 사업의 성격상 방송위원회와 문광부가 서로 협의하고 정책논의를 함께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두 T/F팀 역시 방송위원회가 불참한 가운데 상당히 마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외주 채널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를……

○**손봉숙 위원** 아니요. 그것도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방송위원회의 얘기 다르고,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각자 돌아가서 그 날 논의에 대해 회의록 기록한 것을 보면 각자 다른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차이가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래서 두 단체가 그렇게 기싸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협의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손봉숙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마저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공기관의 매점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평균 허가율이 18%입니다. 문광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광부는 4%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진합니다. 이것은 작년 국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 좀 명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고궁 같은 곳을 보면 이제 계약이 만료된 데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한 곳이 돌려준 것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유념해서 실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이용하시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용하십니까?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저희들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은 2003년도에 22%고 2004년도에는 8.9%, 2005년도에는 4%입니다.

○손봉숙 위원 왜 자꾸 내려갑니까?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 본부에서 쓰는 화장지 그런 것들은 전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화장지만 전량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열일곱 가지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일정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법정비율이라도 문광부가 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대부분 법정비율은 상회하고는 있을 것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하단체에 대한 자료도 동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총무과장 원용기 예.

○손봉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중입니다마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시급한 안건을 처리한 후에 감사를 재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감사중지)

(2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경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 위원 장관님, 제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특급호텔 수가 37% 늘었는데 외국인 투숙객 수는 9%나 줄어든 현실을 감안하면 특급호텔 용자위주의 기금운용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제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우리나라 외국인 투숙객 수가 줄어든 것은 특급호텔 숙박료가 비싸서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리 호텔의 가격이 비싸면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윤원호 위원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 특급호텔 숙박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특급호텔 수가 37%나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숙객 수가 지금보다 10%가 더 많았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리고 특급호텔 수가 늘어나면 특급호텔 숙박료가 외국인들이 비싸지 않다고 느낄만큼 저렴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급호텔 수와 숙박료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해서서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용자사업에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용자사업 중에 카지노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용자하는 사업인데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271억 원 정도 용자하셨던데요. 이 용자액의 85%인 231억 원을 위커힐 파라다이스, 부산, 제주 등 세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커힐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총 65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받았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603억 원이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들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호텔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문화관광부의 불분명한 정책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현황보고에 따르면 남양주를 영화 중심 클러스트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의해서 부산으로 이전된 영화진흥위원회 소속인 남양주 촬영소가 매각이 되지 않으면 제2촬영소를 정읍으로 가겠다는지, 남양주에 그대로 두겠다는지, 제가 결산상임위 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문광부 인터넷에라도 답변을 올려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방침에 따라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종합촬영소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부산시 간에……

○윤원호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확실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원호 위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 정부의 가장 잘 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광부가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그것은 제

가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방침에 따라서 종합촬영소도 부산으로 갑니다.

○**윤원호 위원** 종합촬영소 부산으로 가는 것 확실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확실합니다. 지금 부산시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009년 제121차 IOC총회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인 유치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3일까지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에 공식 유치제안서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체육회가 그렇게 정했고요, 정부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정부에서 도와 주실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제 대회유치심의위원회의 총리실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윤원호 위원**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가상광고, 장관님께서도 협찬노출이라고 하시는데 감독이 문화관광부이든 방송위원회이든간에 가상광고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 규제를 하실 것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송위원회가 이미 제재를 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원호 위원** 루루공주에 대해서는 사과방송을 하도록 징계를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송위원회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在五 委員** 성인오락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인오락실이 우후죽순으로 번져 나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감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상영하며)

금년 7월에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가 도입됐습니다. 9월 현재 전국에 약 1만 4000여 개의 성인오락실이 있고 거의 도박장으로 성업 중에 있습

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개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품권 환전 방지가 해결되지 않고 시장규모가 급팽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제도 도입으로 가맹점을 통한 상품권 정산이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로 바뀌어야 하나 여전히 환전소를 통해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며 20원 하던 딱지 상품권이 5000원짜리 환전용 칩으로 사용되어 게임업체의 시장규모만 급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개 발행사의 상품권 발행현황을 보면 누적발행매수가 한 달 반 동안에 3억 4000만 장입니다. 발행사 매출규모는 3억 4000만 장을 5000원으로 하면 1조 7000억 원이 됩니다. 발행사 순이익은 3억 4000만 장을 40원으로 계산하면 136억 원이 됩니다. 발행사 연간 순이익을 추정하면 하루 최소 500만 장이 상환 가능하다고 볼 때 발행사 하루 예상순익을 40원 해서 500만 장 하면 2억 원이고, 한 달 예상순익은 2억 원 해서 30일 하면 60억 원이고, 연간 예상순익은 60억 원 해서 1년 하면 720억 원입니다. 게임문화진흥기금 연간 조성규모가 약 1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임개발원 수수료 수익금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게임장 이용자 외에는 보호대책이 전혀 없어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지정제도는 게임장 이용자가 소지한 상품권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 발행사가 부도가 나면 상품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업소나 유통업소의 상품권은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립니다.

이에 따른 불안감으로 현장에는 아직도 딱지나 여신상품권이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고 업계에서는 상품권을 가진 그 누구라도 100% 보호받을 수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유통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상품권 사용이 안 되는 허위등록 가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7개 상품권에 대해 실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전화조사해 본 결과 서점 60개 중에서 24개소인 40% 정도가 해당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과도한 예시·연타 고배당으로 사행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예시·연타 가능성이 있는 게임물의 경우 1회 2만 원까지 연속해서 터지면서 최고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고배당으로 성인오락실은 사행성도를 넘고 있으며 이들 게임물들은 예시·연타의

사행성에 대해 영등위가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심의통과 후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게임장의 건전성을 위한 6대 4의 비율은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오락실의 건전성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18세이용가 게임물 60%, 전체이용가 게임물 40% 규정은 아까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쓸모없는 공간으로 방치되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있으며 면적 비율로 따지면 불과 10%도 되지 않아 오락실의 건전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사행성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행성이 과도하여 적발되더라도 오락실에서는 영등위의 심의를 통과한 합법적인 게임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법적으로 영등위가 이미 통과된 게임물에 대해 재심의하거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질의는, 경품용상품권에 대해서만은 환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등위로 하여금 이미 통과해서 성업 중인 게임물에 대해 불법 사행성에 대한 재심의나 등급분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구하고 예시·연타 기능에 대해서는 횡수나 상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등위 심의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하고 감독과 허가기관을 일치시켜서 경찰청이 단속하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사행행위 처벌특례법을 규정하도록 현재처럼 허가기관, 단속기관, 감독기관이 따로따로 돌아가지고는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볼 때 성인오락실의 사행성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왔느냐 했을 때 오락하러 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돈 따라 온 겁니다. 그러면 돈을 따 가느냐, 돈을 다 잃고 가지요. 돈을 잃고 가는 액수가 10만 원 미만 정도면 그렇다 치고 이게 엄청납니다. 가정이 거의 파탄될 정도이고,

밤 12시에서 새벽 2시에 가 보면 각 오락실마다 뻑뻑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한 조치를 긴급히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게임장의 상품권 환전 방지와 난립하는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품권지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사행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사행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 상품권의 난립 및 환전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품으로서 상품권을 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심의, 등급분류를 지적해 주셨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기관이므로 문화부가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나 게임물의 심의 개선에 대한 사항은 향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다른 질의는 종합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양성평등문화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문화관광부의 양성평등문화 정책의 발전전망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기본이 되고 있는 통계를 모든 산하단체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왜 성별분리 통계가 필요하냐 하면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통계가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통계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및 산하단체들이 얼마나 통계가 잘 되어 있는가 봤더니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실제 통계가 나와야지만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성인지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니

다. 그래서 산하 기관에 성인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성인잡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것들이 아주 기본단계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성인지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먼저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산하단체, 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7개 항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문화관광부의 양성평등정책을 상·중·하로 분류하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평가하면 ‘중’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도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 활용비율, 여성간부 임원비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게 ‘하’였는데요, 여성공무원 4급 이상이 1.4%로 1명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는 그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1.4%인데 여성공무원 4급 이상이 3.2%니까 평균에 못 미치지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이 25%입니다. 그런데 정부 평균이 34.8%이기 때문에 이것도 훨씬 못 미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경숙 위원 이것은 쉬운 것입니다. 여성들을 각종 위원회에 늘리는 것은 쉽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 관련 육아휴직이라든가 비정규직 분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훈련이 2004년에는 있었는데 2005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경숙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성인지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화장실의 경우 남자 여자 똑같은 갯수를 생각하지만 양성평등적 관점이라면 여성들의 사용 횟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6 대 4 정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은 여성들이 70% 정도 더 이용을 하

니까 더 많이 늘어나야겠지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산하단체들의 화장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주 잘한 정책이다, 그래서 계속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또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올해 여성문화 종합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통계거든요. 여성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여성 전문인력은 어떤 상태에 있고,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해야 다음에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아주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제 예산과 사업에 반영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인지적인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제안을 제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문화관광부 내에 양성평등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약직이시면서 다른 업무를 많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정책 담당관 설치가 옛날부터 요구되고 있고 지금 6개 부처에는 있는데 적어도 문화관광부에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문화관광부 내에서 성인지 통계를 냈는데 대표지표를 몇 개 개발해서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요, 그다음에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복도 입고 한지로 된 업무 보고 자료도 받았는데 저는 산하단체 중 해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 이름이 너무 어색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자를 빼든지 집어넣으려면 콘텐츠 말고 다른 것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네티즌도 누리꾼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도 국립국어원과 함께 의논해서 이름을 바꾸어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콘텐츠라는 용어가 아주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입니까? 국

립국어원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디지털콘텐츠 애니메이션 육성방안과 미디어랩 도입 논의에서 중소 방송사가 소외된 것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미디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역신문발전 지원과 관련해서 지발위가 독립기관이라서 직접 얘기하기가 좀 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발위가 별도의 독립기관입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저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독립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두 분은 지금 중언으로서 위증을 하신 겁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까 독립적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에 보면 지발위를 문광부에 둔다고 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발위를 감독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독립기관입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독립기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심재철 위원 장관이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독립적 기관이라고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독립적 기관이라고 답변드렸고 다만 그렇게……

○심재철 위원 제가 아까 운영 세칙에 이러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독립기관이라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법에는 분명히 업무를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해 놔습니다.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맞잖아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저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저희 부에서 담당하는 기관임은 분명합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소속 기관이고

산하기구잖아요?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왜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좀 거시기하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지원을 위한 결정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분명히 감독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기금지원 같은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은 반드시 지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은 운영 세칙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들을 여쭙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제척 사유에도 해당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독립기관이라 좀 거시기합니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게 거시기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저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습시다.

○심재철 위원 장관은 감독관청으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나 신문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개입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A를 해라, B를 해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설정하거나 각종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도 지발위가 정했거든요.

○심재철 위원 정했는데 정하고 난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발위에 얘기를 하셔야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변명 같습니다마는 점검하라고 했더니 언론재단이나 언론단체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압력을 가했다 해서 오늘도 저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나오고 굉장합니다.

○심재철 위원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원 사

업을 평가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법에 나와 있는 근거규정을 왜 안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선정에 관한 한 제가 개입을 못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재철 위원 저는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이 잘못돼 있으니 그 기준들을 재점검하도록 감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이미 지난 번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차후부터는 저희부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은 잘못돼 있으니 운영세칙에서 나타난 각종 판단기준들, 평가 기준들을 즉각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신용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저희 문화관광부로서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특히 기금집행에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서 보다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웅래 위원 아까 장관의 답변 중 노파심이 드는 것이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부 부처 광고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신 것이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각 실·국별로 정하다 보니까 어느 신문사가 조금 겹쳐져 결과가 그렇게 빚어졌습시다라는 되도록이면 어느 신문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웅래 위원 저는 공정이라는 것이 획일적인, 기계적인 평등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가 몇몇 언론에 의한 여론의 독과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론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포함되어야지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공정성과 다른 얘기라

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먹고 살 만한 데다 자꾸 지원해 가지고 배가 터지게 하고 없는 데는 배가 갈라지게 하는 것은 사회정의로 보나 뭐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는 임의단체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노웅래 위원 임의단체인 축구협회에 공공자금인 월드컵 잉여자금 2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체육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월드컵 잉여금 처리와 관련해서 월드컵조직위 정관에 그 조직위가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축구진흥이나 축구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해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예.

○노웅래 위원 그러면 임의단체에 국고를 지원했거나 공공재원을 지원한 전례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일정 부분 국고나 기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잉여금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상으로는 조직의 잔여 재산으로 봤고 이것을 주로 체육진흥공단이나 장애인복지진흥회나 월드컵 개최 도šina, 이런 데는 다 지사체입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했고요. 축구 진흥을 위해서 축구협회도 일부가 갔습니다. 그 용도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유소년축구 활성화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쓰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래서 임의단체에 국고를 지원했거나 공공재원을 지원한 그 전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주시고 우리 안민석 위원한테도 한 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덤으로 종이 더 있으면 판 위원들한테도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지금 이 상임위에서 답변하는 내

용을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 장관께서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이재웅 위원 배종신 차관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아마 상임위 전체 움직임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모니터는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유진룡 실장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차관님만 알고 계시네요?

평가한다니까 상당히 답변이 조심스럽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의원입법으로 지금 아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지금 벌써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듣기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님들 사이에도 논의도 있고 좌우간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예, 잘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 상임위에서 정 장관께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똑같은 질의를 세 번째 합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 부산 영상문화중심도시를 똑같은 레벨에서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하겠다고 업무 보고에서 보고했고 제가 그걸 확인을 했을 때 정 장관께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만 제가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미숙한 답변을 했다고 여러 번 번복도 했고 그것에 대한 사과도 드렸고 한 것을 위원님이 또 지적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이재웅 위원 미숙한 답변을 하신 걸로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때 이미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재웅 위원 왜 미숙한 답변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그때 전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때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이재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광주 문화중심도시와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 부산 영상문화중심도시는 그 레벨이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레벨이 틀린 게 아니고 성격 자체가 별도로, 각자가 추진되어야 할 고유한 그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것은 오늘 여기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문화성장 중심체제 구축에 들어가죠? 그거죠? 그 사업이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각 지역에 맞게끔 조성한다는……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문화성장 중심체제 구축에 들어가는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중심체제를 구축하겠다 그 말씀이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그런데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그다음에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이게 어떻게 ‘중심’이 두 군데는 또 빠져 있어요. 이 업무 보고도 뭘지는 모르겠고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영상문화중심도시를 빠져 있네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부산 영상도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별도로 전주와 경주와 또 다른,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지역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이재웅 위원 이 업무 보고에서는 왜 이걸 빼놓으셨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다음 달에 부산에 가서 부산 영상도시……

○이재웅 위원 부산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업무 보고에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줄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장관님, 왜 한 줄 또 넣기로 하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12페이지 중간쯤을 보시면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 2004년부터……

○**이재웅 위원** 이것은 지역 문화산업 기반 조성 이네요?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문화성장 중심체 제 구축과는 달리……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지역 문화산업 기 반 조성입니다.

○**이재웅 위원** 이제 왜 달라집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뭐가 달라졌단 말입니 까?

○**이재웅 위원** 저번 업무 현황보고할 때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 부 산 영상문화중심도시로 들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때는 중심이라는 말 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보고서 체계상 지금 잘 보시면 앞에는 문화정책국 소관 이고요. 그다음 예술국 소관이고 그다음 문화산 업국 소관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됐네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아니요. 보고서 체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그러지 않아도……

○**이재웅 위원** 보고서 체계가 달라진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유진룡** 예, 어제 보좌관께서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시기에 저희가 지금 업무의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고 보고상 그 려게 된 것이니까 그것은 오늘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같이 하겠 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 까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는 것에는 같이 들 어가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머뭇거 리고 해서 시간을 뺏겼는데 지금 전주 전통문화 도시를 위해서는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네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경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부 지역 문화과 장과 한국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 간사로 들어 있고 여기서 이미 회의를 8차까지 했네요. 회의를 8차 동안 하고 이 사례비도 문화 정책과에서 지급을 했지요?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그것은 정확 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모르겠다면 평가가 어떻게 될지

알죠?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서울에서 T/F 회의할 때 우리 문화부가 지급을 하고 전주에서 할 때는 아마 전주시가 부담을 하고 그랬을 것 같 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8차까지 사례비 지급한 것 다 나와 있어요. 이것 국고로 지원한 거죠?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재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장관께서 각 지역의 문화중심도시를 구 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제 광주 문화 중심도시는 조성 특별법을 만드는데요. 지역 균 형발전에 전라도 특별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주도 특별법을 좀 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아니요. 의원입법으로 이 특별법 을 만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건 의원님들께서 협 의하시면 됩니다.

○**이재웅 위원** 의원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말 씀이요?

자료 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아문재단이 2003년 6월 4일자로 설립 승인을 받았는데 이날부터 오늘 현재까지 아문재단과 관 련된 모든 승인 결재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

○**정청래 위원** 옆에 계신 이광철 위원님이 아까 파파라치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하나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혹시 신파라치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잘 못 들어 봤습니다.

○**정청래 위원** 아무도 못 들어 보셨을 것입니 다. 제가 지금 생각해 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신문법과 함께 신고포 상금제가 통과가 됐고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법이다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 64조 2항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불된 것은 10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며칠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사들이 경품이나 무가치를 뿌리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민언련이 공개한 것에 의하면 신문고시 위반률이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하느냐, 지금 줄 돈, 상금까지 다 공정거래위 통장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선풍기 10만 원짜리 받는 것 신고하면 500만 원을 받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높습니다. 이것 국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문은 신문대로 안 했고 또 눈치 보느라고 방송은 방송대로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국정홍보를 통해서 저는 TV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주무 부처는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제가 그분한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골프장을 제가 계속 제기하는데요. 9월 20일에 서울시장과 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난지도골프장 사장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임시 개장을 하자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서울시에서 최종 결재 직전인 것으로……

○정청래 위원 지금 26일로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가도록, 법은 법대로 가더라도 임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가 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문광부가 자료가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 지금 각종 정부 부처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광부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걸 손놓고 있다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의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가 없으면 수집하는 연구모임이라도, 준비라도 저는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언론 탄압 사례 백서발간 준비위원회를 문광부 내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X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실지로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사들의 부도덕한 추악한 그런 모습을 제가 공개하면서 저도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법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신문들에서 아시다시피 신문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지금 제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일이 그르치지 않도록 문광부에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관련해서는 부산일보 사장을 지금 정수장학회가 실제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장학회의 주요 인맥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다 지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권력기관에서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사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이거야말로 고쳐야 될 거다 생각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발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투명하게 심사결과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실지로 소설적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낱낱이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일단 항목별 평균값이나 총점의 평균값은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건전문화 게임을 위한 예산을 10억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기금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리고 e-스포츠 전용경기장 문

제는 기획예산처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국회와 같이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누차 애기드립니다만 CKCG 예산도 저는 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질의한 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제가 못한 것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장관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미경 예, 먼저 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축구협회 증인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축구협회는 시종일관 법인화를 원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백억의 수입 구조를 자신들 임의로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가만히 이야기 들어 보니까 230억 월드컵 잉여금을 줄 때 그때가 정부 측으로서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의단체에 주는 것은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도 사실 굉장히 약하고요. 그럴 때 230억 월드컵 잉여금을 줄 테니까 그 조건으로 너희들이 법인화해라, 2003년도에 그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부측에서 축구협회가 법인화를 하든 안 하든 아예 관심이 없었던지, 아니면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던지, 저는 그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 2003년도에 월드컵 잉여금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법인화의 아주 좋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협회가 하는 것으로 났다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회는 끝까지 어떻게 하면 법인화를 빠져나갈까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 체제의 임원들, 현 회장이 있는 체제의 임원으로 있을 때까지는 법인화를 안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관님이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저의 해석이, 2003년도에 월드컵 잉여금을 통해서 축구협회 법인화를 유도해

내는 좋은 계기이지 않았을까, 그것이 안 됐던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 내지 법인화가 되든 안 되든 관심이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 것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진 위원 서면질의를 했던 것인데 서면질의를 부실한 경향이 있어서 지금 깊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배종신 차관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국보지정 해제 또는 변경은 문광부에서 합니까, 문화재청에서 합니까?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대문이 1호인 것보다 한글이 1호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화재청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문광부 소관이겠는데 제가 지난번 8월 16일에 문광위 예산결산상임위 질의 시 방송작가의 사회적 영향이나 중요성, 공헌 등을 생각해서 예술원 회원 가입 길을 열어 달라고 했더니 현재 후보자 추천권자의 한국방송작가협회 추가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똑같이 대중예술하는 분, 특히 사진작가나 대중음악인 그다음에 영화배우나 감독, 탤런트, 방송연출자의 원로들이 똑같은 요구를 해 왔는데 현재 해당 분과가 없기 때문에 추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그들의 영향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또 100명의 T/O에 여유도 있고 한테 이번 기회에 대중문화예술에 대해서 문광부 장관님께서 좀 살피시는 김에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은 최구식 위원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진주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밤 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현 정부의 특징이 무엇 하나 잘하겠다고 찍으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다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관광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관광수지 적자가 1.7억이었습니다. 2004년 관광수지 적자가 38억입니다. 올해는 7월까지 35억입니다. 연말까지 되면 얼마나 적자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매력적인 관광지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가격탄력성이 아주 큰 관광국입니다. 크다는 얘기는 값이 비싸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남고 값이 싸면 오는 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큰 것이 호텔방값입니다. 우리나라 호텔방값은 아시아에서 동경에 이어서 2위입니다.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비쌉니다. 호텔방값이 올해 1월부터 약 10% 올랐습니다. 20년 가까이 외국 관광객에 대해서 적용되던 부가세 영세율이 올해 1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 부가세는 다 고스란히 방값에 전가가 됩니다. 올해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는 거기에 영향받은 바 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는 좋습니다. 목표야 무슨 목표를 못 세웁니까? 달성이 안 되는 것이 문제지요. 부가세 영세율이 2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올해 갑자기 폐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이 시한이 정해졌습니다만 부가세 영세율의 문제를 저희 부가 자꾸 제기하니까 연차적으로 몇 년씩 연장해 주다가 지난해 말로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전부 옳으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대외경제위원회나 서비스관계장관회의에서 열심히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부의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대외무역법상 관광수출산업 지정을 추진해서 산업자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장관께서는 의사가 충만하신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지난해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현재 당시 재정부총리께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막바지 실무에서의 반대로 잘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중부세, 물론 이것은 나라 전체 차원으로 가는 것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부세로 인한 방값 상승이 약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합치면 15%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발위에서 아까 장관께서 안건이 중요 안건인데 일반으로 잘못했고 제척사유인데도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해서 그렇게 잘못 진행됐으니까 마땅히 의결이 저는 무효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감독자로서 법적으로도 무효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일단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 번복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심판청구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것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무효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독자로서 당연히 재론을 하라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한번 결정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법률에 의한 지도 감독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외규장각도서 도난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프랑스로부터 받은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외교부와 상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상의가 아니라 당연히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외교부와 상의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밀사항이 있는지, 외교부로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우선 외교부와 협의하고, 저희 부 소관이면 또 가능하다면 즉답을 해 드리겠는데, 외교부와 상의를 하고……

○**김재운 위원** 아니, 도난 여부에 대한 공문을 외교부가 프랑스로부터 받았는데 사본을 제출 못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외교문서 중에 기밀문서가 간혹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부분은 기밀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여기서 판단할 수 없어서 협의하겠습니다. 당연히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외교부가 기밀문서라고 해서 못 드린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미경** 못 드리면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도 외교부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이계진 위원, 민병두 위원, 이재오 위원, 정청래 위원, 손봉숙 위원, 정병국 위원, 김재홍 위원, 천영세 위원, 박찬숙 위원, 안민석 위원, 박형준 위원, 김재운 위원, 강혜숙 위원, 정중복 위원, 윤원호 위원, 최구식 위원, 이광철 위원, 이경숙 위원, 심재철 위원, 이재웅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충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김충환 위원님도 같이 포함시켜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본부에 대한 오늘의 국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 첫날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 소속 기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국정감사를 한 후에 10월 11일 문화관광부 본부에 대한 확인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오전 10시에는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오후 3시에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5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24인)

강 혜 숙	김 재 운	김 재 홍	김 충 환
노 웅 래	민 병 두	박 찬 숙	박 형 준
손 봉 숙	심 재 철	안 민 석	우 상 호
윤 원 호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광 철
이 미 경	이 재 오	이 재 웅	정 병 국
정 중 복	정 청 래	천 영 세	최 구 식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문 회
전 문 위 원	최 민 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관광부				
장	관	정	동	채
차	관	배	종	신
차	관	보	임	병
정책홍보관리실장		유	진	룡
종 무 실 장		이	보	경
문 화 정 책 국 장		이	성	원
예 술 국 장		위	옥	환
문 화 산 업 국 장		박	양	우
문화미디어국장		신	용	언
관 광 국 장		김		찬
체 육 국 장		조	용	남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장		조	현	재
감 사 관		성	남	기
비 상 계 획 관		김	홍	찬
총 무 과 장		원	용	기

○출석 증인

김양래(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사무처장)